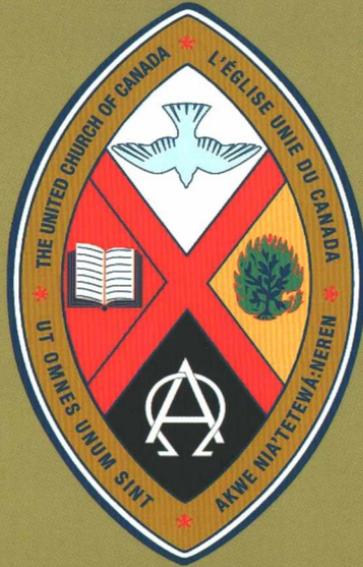


문화상호적 모험의 여정 2:

캐나다 연합교회의 성서의 권위와 해석

The Authority and Interpretation of Scripture
in The United Church of Canada



김혜란, 돈 슈와이처 공저
양태일, 정해빈, 현선도, 전준혁 옮김
번역 감수 : 서영

캐나다연합교회

Copyright © HyeRan Kim-Cragg, 2016

Original published in English under the title ;

An Intercultural Adventure Part II: The Authority and Interpretation of Scripture

by HyeRan Kim-Cragg, Don Schweitzer in The United Church of Canada

Published by Daejanggan Publisher, Daejeon, South KOREA

All rights reserved.

Used and translated by the permissions of HyeRan Kim-Cragg

Korea Editions Copyright © 2016, Daejanggan Publisher. Daejeon, South Korea

문화상호적 모험의 여정 2:

캐나다 연합교회의 성서의 권위와 해석

지은이	김혜란 HyeRan Kim-Cragg, 돈 슈와이처 Don Schweitzer,
옮긴이	양태일, 정해빈, 현선도, 전주혁
초판발행	2016년 8월 23일
펴낸이	배용하
책임편집	배용하
등록	제364-2008-000013호
펴낸곳	도서출판 대장간 www.daejanggan.org
등록한곳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75-21 (삼성동)
편집부	전화 (042) 673-7424
영업부	전화 (042) 673-7424 전송 (042) 623-1424
분류	교회 캐나다 연합교회
ISBN	978-89-7071-389-2 (03230)

이 책의 저작권은 Herald Press와 독점 계약한 대장간에 있습니다.
기록된 형태의 허락 없이는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값 10,000원

차 례

서문: 우리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5

서론 9

1장. 캐나다 연합교회의 성서의 권위와 해석: 역사적 개관 35

2장. 성서 해석: 사례분석 79

3장. 『완전한 포용을 향한 움직임』 안에서의
성서의 권위와 해석 119

결론 151

Abbreviations

AIS - The Authority and Interpretation of Scripture

GC – General Council of The United Church of Canada

LGBTQ - Lesbian, Gay, Bisexual, Transsexual and Queer

PROK –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Republic of Korea

UCC – The United Church of Canada

서 문

우리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지난 2012년 이래로, 김혜란 교수와 돈슈와이처 교수Dr. Don Schweitzer, 사스카툰Saskatoon 세인트 앤드류스 신학교St. Andrew's College의 교수진들은 “문화상호적 모험의 여정” An Intercultural Adventure 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캐나다 연합교회의 한인교회와 캐나다 연합교회를 섬기는 한인목회자들이 함께 동참하여 진행하였으며, 『캐나다 연합교회의 성서의 권위와 해석』은 이 세미나에서 사용된 강의 자료를 기반으로 출판되었습니다. 또한 본서는 김혜란 교수와 돈슈와이처 교수의 노고와 함께 캐나다 연합교회의 Responsive Initiatives Grant의 지원에 따른 결과물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첫 만남은 멀리 밴쿠버Vancouver와 위니펙Winnipeg으로부터 사스카툰 세인트 앤드류스 신학교로 건너 온 한인 목회자 그룹이 캐나다 연합교회로 가입하기 위해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문서들을 함께 공부하고 번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니다. 이 문서들은 서문과 해설을 보강하여 한인 목회자들에 의해 번역된 후, 지난 2013년 『캐나다 연합교회의 한국인을 위한 연합교회 안내서』『An Introduction to The United Church of Canada』로 한국어판과 영문판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그 소책자는 한국어권과 영어권의 캐나다 연합교회 교인들에 의해 이미 유용한 교육 자료로 증명된 바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한국기독교장로회와 캐나다 연합교회 간의 목회상호인정에 관한 합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일에 계속해서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안내서는 2013년 4월 토론토에서 처음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이 출판된 후, 한인교회와 캐나다 연합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을 위해 그들 교회의 중요한 주제들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 두 번째 세미나의 주제는 “캐나다 연합교회의 성서의 권위와 해석”『The Authority and Interpretation of Scripture in The United Church of Canada』에 관한 것이었고, 그들은 세 번째 세미나를 2015년 10월 에드먼턴Edmonton에서 열기로 계획하였습니다. 3일간의 세미나로 진행된 세 번째 모임에서는 현재 캐나다 연합교회의 총회장인 Jordan Cantwell 목사를 모시고, “성서의 권위와 해석”에 대한 주제로 열린 대화의 장을 가졌습니다. 본서의 내용은 대부분 이 세미나를 위해 준비했던 자료들로부터 근거한 것입니다. 이들 목회자 및 평신도 그룹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었더라면 이러한 성과물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모임의 참석자들은 몬트리올, 토론토, 위니펙, 사스카툰, 에드먼턴 그리고 밴쿠버에서 온 목회자와 평

신도들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자신의 목회에 있어서 성서의 중요성을 공유한 후, 이런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2017년엔 몬트리올에서 모임을 갖기로 계획하였는데, 그 모임의 주제는 “캐나다 연합교회의 이주와 선교” Migration and Mission in the United Church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문화상호적 모험의 여정 II” Intercultural Adventure II의 성과물인 본서 『캐나다 연합교회의 성서의 권위와 해석』이 유용하게 사용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본서가 캐나다 연합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전 세계 파트너 교단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서도 두루 사용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번 한국어판 제작에 번역으로 수고하신 양태일 목사, 정해빈 목사, 현선도 목사, 그리고 전준혁 목사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수를 해 주신 서영 목사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국의 도서출판 대장간에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공동의 문화상호적 노력 Intercultural endeavor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혜란 교수와 둔슈와이처 교수

2016년 7월 5일

서론

왜 이것이 지금 토론의 주제입니까?

캐나다 연합교회의 한인 교인들과 캐나다 교인들을 위한 모임이, 지난 2013년 토론토에서 열렸습니다.¹ 바로 이 모임에서, “캐나다 연합교회의 성서의 권위와 해석”이라는 주제가 여러 참석자들을 통해 다음 모임에서 좀 더 나누고 싶은 중요한 이슈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토론의 주제는 1980년대 이후로 캐나다 연합교회 안에서도 많은 문제제기들과 질문들이 있어 왔습니다. 캐나다 연합교회는 항상 “삶”과 “신앙”이란 양 측면에서의 성서의 본질을 강조affirmed 해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캐나다 연합교회는 특정 성서본문이 나타내는 의미와 상반되는 관습과 입장들에 대해서도 지지affirmed해 왔습니다. 한인 교인들은 특히 성서의 권위를 매우 높이 여깁니다. 이들이 캐나다로 이민한 이후 캐나다 연합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 목회자이든 평신도든 종종 이러한 성서 본

1) *An Intercultural Adventure*, April 28–29, 2013.

문과 상반되는 입장에 충격을 받고 혼란스러워 하거나 당황스러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때때로 다른 교단의 한인 교인들로부터 지적 받는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교단의 사람들은 캐나다 연합교회가 성소수자들^{sexual-minorities}의 목사안수를 거부하지 않는 것과, 로마서 1장 26-27절의 말씀이 성소수자들에 대해 분명하게 유죄를 선고하고 있다는 것 등을 지적합니다. 이에 캐나다 연합교회가 '성서의 권위와 해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질문은 캐나다 연합교회에 처음 출석하는 이민자들의 필요와 관련된 목회적인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연합교회가 지난 몇 십 년 동안 성서와 관련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한 교육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는 바는 본서가 캐나다 연합교회의 성소수자들LGBTQ을 옹호하는 정책과 입장들 때문에 새로운 교인들이 보수적인 교인들로부터 받게 되는 부정적이고 상처가 되는 비난들로부터 캐나다 연합교회 교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본서가 캐나다 연합교회에 속한 숙련된 교인들에게 연장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신앙 여정 가운데 성서의 역할을 돌아보고, 교회와 사회라는 큰 상황 안에서 성서가 지닌 적절함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본 주제는 캐나다 연합교회 안에서 지난 수 십 년간 지속적으로 토론의 주제가 되어왔으며, 이는 캐나다라는 상황 안에서 받

전되어 온 결과들 중 한 부분입니다. 1960년대 초, 캐나다 연합교회의 신앙 교육교재인 『새로운 교과과정』*The New Curriculum*이 출판되었습니다. 본서는 어린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신학적으로 더욱 깊이 있는 캐나다 연합교회 교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교육교재였습니다.² 이 교육교재는 많은 평신도들이 성서에 관하여 무엇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과 목회자들이 역사적 성서비평의 빛 안에서 성서를 어떻게 읽고 이해하는가 하는 것 사이에서 존재하는 편차를 좁히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캐나다 연합교회 안의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교과과정』을 지지하였던 반면, 비판자들은 이 교육교재가 역사적 성서비평 관점으로 성서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성서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캐나다 연합교회의 주요 가르침과 정책에 대한 비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캐나다는 창조적인 혼돈의 시기이자,³ 문화와 종교의 격동기로서 연합교회와 다른 개신교단들이 캐나다 영어권 지역에서 점차 영향력을 잃기 시작한 대변혁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문화의 변화와 혼돈의 시기는 많은 기독교적인 신념들과 캐나다 연합교회가 이제껏 믿어왔던 전통들을 재고하고 재평가하도록 요구했으며 심지어 구태의연한 입장으로 때로는 비판을 받는 주제

2) Phyllis Airhart, *A Church With the Soul of a Nation* (Montreal/Kingston: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2014), 170.

3) Douglas John Hall, "Christianity and Canadian Contexts: Then and Now," *Intersecting Voices*, edited by Don Schweitzer and Derek Simon (Ottawa: Novalis, 2004), 19.

가 되었습니다.⁴ 성서의 권위와 몇 가지 본질적인 증언의 타당성이 날카롭게 도전을 받았고, 혹은 자연과학과 같은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라는 다른 형태의 관점에 비추어 거부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계속되는 질문들과 토론들의 다음 행보는 Gretta Vosper 목사가 참여하는 “진보 기독교” Progressive Christianity 운동 가운데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⁵

1960년대, 이어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급부상한 새로운 현실들과 사상들에 대한 대답으로써, 캐나다 연합교회는 성서, 신학적 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개념들과 전승되어 온 이해들, 특히 성 gender 역할, 성sexuality에 대한 관심 그리고 원주민들과 관련된 선교 목표들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서를 바탕으로 한 그 이전의 많은 가르침들이 뒤집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캐나다 연합교회 안에서 성서의 권위 및 해석과 관련한 격렬한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주제가 캐나다 연합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토론되어 오는 동안, 성소수자들sexual minorities의 목사 안수 자격에 대한 1980년대 연합교회 안에서의 논쟁은 교회에 새로운 입장을 천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교회는 자신의 소명을 분별하고자 노력하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하기에, 그 과정에서 빈번

4) John Webster Grant, *The Church in the Canadian Era* (Updated and expanded edition) (Burlington, ON: Welch Publishing Company Inc., 1972, 1988), 196.

5) The website for the Canadian Centre for Progressive Christianity can be accessed at <http://progressivechristianity.ca/prc/>.

하게 과거에 했던 논쟁들을 다시 논쟁하여야 했으며, 심지어 수십 년, 수세기 전에 제기된 논쟁도 현 시대의 문제로 들어올려서 다시금 재토론이 되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시대를 살아가는 각 세대의 기독교인들이 스스로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고민하고, 요구하고,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서의 권위와 해석'에 관한 질문은 이러한 요청들 중 하나입니다.

지난 1985년, 총회 실행위원회(the General Council Executive)는 신학과 신앙 위원회(The Committee on Theology and Faith)에 이 주제에 대해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1988년 총회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이 보고서는 지금까지 캐나다 연합교회에서 행해졌던 것 중 가장 광범위한 연구 및 협의의 과정들을 거쳐 통과되었습니다. 그 최종결과 보고서가 바로 1992년 총회에 제출된 『성서의 권위와 해석』(*The Authority and Interpretation of Scripture*)입니다.⁶ 1992년 총회는 이 보고서를 받았고 그 핵심 기준과 관점을 승인하였습니다. 그 기준과 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적 자기계시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가를 인식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 2) 진정한 권위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모든 공동체

6) *The Authority and Interpretation of Scripture: A Statement of The United Church of Canada* (Toronto: The United Church Publishing House, 1992).

를 강화시킨다.

3)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서의 기록보다 더 크다.⁷⁾

캐나다 연합교회 총회는 이 세 가지 관점들에 더하여 캐나다 연합교회의 교인들이 성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여섯 가지 추가 기준을 승인하였습니다. 그 주요 골자는: “성서와 씨름하는 것은 기독교 공동체에게 있어서 선택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⁸⁾ 따라서 캐나다 연합교회는 특정 성서본문이 무엇을 말 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약간의 가능성을 허용하는 한편, 교인들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여전히 성서가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본서에서 캐나다 연합교회에 있어서 성서가 가진 권위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교단으로서 캐나다 연합교회가 성서를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서가 교회 안에서 갖는 권위의 두 가지 다른 면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사회학자 Max Weber가 구분한 카리스마적인 권위와 전통적인 권위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설명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서가 어떻게 해석되는가에 관한 본질적인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앙의 규칙rule of faith”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1장에서는 앞서 언급

7) Ibid., iv.

8) Ibid., 37.

한 3가지 핵심 관점과 『성서의 권위와 해석』이라는 교단 문서를 통해, 캐나다 연합교회가 성서의 권위와 해석에 대해 어떻게 이해했는가에 대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성서가 캐나다 연합교회 역사의 다른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어 왔는가에 대한 세 가지 사례의 연구들을 검토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캐나다 연합교회 2010년 총회 문서인 『완전한 포용을 향한 움직임』*Moving Toward Full Inclusion*에서는 어떻게 성서를 이해하고 있는지 연구할 것입니다.⁹

카리스마적 권위와 법적(Institutional) 권위

독일의 사회학자인 Max Weber는 권위를 카리스마적, 전통적, 그리고 법적 권위의 개념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캐나다 연합교회 안에서, 그리고 『연합교회 헌법』*United Church Manual*과 『연합의 원리』 안에서, 성서는 법적 권위를 가지지 않습니다. 캐나다 연합교회와 연합교회의 부속기관들 안에서 성서의 권위는 카리스마적이고 전통적입니다. 캐나다 연합교회에서의 성서의 권위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현재 캐나다 안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자발적인 단체임을 언급하며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소속되고 싶은 교회를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교회의 가르침의 권위를 받아들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교회가 교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방

9) *Moving Toward Full Inclusion: Sexual Orientation in The United Church of Canada* (Toronto: The United Church of Canada, 2010).

식으로 말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혹은 그것이 그 자신의 정체성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서로부터의 그 권위를 받아들입니다. 캐나다 연합교회에서의 성서의 권위는 바로 여기, 교인들의 자발적 경험 안에 그리고 자발적 신앙 공동체로서의 캐나다 연합교회의 정체성 안에 있습니다. 성서에 대한 사람들의 경험은 주로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거나 혹은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러한 경험은 카리스마적 권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연합교회의 정체성 안에서의 성서의 자리는 전통적 권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카리스마적 권위와 전통적 권위는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서로 일정한 긴장관계 속에 있습니다. 카리스마적 권위는 둘 중에서 좀 더 근본적입니다. 카리스마적 지도자는 자신의 지도력 권위적인 가르침을 스스로 수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추종 받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주로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일어납니다. 먼저, 카리스마적 지도자는 한 사람 혹은 공동체 가운데 소외된 사람들 간의 관계를 조화롭게 합니다.¹⁰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 내재해 있는 고통이나 두려움에 말을 건넵니다.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이렇게 함으로써, 그의 설교와 가르침은 그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의 경험에 의해 더욱 분명하게 전달됩니다. 잠재된 고난의 한 가운데에 있는 개인이나 공동체를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능력은 고통 분담이라는 그 공동체 자체의 경험에 기초한 권

10) Gregory Baum, *Religion and Alienation* (New York: Paulist Press, 1975), 170.

위를 그들에게 부여합니다. 또한 카리스마적 지도자는 그 밖의 다른 일들도 수행합니다. 그들은 공동체가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비전을 가지고, 상징적이나 새 세상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카리스마적 지도자는 사람들이 그 지도자를 따르도록 하며,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경험하도록 이끍니다.

카리스마적 권위의 가르침은 악마적일 수도 있고, 구원적일 수도 있고, 혹은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한 예로, Adolf Hitler는 카리스마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독일에 질서와 희망을 회복시켜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독일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카리스마적 권위는 사람들을 조종할 수도 있고, 그들을 선동해서 죽음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 권위는 이상적인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거나 그런 세상에 대한 가능성을 일깨워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이 미력하나마 둘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서의 권위는 기본적으로 카리스마적입니다. 성서는 일종의 권위로서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서를 통해 사람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혹은 구원의 하나님의 임재를 증언하게 하는 경험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서는 기본적으로 권위적입니다. 왜냐하면 성서는 우리의 영성을 충만하게 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서의 다양한 이

11) Ibid.

야기들과 가르침들은 우리의 상황을 조명해주고 성서에 기록된 구원의 근원 구원이 어디서 오는지를 제시해 줍니다. 성서는 교회 안에서 권위적으로 인식됩니다. 왜냐하면 성서는 한결같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경험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고, 자제시키며, 안내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합니다.

Weber는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자신의 추종자들을 모으는 것으로 인해, 그 지도자들 주변에 형성된 어떤 행위는 곧 제도화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규정들과 회원의 자격, 보편적인 관행과 지도력의 위계질서를 발전시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그 지도력은 오래가지 못하고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형성되었을 때, 성서는 그 교회 안에서 전통적인 권위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교회에 등록된 여러 사람들의 삶의 경험 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성서가 형성된 초기에, 성서는 카리스마적이고 공개적인 권위를 체험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서가 감동을 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기에 읽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렇게 읽을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성서의 권위는 카리스마적임과 동시에 전통적 권위도 갖게 됩니다.

성서는 교회 안에서 읽혀져 왔으며, 일종의 권위로서 주목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한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기독교인들이 성서를 읽을 때마다 혹은 교회에서 성서를 봉독할 때마다 매 순간 성서가 카리스마적 권위를 가진

것으로 경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동일한 권위로써 성서의 모든 본문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성서를 읽고 있고, 심지어 그들에게 감동이 되지 않을 때에도 교회에서 성서가 봉독되는 것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 카리스마적 감동을 주지 않더라도 성서는 또한 전통적 권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거룩한 경전으로서의 성서의 권위는 기독교의 정체성의 한 부분입니다.

성서가 교회 안에서 하나의 경전으로서의 전통적 권위를 가질 때, 성서는 단순한 문학작품이 아닙니다. 이 때 성서의 범주는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확장됩니다. 성서는 그 사회 속에서 하나의 상징과 문화적인 신망이 되어왔습니다. 성서가 하나의 경전이라는 것은, 성서가 “복잡다난한 거대한 역사적 이슈들과 실천들” 안에 속해서 이런 이슈들을 결정하는데 관여해 왔다는 것입니다.¹² 성서는 여러 결혼예식과 장례예식 가운데 읽혀졌습니다. 또한 경건의 시간에도 읽혀졌고, 각 개인이나 그룹들에 의해 연구되었습니다. 성서는 과거의 산물이자 현재의 실체이며, 서구사회 및 여러 다른 문화권들에서, 정치인들의 연설 가운데, 모든 대화 가운데, 문학 작품들 가운데, 그리고 영화들과 드라마에서 거듭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덕적 권위이며,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근원이었으며,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12) David Jobling, “The Bible and Critical Theology: Best Friend or Unstable Ally?” *Intersecting Voices: Critical Theologies in a Land of Diversity*, edited by Don Schweitzer and Derek Simon (Ottawa: Novalis, 2004), 155.

다양한 가치를 지닌 상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서는 선한 일을 위해서도 혹은 악한 일을 위해서도 이용될 수 있는 양쪽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성서의 권위에 대한 카리스마적이고 전통적인 면은 상호 보완적이면서 서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기독교인들이 카리스마적인 권위의 범주 안에서 성서에 대한 경험을 지속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그들은 성서 읽기를 그만두게 될 것이며, 경전으로서 성서를 인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성서 안에 포함된 다양한 말씀들은 항상 우리를 감동시키기 위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거나 혹은 늘 우리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말합니다. 성서는 결코 다 소진될 수 없는 깊고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은 침체의 시간들과 기쁨과 성장의 시간들 상호 간에 리듬을 가집니다. 물론 성서를 읽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동이 되지 않는 때가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가 전통적인 혹은 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한, 기독교인들은 계속해서 성서를 읽어야 하고, 즉시 응답하지 않더라도 성서의 권위 있는 말씀과 함께 늘 씨름해야 합니다. 이 전통적인 권위의 결과, 성서는 카리스마적인 권위로써 다시 경험될 때까지 계속해서 읽혀집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간에게 삶의 의미 있는 비전을 드러내 주는 성서의 능력이란 결코 끝이 없습니다. 성서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서가 생명력 없는 편지로써 여겨지는 시간이

존재하기도 하고, 위험한 무기처럼 기능하는 시간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만일 기독교인 개개인과 공동체가 성서 읽기를 여전히 계속한다면, 성서는 그들에게 깨달음과 능력을 주는 것을 통하여 다시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서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방법 역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날 영적 계시로서의 성서의 가르침에 직접적으로 상충되는 가운데에서 성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서의 카리스마적이고 전통적인 권위는 서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니와 또한 여전히 상호보완관계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신앙의 규칙(rule of faith)

성서는 위대한 책입니다. 성서는 종종 같은 사건에 대해 두 번 혹은 더 많이 언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언급이 늘 서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에는 다른 창조이야기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카리스마적 권위는 신비한 힘이나 구원의 능력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것이 성서의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성서는 파괴적인 방향으로도 읽을 수 있고, 성서의 내용을 근거로 죄된 행위sinful behavior를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성서본문이 한 공동체를 자유롭게 하는데 사용되는데 사용하면, 다른 공동체들을 억압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¹³ 출애굽 이야기는 히브리 노예의 정체성을 가진

13) HyeRan Kim-Cragg, *Story and Song: A Postcolonial Interplay between Christian Edu-*

억압 받는 공동체를 위해서는 자유의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그 히브리노예들에 의해 땅을 점령당한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가 해방은 커녕 불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이야기에서 원주민 공동체는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¹⁴ 따라서 이 위대한 책이 권위적 말씀이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담은 주장들 사이에서 교회가 어떻게 판결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성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 교회는 어떤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와 같이 정경화 된 성서의 형식이 교회의 거룩한 경전으로써 인정받기 시작했을 때, “신앙의 규칙”에 대한 개념은 바로 이런 종류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성서가 형성된 주후 1세기에,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자 그 공동체는 성서의 다양한 구절들을 어떻게 읽어야만 하는가의 문제를 넘어서서 기독교를 반박하는 다른 종교적인 그룹들과 함께 경쟁하는 그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성서의 특정 본문들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교회 안에 파벌이 형성되었습니다. 바로 아리안 논쟁이 후자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논쟁의 변증의 일환으로 주후 2세기에, “신앙의 규칙”에 대한

cation and Worship (New York: Peter Lang, 2012), 49.

14) Laura E. Donaldson, *Decolonizing Feminisms: Race, Gender, and Empire Building*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2), 62.

개념이 서서히 생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성서의 적절한 해석을 위해 어떤 범주와 지침을 설정한 교회 안에서 형성된 합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맨 처음 “신앙의 규칙”이란 개념이 소개되었을 때 매우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성서로부터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일반적으로 공유해 온 다른 자료들, 이들 문서들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 창조세계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리킵니다. 또한 이것은 성서의 권위를 인정했던 초대교회에서 광범위하게 공유된 내용들과 전통들을 가리킵니다.¹⁵ 사도신경과 같은 경우가 “신앙의 규칙”의 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좁은 의미에서, “신앙의 규칙은 성서로부터 유래된 사도적 가르침의 요약”으로 이해되어왔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규칙”은 결코 일방적으로 성서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규칙”은 성서로부터 유래된 것이며, 또한 성서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의 수단인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관점에서, Augustine은 “신앙의 규칙”을 성서의 적절한 해석을 위해 설정된 일련의 조건들로 보았습니다. 그에 의하면:

“성서의 모호성은 하나의 성서본문이 결코 하나의 의미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그러나 무슨 해석이든, 그 해석은 신앙의

15) Prosper Grech, “The Regula Fidei as a hermeneutical principle in patristic exegesi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Bible*, edited by Jozse Krasovec (Slovenia: Slovenian Academy of Sciences and Arts, 1998), 597.

규칙에 따라야 한다.”¹⁶

1968년 캐나다 연합교회의 23차 총회의 문서인 『총회 보고서』Record of Proceedings에 보면, 신조들의 사용에 대한 토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조들은 종종 ‘신앙의 규칙’과 같은 종류의 담론들을 통해 그 기능을 담당한다.”¹⁷

“신앙의 규칙”에 대한 성서의 관계성은 성서의 전통적 권위에 대한 카리스마적인 권위의 관계성과 유사합니다. 카리스마적인 권위가 전통적인 권위의 근원이 되고 계속해서 전통적인 권위를 새롭게 하는 것과 같이, 성서는 “신앙의 규칙”의 근원이 되고 계속해서 “신앙의 규칙”을 새롭게 합니다. 개신교의 개혁이 바로 이러한 예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 유럽의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가톨릭 교회로부터의 파면을 피하기 위해 일 년에 한번 열리는 성찬예식에 참여하였습니다. Martin Luther는 애통해하기를, “교황의 권위 하에서 ... 우리는 성례전에 참석했다 ... 단지 강요 때문에, 인간의 명령이 두렵기 때문에, 성찬예식에 대한 소망이나 사모함이 없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잊고

16) Augustine of Hippo, *Expositions of the Psalms 73-98: The Works of Saint Augustine*, edited by John Rotelle, III/18 (Hyde Park, NY: New City Press, 2002), 50.

17) “교회의 생활 안에서 신조의 주요 용도는 어떤 교회의 편리한 요약으로써 사용되거나, 그것의 일부가 성서의 주요 메시지로 이해하는 것이 되어서 성서 읽기와 성서 연구를 하는데 안내도구와 같은 역할을 한다. 비유로 설명을 하면, 성서라는 나무 전체를 둘러보는 동안 이 신앙의 규칙이라는 안내도구를 통해 나무의 모양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UCC, *Proceedings*, GC23, 1968, 314.

서.”¹⁸ Luther의 새로운 성서읽기에 의해 부분적으로나마 변화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 “신앙의 규칙”의 이전의 조항들이 그리고 또 다른 변화의 시도들이 더 폭 넓은 이해의 범주 안에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성서의 전통적인 권위가 성서를 어떻게 읽고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처럼, “신앙의 규칙”은 또한 어떻게 성서를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성서로부터 도출하였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지침은 특정한 본문에 대해 사실상 성서가 침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Howard Thurman은 미국의 농장에서 노예로 일했던 그의 할머니에게 성서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배운 적이 있었는데, 그녀는 자신의 손자에게 노예들 자신이 백인주인들에게 복종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성서구절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 결코 동의하지 않았다고 가르쳤습니다.¹⁹ 그 할머니의 가르침은 이런 구절들이 성서에서 반드시 삭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흑인교회에서는 해당 구절들이 “신앙의 규칙”에 따른 복음의 권위가 있고 합당한 표현이라고 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노예 농장 주변에 사는 몇몇 백인 설교자들에게는 그런 성서구절 해석이 정당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

18) Martin Luther, “Greater Catechism: Of the Sacrament of the Altar,” in *Luther's Primary Works*, ed. Henry Wace and C. A. Buchheim (London: Hodder & Stoughton, 1896), 151.

19) Howard Thurman, *Deep River* (New York: Harper & Brothers, 1945/1955), 17. 몇몇의 백인 주인들이 그들의 노예들을 위한 복음 전파와 그 노예들 자체 내 기독교 공동체 사이에서의 “신앙의 규칙”의 비교, see Kelly Brown Douglas, *The Black Christ* (Maryknoll, NY: Orbis Books, 1994), 12-28.

지만, 많은 흑인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들에게 왜 정당하지 않다고 느끼는가를 질문한다면, 흑인 기독교인들이 성서에서 들었던 성서 전체에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위엄과 자유에 대한 복음의 말씀들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흑인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자유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성서에서 찾았고 이것이 그들에게 복음이기에 그들의 신앙이 뜨거워졌을 때, 성서의 카리스마적 권위는 자신의 주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백인 설교자들이 강조했던 “신앙의 규칙”을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다른 규칙을 발전시켰던 것입니다.

때때로 “신앙의 규칙”이 무엇인지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교회로부터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리안 논쟁이 이러한 논의들 중 한 예였습니다. 이러한 논의에서, 무엇을 성서의 중심 메시지 성서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로 취해야 하는지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분열되었습니다. 결국 무엇이 “신앙의 규칙”인지를 정립하기 위하여, 주후 325년 니케아 공의회 Council of Nicaea가 소집되었습니다. 비록 공의회의 결정을 교회가 수용하고 이해하는데 수 십 년이 걸렸고 흑은 몇몇 교회들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도, 니케아 공의회는 하나의 “신앙의 규칙”으로써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특별한 이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논의 가운데, 양측 모두의 입장을 공정하게 판단함에 있어서 성서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와 같은 논쟁에서 서로 다른 성서의 본문들이 서로에 대항하여 양측에 의해 인용될 때

신앙의 규칙을 바르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단순히 성서를 인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신학적인 논거들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신앙의 규칙”이란 교회의 성서이해를 요약한 것이지만, 이러한 이해는 해석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이해는 언제나 보여지는 관점이나 시대의 지평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현대 서구 철학을 하는 원리가 되었습니다.²⁰ 즉, 우리 인간의 이해는 보이는 지평에 따라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평은 어떤 것을 볼 수 있게도 하고, 또 다른 것을 보지 못하도록 제한시키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당시 시대에 속한 자체의 지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캐나다 연합교회의 교인들은 또 다른 지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연합교회의 교인으로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이 두 지평이 서로 만나게 됩니다. 오늘날 누구든지 성서를 읽으면 그들이 무엇을 읽든지, 그 자신의 지평이라는 관점을 통해서 성서를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호작용에 기인한 이해는 해석하는 이와 해석되는 성서본문 “항상 이 두 지평의 융합”입니다.²¹ 이러한 지평의 융합이 일어날 때, 해석자의 지평은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무엇에 관심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에 따라 부득불 그 의미가 어느 정도 변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타내는 세상과

20) Hans-George Gadamer, *Truth and Method* 2nd revised edition (New York: Continuum, 1975/1989), 302.

21) *Ibid.*, 306.

각 지평의 사람들은 그 융합을 통해 드러나는 해석자의 이해에 반영됩니다. 오직 성서본문의 지평에 국한해서 성서를 해석하는 것은 실제로 단지 그 본문의 반복다람쥐 쳇바퀴 돌 듯에 머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오늘 그 본문을 읽는 사람의 세상, 그 지평에서 그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조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성서본문을 이해한다는 것이 단지 그 본문을 읽는 사람의 세계에 국한한다면, 성서 본문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거부이고, 그 본문을 들을 책임에 대한 태만입니다. 만일 누군가 현재 시점에서의 성서본문의 의미를 이해하려 한다면, 그 사람의 해석은 창조적이고 동시에 충실해야 합니다. 또한 그 해석은 성서본문에 충실해야 하고, 성서본문을 이해하는 그 자신의 지평 안에 녹아 들어 가는 일에 창조적이어야 합니다. 철학적 용어로 말하자면, 성서기자들이 증언한 본래적 의미에 대한 교회의 이해, 즉 “신앙의 규칙”은 항상 교회생활의 맥락 속에 있는 성서 증언자들의 한계의 혼합을 지적합니다. 성서본문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한 교회의 이해, 즉 “신앙의 규칙”은 항상 교회가 존재하는 상황context 속에서 성서의 증언에 대한 지평들의 융합을 드러냅니다.

성서가 읽혀지는 상황은 다양하고 가변적일 수 있습니다. 21세기 오늘 사람들은 노예제도 시대를 거친 흑인 미국인들이 경험한 것과 동일한 상황 안에서 성서를 읽지 않습니다. 성서가 읽혀지는 상황이 변화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해의 지평 역시 해석의 작업 속에서 성서의 증언들과 섞이고 융합하게 됩니다. 변화된 상

황 혹은 사회적 상황 안에서 성서를 읽는 사람의 위치 변화는 그가 읽고 있는 성서 속에 내재하는 다른 가정들과 질문들 그리고 유의점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서가 읽혀지는 상황의 변화들과 변동들의 결과에 의해, “신앙의 규칙”은 다양해지거나 혹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규칙”이 “기독교인의 신앙이야기”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를 유지하게 하는 신앙에 대한 해석적인 고백²²으로서 이해되었을 때, Augustine 시대에 영향을 미쳤던 “신앙의 규칙”은 20세기 교회의 “신앙의 규칙”과는 다를 것입니다. 두 시대에 존재하는 “신앙의 규칙”들에게 공통되는 많은 유사점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또한 중요한 차이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앙의 규칙”이란 용어의 의미 그 자체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진행되는 동안, Martin Luther와 같은 개혁 주의자들은 기존에 전승되어 온 교회의 많은 가르침들에 도전하였을 때, 그들은 교회 신조의 근간이 되어야만 하는 “신앙의 규칙”으로서 성서 그 자체에 주목하였습니다. 1646년의 Westminster 성서 요리문답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신앙의 규칙”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Luther는 “신앙의 규칙”을 성서의 모든 말씀들과 동일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감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었으며, 이 “신앙의 규칙”에 따라 성서의 다양한 책들을 판단하고 분류하였습니다. 성서가 “신앙의 규칙”에 의

22) John Thiel, *Senses of Tradi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16.

해 증언 되었을 때, 그 “신앙의 규칙”은 항상 성서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한 교회의 이해를 요약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신앙의 규칙”은 제 3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성서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한 교회의 이해를 요약한 것으로 “신앙의 규칙”을 정의했다면, 그것은 특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종교기관으로써 캐나다 연합교회와 같은 교단적 담론이든지, 혹은 일반적인 교회들에게 있어서 사도들과 함께 시작된 이후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존재해 왔던 거룩한 성도의 교제에 대한 담론이든지, “신앙의 규칙”의 의미는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만약 누군가 후자의 의미로 교회에 언급했다면, 그때의 “신앙의 규칙”은 교회가 특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요약이라기보다, 오히려 교회가 각 시대를 통해 성서본문의 핵심을 무엇으로 보았는가에 대한 요약입니다. 앞서 언급한 “신앙의 규칙”에 대한 제 1의 의미가 어느 한 시대와 공간으로부터 다른 시대와 공간에 이르기까지 바뀔 수 있는 반면, 제 3의 의미로써의 “신앙의 규칙”은 그 규범의 내용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서 “신앙의 규칙”은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 부분을 제 2장 연합교회 『우리 신조』의 발전에 대한 토론에서 중요하게 다룰 것입니다.

여기서 제 1의 의미와 제 3의 의미는 무엇이 됩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존재해 온 보편적 교회의 거룩한 성도의 교제는 곧

“신앙의 규칙”은 본질적으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런 보편적인 규칙이 형성되었는지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같은 이유로, “신앙의 규칙”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시도 역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독교 신조들과 그 선언 문들에게서 드러나는 핵심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삼위일체성 혹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은 구원 사역의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 3의 의미로서의 “신앙의 규칙”은 보편적으로 모든 시대를 통해 지지 받아온 기독교의 신앙 문헌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은 이러한 믿음을 증명하는 세부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말을 아킥니다. 그러나 제 1의 의미, 즉 성서의 핵심 의미인 교회 안에서 합의 형성된 이해로서의 “신앙의 규칙”은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이 벌어지고 있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들과의 관계에서 적절한지를 가늠하는데 그 핵심적 역할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회적 이슈들과의 적절성이란 현재 처한 상황들 및 주변 정황들과 함께하는 유기적인 관계성의 문제이기 때문에,²³ 제 1의 의미로서 “신앙의 규칙”은 항상 상황이라는 현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앞서 설명한 성서의 본질적 그리고 보편적 의미에 대한 교회 안에서 합의 형성된 이해로서의 “신앙의 규칙”이라는 제1의 의미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성서와

23) Jürgen Moltmann, *The Crucified God* (London: SCM Press, 1974), 11.

“신앙의 규칙”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반면, 또한 그 둘은 서로 다릅니다. “신앙의 규칙”은 성서에 기초한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요약입니다. 이러한 확장된 의미 안에는 응당 다양한 실천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요약으로써, “신앙의 규칙”은 성서가 어떻게 해석되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지침과 그 범주를 설정합니다. 이것의 한 예로써, 캐나다 연합교회의 1992년 총회는 “성서가 부정의한 관계에 기반해서 체제를 옹호하고 차별 행위들을 정당화하고자 사용될 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²⁴라고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캐나다 연합교회 『우리 신조』 중 한 문장, 즉 “정의를 추구하고 악에 항거하기 위해 부름 받았다”는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성서가 어떻게 해석되어야만 하는지를 위한 지침으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규칙”이 성서가 어떻게 해석되었는지에 대한 안내인 반면, 성서를 구속하는 재갈은 아닙니다. 흑인 미국인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많은 백인 설교자들의 “신앙의 규칙”에 따르면, 성서의 복음은 노예들로 하여금 그들의 주인들에 복종하도록 재갈처럼 구속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흑인 미국인 노예들은 그들 스스로, 즉, 성서를 재갈처럼 만들었던 “신앙의 규칙”에 구속되지 않고 성서를 읽고 해석했었기에, 그들은 매우 다른 “신앙의 규칙”을 발전시켰습니다. 성서가 새로운 경험 혹은 지식의 빛 안에서, 또

24) *The Authority and Interpretation of Scripture* (Toronto: The United Church Publishing House, 1992), 68.

는 다른 사회적 상황으로부터 읽혀질 때, 그것은 전승되어 온 “신앙의 규칙”에 대한 도전일 수 있고 그 “신앙의 규칙”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신학적으로, “신앙의 규칙”은 성령의 역할에 의해 조명될 수 있습니다. 오직 성서는 그 말씀을 읽는 행위가 성령에 의해 영감 받게 될 때, 영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²⁵ 성서에 대한 읽음 그 자체는 다른 영에 의해 영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규칙”은 특정 본문에 대한 해석이나 사용에 있어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을 모든 기독교인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입니다. 반대로, 성서의 권위는 교회 바깥에서도 “신앙의 규칙”에 의해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성령께서 인종차별 혹은 우상숭배의 부정한 영들을 몰아내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새로운 성서 읽기는 전승되어 온 “신앙의 규칙”에 도전적일 수 있고, 이 때문에 그 규칙이 변화됩니다. 1960년대와 이후 수십 년 동안, 성령께서는 캐나다 연합교회의 “신앙의 규칙”을 심오하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적 변화들과 사회 정의를 위한 운동들을 통해 기독교 교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서가 교회 안에서 카리스마적이고 전통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성서적 권위의 두 측면은 서로 보완적이고 또한 서로 긴장관계에 있

25) What follows is drawn from Amy Plantinga Pauw, “The Holy Spirit and Scripture,” in *The Lord and Giver of Life*, edited by David Jense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8), 25–39.

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서가 권위 있는 반면, 성서의 내용들의 다양성은 성서본문의 해석을 안내하기 위한 “신앙의 규칙 rule of faith”이 필연적으로 발전되어 왔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서는 반대로 “신앙의 규칙”이 안내하는 관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캐나다 연합교회가 ‘성서의 권위’와 1908년의 『연합의 원리』, 1940년 『신앙선언』, 1992년 『성서의 권위와 해석』, 그리고 2006년 『믿음의 노래』의 부분에서 성서의 해석을 위해 주어졌던 ‘지침’에 대해 어떻게 설명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1장

캐나다 연합교회의 성서의 권위와 해석: 역사적 개관

서론에서 우리는 카리스마적이고 전통적인 권위에 관한 관념들을 살펴봤고, 교회에서 성서가 갖는 위치를 이해하는 데 이러한 개념들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신앙의 규칙”에 대한 개념과 이것이 성서를 해석하는 것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캐나다 연합교회가 지난 90년에 걸친 역사 속에서 편찬한 네 가지 공식문서를 살펴봄으로써 어떻게 이 문서들이 성서의 권위와 해석에 대해 이해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연합의 원리』 제2항 (Article II of the Basis of Union)

캐나다 연합교회는 공식적으로 1925년 6월 10일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장로교, 감리교, 회중교단의 대표들로 구성된 회의에서 나온 『연합의 원리』는 1908년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연합의 원리』가 담고 있는 교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수적인 신학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연합의 원리』는 그들의 자랑스런

전통과 함께 3개의 교단들의 연합을 촉진하는 의도 하에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만든 사람들은 “변화를 최소화하고 비판을 피하고자,”²⁶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세 개의 전통들 가운데 공통점을 찾고자 했습니다. 『연합의 원리』의 서문은 구약과 신약 성서가 “기독교 믿음과 삶에 있어서 최고의 근거이며 궁극적 규범”²⁷ 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어지는 교리적인 주장들은 “실제로 성서의 가르침에 일치하는 본질에서… 우리의 공통적인 신앙에 관한 간략한 요약”²⁸으로써 말해집니다. 따라서 『연합의 원리』의 교리 부분은 모든 세 개 교단들의 교인들이 동의할 수 있는 “신앙의 규칙”을 제 공하고자 했습니다. 교리 부분 초안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위원회는 이전의 두 가지 장로교 선언문에 많이 의지했습니다.²⁹ 교리 부분에 대한 서두는 교리 부분이 초대 교회의 가르침과 개혁신회의 복음적 교리들과 연합한 장로교와 감리교, 회중교단의 교리적 기준들과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전통에 입각하지만, 캐나다 연합교회에서 성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전통은 단지 암묵적인 기준이라는 점을 제안합니다. 이 점에 대해 연합 과정의 마지막 단계를 지켜본 한 성

26) C. T. McIntire, “Unity Among Many: The Formation of The United Church of Canada, 1899–1930,” *The United Church of Canada: A History*, edited by Don Schweitzer (Waterloo: Wilfrid Laurier University Press, 2012), 16.

27) Thomas Buchanan Kilpatrick, *Our Common Faith*, with “A Brief History of the Church Union Movement in Canada,” by Kenneth H. Cousland (Toronto: The Ryerson Press, 1928), 59.

28) Ibid.

29) Ibid.

공회 출신 비평가는 잘 지적했습니다.³⁰ 『연합의 원리』는 앞선 교회의 전통을 성서 해석을 위한 규범norm이라고 분명하게 명명name preceding하지 않습니다. 물론 본 『연합의 원리』와 후속적으로 작성된 다른 선언들이 광범위한 서구 개신교의 교리적 유산과 연속성 속에 있다는 점을 철저히 인정하지만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합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과거 전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본 『연합의 원리』가 세 교단들의 교리적 유산들을 담고 있고 그 전통의 연속성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도록 지난한 설득의 과정을 거쳐야 했고, 그 과정은 인내와 고통을 수반했습니다. 그 결과, 『연합의 원리』 두 번째 조항에 있는 성서의 이해는 “전통적이면서 비논쟁적”³¹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연합을 지지하고 연합교회로 가입한 교단들은 대략적으로 신앙에 대해 개혁적이며 복음적 이해를 공유했습니다.

30) Herbert Kelly, “The United Church of Canada,” *The Constructive Quarterly* 5 (1917), 437. 킬패트릭은 『연합의 원리』의 서문에서 초대교회의 신조와 연속성상에 있다는 걸 명시했다는 그 의미가 초대교회의 가르침과 전통이 “성서를 2차적 진리로 종속시킬 수 있고, (대신) 초대진리가 해석의 권위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으로 이해되어선 안된다고 켈리에게 답변했다. T.B. Kilpatrick, “A Response to Father Kelly,” *The Constructive Quarterly* 5 (1917), 620.

31) Robert Fennell, “How does the United Church interpret the Bible? Part I: 1904–1940s Tradition and Resistance,” *Touchstone* 26/2 (May 2008), 16.

『연합의 원리』: 교리 제2항 (Basis of Union: Doctrine Article II)

우리는 하나님이 자연 속에서, 역사 속에서 그리고 인간의 마음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있다고 믿는다; 자연과 역사와 인간의 마음이 성령에 의해서 감화됨으로써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당신을 계시하는 것을 기뻐하고 계신다; 그리고 시간의 충만 가운데 때가 되면 하나님은 성부의 영광을 빛내시고 그분의 인격을 가지신 명백한 형상이자, 말씀으로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나타나신다고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쓰여진 구약과 신약의 성서가 오직 믿음과 삶으로 이끄는데 무오한 신앙의 규칙,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계시들의 신실한 기록을 담고 있고,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증언을 담고 있음을 믿는다.

『연합의 원리』 교리 제 2항³²⁾은 더 넓은 계시의 맥락에서 성서를 논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 기술하며 인간이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돕기 위한 계시로서 성서의 필요성을 간주합니다. 제 2항은 하나님이 모든 이들에게 계시되는 세 영역, 즉 자연과 역사와 인간의 마음으로 나눕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영감을 받은 사람의 영역이 한 영역이고, 또한 최종적이며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32) 제 2항은 때때로 2.2.로 언급되기도 한다. 여기서 첫 번째 번호 '2' 가 바로 『연합의 원리』에서 교리에 관한 부분임을 가리킨다.

님이 좀 더 직접적으로 계시되는 영역, 이 두 가지 영역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영역들 사이에는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인 자연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두 영역은 하나님에 대한 “좀 더 분명한, 즉, 특별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종적인 형태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 안에서 “완벽하게 계시”³³ 됩니다. 캐나다 연합교회에서 승인한 『연합의 원리』 교리 부분에 관한 주석을 쓰면서, Thomas Kilpatrick은 계시의 네 번째 영역을 소개합니다. 이는 성령의 영감을 받은 다른 신앙의 전통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속한 계시의 영역인데 그들이 가진 경전계시 역시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³⁴는 점을 인정한다고 썼습니다. 이러한 예로 그는 유대교 안에 존재하는 예언자적 전통과 다른 종교들을 구분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예언자들의 영감은 독특하며 “기독교는 그 유대교의 예언자적 전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영적 계보를 가진다”³⁵로 구별합니다.

제 2항은 이런 계시의 위계질서를 정립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타 종교들간 관계, 타종교가 가지고 있는 계시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지 “신앙의 규칙”을 위한 하나의 틀을 제공합니다. 이 틀은 현 교회의 공식 가르침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33) Ibid., 92.

34) Ibid., 94.

35) Ibid., 95.

이 틀은 모든 인간은 신에 대하여 누구나 인식할 수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 개혁신교회 전통을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모든 계시들을 능가하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이지만, 기독교는 다른 전통과 다른 계시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³⁶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가르침은 다른 전통이 지닌 계시에도 진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그들의 메시지도 존중하는 가르침이고 구원사라는 맥락에서 이들도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본 틀이 지닌 개요는 이슬람교와 같은 타종교와의 관계에 대한 캐나다 연합교회의 현재 이해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³⁷ 제 2항에 따르면 성령은 현재적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믿음이 발견되지 않는, 심지어 부인되는 곳에서도 계시되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겐 성령의 임재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제2항은 폭넓은 관점의 맥락에서 성서에 대한 캐나다 연합교회의 이해를 담고 있습니다. 성서는 기록한 책들 Holy Scriptures로 불리며, 네 가지 방식으로 성서의 이해를 나눕니다. 첫 번째, 성서

36) Michael Bourgeois, "Awash in Theology: Issues in Theology in The United Church of Canada," in Schweitzer, *The United Church of Canada: A History*, 263.

37) *That We May Know Each Other*, The Committee on Inter-Church and Inter-Faith Relations, (np: The United Church of Canada, 2004).

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다”³⁸ 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성서를 다른 문학과 분리시킵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성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감을 부여 받은 것으로 교회를 위한 거룩한 책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서가 어떻게 영감을 받았는지에 관해 어떤 이론근거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니다. 여기서 어떤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20세기 초 미국과 캐나다에서 촉진되고 있었던 문자적 영감설의 관점과는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³⁹ 동시에 하나님에 의해 문자적으로 영감 받은 성경이라는 관점 축자영감설을 지지하지도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니다.⁴⁰ 그런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기에 캐나다 연합교회가 표명한 두 번째 이해 방식은 캐나다 연합교회의 성서에 대한 이해를 근본주의자들의 이해와 분명하게 나눠지게 합니다. “오직 믿음과 삶을 이끈다는 점에서 신앙의 규칙이 무오함을 담고 있는 것”으로써 성서를 바라보기 때문에 성서자체가 무오한 규칙이라는 주장과 성서가 무오한 규칙을 담고 있다는 이해 사이에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캐나다 연합교회는 두 가지를 동일하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니다. 성서가 가지고 있는 무오한 규칙은 해석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성서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이것은 연합교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따르는 거룩한 책으로 성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또 다른 틀을 만듭니다.⁴¹ 성서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38) Kilpatrick, *Our Common Faith*, 92.

39) *Ibid.*, 96-7.

40) Bourgeois, “Awash in Theology,” 262.

41) *Ibid.*

서 교회의 거룩한 책이 되지만, 성서가 문자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믿음과 삶을 이끈다는 점에서 신앙의 무오한 규칙을 담고 있다”라는 말은 성서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틀림 없이 안내한다는 guidance 역할을 의미합니다.

성서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시들에 관한 신실한 기록”⁴²으로써 또한 이해됩니다. 여기서 성서가 기술하고 있는 계시와 성령의 영감으로 다른 종교를 따르는 이들의 전통이 담고 있는 계시, 그리고, 사회자연에 존재하는 계시 사이에는 잠재적인 긴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계시들은 대부분 성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적 현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나온, “문화적이며 종교적인 다원성의 풍부한 사실에 대한 주장”⁴³ 사이에 긴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조항이 쓰여진 그 당시, 캐나다 연합교회는 타종교인들과 타종교들이 존중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 관용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었고, 복음 전도를 옹호했고, 때로는 궁극적으로 이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기를 바랐습니다. 현재 캐나다 연합교회가 더 이상 타종교인들을 개종시키는 전도행위를 공식적으로 추구하지 않지만, 타종교 인정

42) Kilpatrick, *Our Common Faith*, 92.

43) Mark Kline Taylor, “Introduction,” in *Paul Tillich: Theologian of the Boundaries*, edited by Mark Kline Taylor (San Francisco: Collins, 1987), 32.

과 복음전파라는 그 이해 안에 암묵적인 긴장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해 방식은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증언”으로써 그것을 신실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주장을 강화합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부연설명^{notes}이 필요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성서와 하나님 말씀이 되시는 그리스도 사이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성서가 믿음과 삶을 이끄는 무오한 신앙의 규칙을 ‘담고’^{contain} 있고 동시에 성서 자체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듯이, 성서 자체와 성서의 계시 사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성서는 그리스도를 증언하지만 성서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두 번째 증언으로서의 성서에 대한 확신입니다. 즉, 그 이유 증언로 인해 성서를 신뢰 할 수 있습니다.

제 2항은 계시의 서열화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일반 계시이고, 두 번째 다른 종교,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많은 계시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궁극적이며 결정적인 분입니다. 영감을 받고 쓰여진 많은 글들이 있지만,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증언입니다. 제 2항이 성서와 하나님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별하지만, 또한 성서와 다른 문학 작품을 구별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증언”으로서 성서는 교회에서 유일한 지위를 가집니다.

『연합의 원리』를 위한 새로운 교리 항목을 만드는 과정에서 본 내용들이 연합을 반대하는 그룹들과 다른 교단들의 교인들

에 의해서 격렬하게 비판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교리 내용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옹호하면서, Samuel Chown은 성서 자체가 계시하고 있는 내용과 이것이 교회의 신조들 안에서 표현되는 방식이 다르다고 이 둘을 구별했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 안에 틀림 없이 본질적인 진리들이 있고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제 2항의 세 번째 틀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 틀의 내용은 바로 변하지 않는 본질적 진리, 즉, 성서는 하나님에 대한 완성이며 결정적인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캐나다 연합교회는 성서가 하나님의 궁극적 계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점을 꾸준히 전승해왔습니다. 캐나다 연합교회에 있어서 이것은 본질적인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Chown은 인간의 환경이 변함으로써 이러한 본질적인 진리들이 이해되는 방식이 변해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것들의 의미나 표현의 방식은 시대를 반영하기 위해 바뀌어야만 합니다.⁴⁴ Chown은 『연합의 원리』 교리 부분을 만드는 위원들이 “성서에 대한 연구”⁴⁵를 할 때, 자신의 상황 안에서, 그 상황을 고려하여 성서에 대한 교리 부분을 썼다고 부연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Chown은 교회의 “신앙의 규칙” 안에 본질적인 진리가 있는 반면, 교회가 새로운 상황 속에서 성서를 읽는 것처럼 성서가

44) Samuel Dwight Chown, *The Story of Church Union in Canada* (Toronto: The Ryerson Press, 1930), 63-4.

45) *Ibid.*, 69.

담고 있는 진리를 표현하는 방식과 그 의미는 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규칙”이 복음의 본질적인 의미에 관한 교회의 이해를 표현하고 성서에 관한 교회의 해석을 안내하는 동시에 새로운 상황 속에서 후자를 읽는 것이 성서의 본질적인 메시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낳게 되는 때 변할 수 있습니다. 성서는 언제나 카리스마적 권위를 가집니다. 성서가 새로운 상황에서 읽혀질 때, 성서는 무엇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복음의 의미에 관한 새로운 이해를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학적이며 합리적인 내용들이 캐나다 연합교회의 1940년 『신앙선언』 제 9항에 약속되었습니다.

1940년 『신앙선언』 제9항(Article IX of the 1940 Statement of Faith)

캐나다 연합교회가 탄생된 이후 여러 해 동안, 연합교회는 인간과 인간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초월성을 대단히 강조하는 소위 신정통주의라 불리는 신학적 움직임에 의해 도전 받았습니다. 동시에 캐나다 연합교회는 또한 종교적 신앙이 사회와 개인의 안녕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다고 제안하는 세속적 인본주의에 의해, 그리고 전체주의와 제 2차 세계 대전의 위협에 의해 도전 받았습니다. 1936년에 기독교 신앙에 대한 새로운 개요(new summary)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⁴⁶ 이렇게 해서 초본이 마련되었고, 최

46) 이런 변화의 영향을 보려면 Phyllis Airhart, *A Church with the Soul of a Nation* (Mon-

종본이 『신앙선언』으로 1940년 총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연합의 원리』라는 전통적 유산을 전승하면서, 즉 연속성에 대한 선언으로 본 교리부분을 시작했습니다. 1940년 『신앙선언』의 서문은 “교회 신앙의 본질”⁴⁷에 관한 간략한 선언으로서 교리 부분을 기술합니다. 서문은 “각각의 새로운 세대의 기독교인들이 그들 시대의 사상에 관련한 그리고 그들 시대가 필요로 하는 강조점들을 가지고 신앙의 본질을 새롭게 선언하도록 요청된다”⁴⁸는 점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선언』이 마련된 이유이자 의도입니다. 1940년 『신앙선언』에서 강조된 내용이 1968년의 『우리 신조』와 2006년의 『믿음의 노래』, 이들의 캐나다 연합교회 신앙을 규정하는 후속 교리이자 종속교리연합의 원리가 핵심 교리이고의 내용으로 이어지도록 확립됐습니다. 이런 신앙에 관한 선언들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기독교 유산과 전통을 유지할 뿐 아니라, 또한 그것을 현재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면서 창조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1940년 『신앙선언』의 성서에 대한 이해는 제 9항 성서 *The Holy Scriptures*에서 나옵니다. 『연합의 원리』에서 계시와 성서에 대한 교회의 이해를 언급한 항목은 하나님을 기술한 항목에 뒤이어 바로 나옵니다. 『신앙선언』에서 이것은 교회에 관한 항목에 뒤이어

trear & Kingston: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2014), 110–20.

47) The United Church of Canada, *A Statement of Faith* (1940), 1.

48) *Ibid.*

나옵니다. 『연합의 원리』 제 2 항과 달리, 제 9항은 계시의 근원으로써 성서에 거의 전적으로 초점을 맞춥니다.⁴⁹ 그 결과, 제 9항이 성서에 관한 제 2항에 있는 많은 표현들을 동의하고 반복하지만, 다른 분위기를 가집니다. 여기서 계시는 자연과 다른 종교의 영역을 포함하지 않고 성서와 교회의 목회를 통해서만 거의 유일하게 *exclusively* 일어난다고 여겨집니다.

제9장 성서(IX. The Holy Scriptures)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이 인간과 감화 감동되는 순간들이 기록되고 신약과 구약 성서 안에서 해석된다는 것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이 서서히 한번에 다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에 반하여, 그런 말씀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를 선언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믿는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며 구원자이심을 알렸다; 진리와 은혜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다. 이러한 기록들이 교회에 의해서 모아졌으며 보존됐다.

우리는 모든 성서의 주제가 하나님의 구속적 사역과 섭리라는 일관된

49) 성서가 계시의 정점이라는 관점은 칼 바르트가 펼친 초기 주장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Airhart, *A Church with the Soul of a Nation*, 121.

맥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그 주제의 통일을 이룬다고 믿는다.

우리는 성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정신과 마음의 완벽한 충성을 요구하신다고 믿는다; 성서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권위에 대한 충분한 설득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믿는다; 성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성령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 그리스도의 가르침, 사역들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양육되고 은혜 안에서 성장하도록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서가 하나님 말씀을 담은 진정한 증언이며 기독교 신앙과 행위를 바르게 이끄는 확실한 안내서라고 인정한다.

제 9항은 성서가 하나님의 뜻과 의지 그리고 완전하고 정점에 이른 계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근원을 충분히 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신약 성서와 함께 구약성서의 중요성을 확증하고 전체 성서의 일관된 주제가 “하나님의 구속적 목적과 섭리”라는 확신적 주장affirm을 합니다. 따라서, 1940년 『신앙선언』은 하나님이 사랑을 행하신다는 강조점과 함께 하나님의 초월성 새로운 강조점 이 둘 다 쌍방으로 주장합니다. 제 9항의 세 번째 단락은 성서의 통일성이 하나님의 구속적 목적의 주제 안에 있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모든 성서를 관통하는 통합적인 주제가 있다는 생

각은 최근의 서구 성서 연구와 신학에서는 대중적이지 않는 생각입니다. 오늘날 성서 권위에 대한 토론들은 성서 안에서 전통들의 다양성과 이것들이 서로 어떻게 다르게 긴장관계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더 관심하는 듯 합니다.⁵⁰

성서의 통일성에 대한 제 9항의 선언의 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 9항은 『연합의 원리』 제 2항과 거의 동일하게 성서를 기술합니다.⁵¹ 그러나 일반게시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점에서 제 2항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제 9항은 일반게시에 대해서 아무 것도 언급하지 않고, 대신 구원을 위한 성서의 능력을 말합니다. 캐나다 연합교회가 승인한 1940년 『신앙선언』에 대한 해설에서, John Dow는 구원의 의미에 관한 일반 계시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정말 유례가 없는 무엇인가를 하셨다면, 구원에 이르는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없고 오직 하나만 있을 수 있다”⁵²고 말합니다. Dow의 입장은 이 점에 있어서 『연합의 원리』 제 2항을 뒤엎습니다. Dow가 그 당시 연합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나온 신앙선언들 안에서 캐나다 연합교회는 제 9항에 대한 그의 해석을 따르지 않고

50) Michael Welker, “Sola Scriptura? The Authority of the Bible in Pluralistic Environments,” in *A God So Near*, edited by Brent Strawn and Nancy Bowen (Winona Lake, IN: Eisenbrauns, 2003), 375.

51) Bourgeois, “Awash in Theology,” 266.

52) John Dow, *This Is Our Faith* (Canada: The Board of Evangelism and Social Service, The United Church of Canada, 1943), 171. 다루는 초기 칼 바르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후기 칼 바르트의 사상을 보면,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다른 빛 (계시)이 있을 수 있다고 자신의 입장을 바꾼다.

『연합의 원리』 제 2항에서 약속된 입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제 9항은 성서의 형성과 해석에 관하여서 성령의 역할에 대한 제 2항을 확장시킵니다. 제 9항에 따르면, 성서의 증언이 진리임을 사람들이 믿도록 설득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성서가 거룩한 책으로써 경험되도록 합니다. 『연합의 원리』 제 2항은 성서를 쓰고 그 내용을 종합한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시는 성령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9항은 성서를 읽는 데 있어서 다른 측면도 덧붙입니다. 즉, 본문 뒤에 있는 상황을 통해 영감을 주는 성령의 역할에 관해서 말합니다. 또한 제 9항은, 이 본문 앞, 즉, 본문을 보고 읽어내는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런 접근은 “성서를 읽는 독자와 듣는 청중”⁵³에 주목하는 독자반응reader-response 비평주의 방법과 유사합니다. 성령이 우리, 독자 또는 청중에게 성서 본문들이 증언하는 진리를 깨닫게 할 때까지 성서는 단지 문학 작품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영혼과 마음을 열 때, 성서 안에서 그리고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호흡하시는 것으로,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에 의해 몇 번이고 성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⁵⁴ 이 됩니다. 성령의 계시는 성서를 저술하는데도 필요이고, 그 저술된 글을 읽는 데 있어서도 꼭 필요한 역할입니다.

53) Barbara E. Reid, “Editor’s Introduction to Wisdom Commentary, ‘She is a Breath of the Power of God’ (Wis 7:25),” in Mary Ann Beavis and HyeRan Kim-Cragg, *Hebrews: Wisdom Commentary Volume 54*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2015), xxviii.

54) Harold Wells, *The Christic Center* (Maryknoll, NY: Orbis Books, 2004), 221.

제 9항은 성령이 기독교인들을 성서의 진리에 귀 기울이게 하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성서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성령은 교회에 말씀하기 위해 성서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성서의 카리스마적 권위가 다시 드러납니다. 성서가 죄와 구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드러내는 동안, 성령은 “모든 교회를 자극하고 바꾸기”⁵⁵ 위해 성서를 사용합니다. 이런 방식에서 성령은 성서의 특정한 해석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성서에 대한 모든 해석들이 임시적provisionally이라는 점을 깨닫게 합니다.”⁵⁶ 1940년의 『신앙선언』은 각각의 새로운 기독교인 세대가 그 시대의 상황 때문에 새롭게 복음의 본질을 선언하도록 요청 받는다는 점을 그 『신앙선언』의 서문에서 언급하면서 모든 해석들의 임시성을 인지 시킵니다.

이 점을 인지acknowledge한다고 해서 성서에 관한 모든 해석들을 상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완전한 헌신을 요청하신다”⁵⁷ 는 성서 본문을 근거로 상대주의relativism와 제 9항의 주장은 양립incompatible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성서에 대한 다른 해석들이 모두 동등하게 유효하다면, 어느 누구도 제 9항이 지적하는 헌신을 요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 9항은 대신

55) Amy Plantinga Pauw, “The Holy Spirit and Scripture,” in *The Lord and Giver of Life*, edited by David Jense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8), 34.

56) Ibid.

57) *A Statement of Faith* (1940), 4.

종교적 진리(religious truth)의 관계적 관점을 주장합니다.⁵⁸ 이것은 종교 개혁 전통과 맥을 같이 하면서 교회는 개혁되고 언제나 개혁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언제나 현시대 안에서 성서의 증언과 성령의 증언에 반하는 복음에 대한 이해를 기꺼이 검증하라는 독려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 당신 스스로 특별한 시간과 장소 안에서 계시하기에, 이를 통해서 교회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듣도록 성서를 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충만함 속에서 오시는 그분의 다스림을 향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성서에 대한 교회의 해석은 언제나 대단히 임시적입니다. 성서에 대한 충만하고 최종적인 해석은 오직 종말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뤄질 것입니다. 제 9항은 계시는 성서와 분리될 수 있다는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반면, 진리에 대한 상대적인 관점은 어느 관점이라도 타종교들을 포함한 타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보완하고 수정하고 풍부하게 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한 점이 돋보입니다.⁵⁹

Dow는 제 9항의 이 부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원리들을 재해석할 수

58) 상대주의와 관계주의 간 구별을 보려면, see Gregory Baum, *Truth Beyond Relativism: Karl Mannheim's Sociology of Knowledge* (Milwaukee, WI: Marquette University Press, 1977), 36-41.

59) *Ibid.*, 38.

있다”⁶⁰는 점과, 성서는 기계적 방식으로 적용될 수 없지만 근본적으로 성령이 힘을 주시면 그 능력 안에서 기존과 과격하게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성서를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Dietrich Bonhoeffer도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그는 독일의 감옥에서 쓴 책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discipleship를 증거하면서 그리고 “누가 오늘날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인가?”⁶¹라는 질문과 씨름하며 거의 동일한 지적을 했습니다.

제 9항은 계시에 관한 범위를 제한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서 해석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의 중요성을 더 강하게 인정합니다. 즉, 이러한 강조는 성서는 계시와 계시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중심적인 근원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성서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시대에 새롭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제 9항은 또한 성서를 해석하는 것에 작용하는 상황에 대한 강조를 통해 우리가 속한 삶의 맥락의 의미에 주목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제 9항의 이해는 결국 어떤 상황에 직면해서 과격하고 극적으로 성서를 재해석하고 증언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고, 결국 1960년 대 이후 성서는 무엇이고 이것은 어떻게 읽혀져야 하는 지에 대한 질문들을 다시 한 번 시작하도록 캐나다 연합교회를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가 1992년의 『성서의 권위와 해

60) Dow, *This Is Our Faith*, 180.

61) Ernst Feil, *The Theology of Dietrich Bonhoeffer*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5), 92.

석』⁶² 문서였습니다.

『성서의 권위와 해석』(The Authority and Interpretation of Scripture, AIS)

1980년대 성소수자들(sexual minorities⁶³)에 대한 목사안수 자격에 대한 캐나다 연합교회 내의 논쟁이 진행될 때 찬성과 반대 양측 모두 성서에 호소했습니다. 반대자들은 동성애적 행위를 비난하는 데 성서구절들을 인용하였습니다. 찬성하는 이들은 포용과 수용 그리고 해방에 관한 성서의 폭넓은 주제들을 참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도 성서의 권위에 대한 일관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소수자들에 대한 목사 안수 자격을 반대하는 만큼 여성의 목사 안수를 반대하는데 성서가 빈번하게 인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목사 안수 역시 반대하는 데 성서를 인용하긴 했습니다. 찬성하는 이들은 성정체성에 관해서 성서의 특정본문이 부정하는 듯 읽혀질 때, 어떻게 성서의 권위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이 반대 본문을 해석할 수 있을지 어려움을 가졌습니다. 실제로는 이 찬반논쟁 가운데 성서가 이용됨으로써, “신앙의 규칙”들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성서가 무엇을 말했는지의 문제가 아니고, 성서가 어떻게 읽혀져야 하는지 그리

62) *The Authority and Interpretation of Scripture: A Statement of The United Church of Canada* (Toronto: The United Church Publishing House, 1992).

63) 1980년대 논쟁들은 게이와 레즈비언의 목사안수 자격에 한해 중점적으로 진행되었다.

고 특별한 구절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성서 전체에서 얼마나 큰 또는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에 관한 기준의 충돌이었습니다.

1985년 총회 실행위원회는 신학과 신앙위원회에 성서의 권위와 해석에 관한 캐나다 연합교회의 이해를 명확하게 할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분열에 응답했습니다.⁶⁴ 본 위원회 보고서가 1988년 제 32회 총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받고 총회에서 보고서에 대한 응답, 교회 전체의 응답을 요구했고, 그 응답을 총합한 후속 보고서가 다음 총회에 제출되도록 하는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성소수자들을 위한 목사 안수 자격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는 동안 다른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안건에는 “성서의 권위와 해석에 대한 교회 전체의 연구” 그리고 우리의 성서 이해의 기초가 되고 있는 전제들을 담도록 연구를 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⁶⁵ 신학과 신앙위원회는 하나의 연구 문서를 가지고 이 두 개의 안건에 답했고, 이것에 관한 광범위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보고서가 이것을 고려해서 작성되었고, 1992년 제 34회 총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의 주요 기준과 신념 그리고 관찰이 채택되어서 나중에 『성서의 권위와 해석』의 “서문”이 된 후속 안건 안에 담겨졌습니다.

64) *The Authority and Interpretation of Scripture*, 1-2

65) *Ibid.*, 2.

『성서의 권위와 해석』의 “서문”

1. 총회가 본 문서를 받아 들인다.
2. 총회는 캐나다 연합교회의 삶과 활동 안에서 권위에 대한 요청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준들을 승인한다:
 -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자기 계시를 한다는 믿음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무엇이 전통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는지를 확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전통적인 권위는 모든 창조된 세계의 공동체를 강화한다.
 -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서의 기록보다 더 크다.
3. 이 기준들에 비추어 총회는 다음과 같은 신념들을 승인한다:
 - 하나님은 우리가 기독교인의 삶을 살고자 할 때 기본적인 권위로 성서를 받아서 씨름하도록 engage 우리를 부르신다.
 - 하나님은 모든 사람, 살아있는 피조물 그리고 지구와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추구하는 교회로서 성서를 받아들일도록 우리를 부르신다.
 - 하나님은 해방하며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 성서를 받아들일도록 우리를 부르신다.
 - 하나님은 성서가 우리의 신학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전제들 편견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성서를 읽고 해석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

- 하나님은 성스러운 신비감을 가지고 인간의 경험, 인간의 이해, 그리고, 인간의 유산들과 함께 성서를 읽어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
 -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우리의 행위에 권위를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안내를 따라 성서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부르신다.
4. 총회의 부서들은 연회들과 노회들 그리고 개교회들 pastoral charge 전역에 걸쳐 그들의 삶과 사역의 모든 측면과 앞서 제기한 성서에 대한 기준과 신념이 통합 되도록 장려한다.
5. 총회는 성서 연구를 위한 기회와 재원들을 요청하는 교회 안의 많은 요구들에 응답한다.
- a. 목회 지도력을 장려한다:
 - 1) 모든 세대들을 위한 설교와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성서 자료들을 만드는 일을 진행한다;
 - b. 성서와 씨름하는 것 engage은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라는 점을 받아들이도록 교인들을 격려하고, 어렵지만 그 씨름을 행하도록 교인들에게 제안한다.
 - c. 캐나다 선교부 Division of Mission in Canada가 이 과정에서 돕도록 요청한다.
6. 제 34회 총회는 전교인들에게 아래와 같은 통찰력을 부여한다:
- 성서와 씨름하는 것은 기독교 공동체에게 있어서 선택 사항이 아

니다.

- 우리가 성서를 받아들일 때 이해할 때, 개인적이며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고유한 민족/공동체/가족 등 이런 정황에 깊이 영향을 받고 그 정황을 반영하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 우리가 어떻게 성서를 해석하는 지는 어떻게 우리가 사는가 삶의 모습로 거의 분명하게 드러난다.
- 해석은 우리가 성서를 읽는 중에 불가피하다.
- 각각의 해석은 새로운 해석들로 초대하고 온 세상과 계약을 맺은 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새로운 통찰들에게로 초대한다.

그리고 교인들은 신학과 신앙위원회와 함께 그들의 성경 연구로부터 나온 통찰들을 계속 공유하도록 장려한다.⁶⁶

이 선언들은 이 책의 마지막에 각각의 절들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내용을 보충합니다.

이 내용에서 많이 언급된 것은 『연합의 원리』 제 2항과 1940년 『신앙선언』 제 9항에서 주장했던 것과 잘 어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기록보다 더 크다”⁶⁷는 선언은 이전 다루었던 성서에 관한 제 2항의 내용, 성서가 “신앙과 삶을 이끄는 데 무오한 신

66) Ibid., iv-vi.

67) Ibid., iv.

양의 규칙을 담고 있다” containing the only infallible rule of life and faith의 설명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책의 끝에서 정교하게 기술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본 보고서가 성서의 본문자체와 그것을 통해서 표현된 계시 사이에 구별을 한 것과 같이 이 둘을 구분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⁶⁸ 앞선 신앙의 선언들처럼, 세 번째 단락은 기독교인의 삶을 위한 토대로써 성서를 본다는 것은 성서가 교회에서 전통적 권위를 지닌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기독교인들은 “해방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도록 성경을 받아들이도록”⁶⁹ 요구받는다고 선언하는데 있어서, 이 단락은 성서는 카리스마적 권위를 또한 가지고 있다고 계속 주장합니다. 제 2항과 제 9항처럼 이 단락은 성령이 교회를 만들고 지도하는 것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위한 지속적인 계시와 안내를 할 수 있게 하는 규범적인 근원으로써 성서를 이해합니다.

다섯 번째 단락, 즉 성서학의 연구들이 교인들에게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 역시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론에서 논의된 것처럼, 1960년대 초에 시작되었지만 1990년대에 사장된 『새로운 교과과정』은 이 점에 있어서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AIS 성서의 권위와 해석 보고서는 20세기 후반을 지나면서 개발되어

68) Ibid., 67-8.

69) Ibid., iv.

온 성서 연구의 중요성과 다양성을 인정합니다.⁷⁰

그러나 다른 구절들은 제 2항과 제 9항에 관해서 그리고 성서에 관한 캐나다 연합교회의 앞선 가르침에 대한 새로운 주석을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절은 합법적 권위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온 창조 세계의 공동체를 고양시킨다”⁷¹는 보편적 정의의 원칙을 말합니다. 세 번째 단락의 두 번째와 네 번째 문장은 또한 성서 해석을 위한 도덕적 지침들을 말합니다. 교회의 신앙에 대한 요약으로써 1968년 『우리 신조』는 교회는 “타인을 사랑하며 섬기고, 정의를 추구하며 악에 항거하도록 부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조의 내용은 본 보고서에게 영향을 주었으면, 이번 구절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새로운 주석은 성서 해석의 합법성을 위한 척도로써 이것을 응용한 것입니다.

제 2항과 제 9항은 성서에 귀를 기울이고, 성서가 밝히는 것을 받아들이고 성서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삶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성서로부터 온 계시는 절대 선(an unmitigated good)이라고 일반적으로 여겨집니다. 기독교인들은 정의를 추구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성서의 증언에 의해 요청 받았습니니다. 그러나 AIS는 이 점에 있어서 성서를 향

70) 이런 다양한 성서연구 방법론을 보려면, Caroline Vender Stichele and Todd Penner, eds., *Her Master's Tools? Feminist and Postcolonial Engagement of Historical-Critical Discourse* (Atlanta: SBL, 2005).

71) *The Authority and Interpretation of Scripture*, iv.

해 좀 더 반동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1960년대 이후 수십년간 캐나다 연합교회는 순진함의 상실(loss of innocence), 즉 순진해서, 의식하지 못해서 저지른 실수들을 경험했습니다. 캐나다 연합교회가 유례 없이 도덕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예전의 많은 가르침들을 비판적으로 검증하고, 1986년 원주민에 첫 번째 사과를 발표함으로써, 좀 더 심오한 방식으로 캐나다 연합교회의 가르침들과 연합교회가 성서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성서의 애매모호함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AIS의 “서문”의 구절들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정의를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으로 세운 것과 관련해서 교회의 성서 해석과 사용과 관해 자기 비평적(self-critical)일 필요가 있습니다.

AIS에서 기독교인들은 한편으론 성서의 권위에 대한 존중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론 성서를 해석하고 심지어 도전하는 그 긴장 속에서 산다는 인식을 반영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 긴장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교부 시대 이래 기독교인들은 성서 해석에 있어서 “신앙의 규칙”이 성서를 해석하는데 지켜야 할 지침으로 고수하도록 종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규칙”은 언제나 교회 내의 제한적 이해였습니다. 이성과 경험이 호소 되었지만, 성서가 어떻게 그 이성을 사용해야 하는지 근간을 형성하는데 기초적인 믿음들을 제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합의 원리』 제 2항이 말하는 성서는 “오직 신앙과 삶을 이끄는 데 있어 무오한 신앙의 규칙”을 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수십년 동안 캐나다 연합교회는 성서는 초월적 진리이자 동시에 독이 든 성배

의 근원이며, “불행과 심지어 야만”⁷²으로 이끄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방 신학과 특별히 여성 신학과 여성주의 성서 비평학의 영향으로 인해서 교회는 성서가 한편으론 “여성혐오와 억압적 가치들”을 전파하는데 선수가 되고 다른 한편으론 “비인간화시키는 억압에 반대하는 투쟁들을 하는 여성과 남성들wo/men에게 영감을 주고 그 투쟁에 힘을 실어주는”⁷³ 양 날을 가진 칼처럼 사용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또한 교회의 행위들과 신념들 그리고 관행들의 결과들과 영향들에 대해 좀 더 완전하고 비판적인 책임을 지도록 촉구하는 세속화하는 사회에 의해 도전 받았습니다.

성서 권위에 대한 존중은 성서적 가르침들을 향해 절대적 복종의 자세를 강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성서를 해석하고 다루는 것에 비판적 책임감을 가지는 것은, 성서적 가르침들에 적용하기 위한 범주으로써 정의에 대한 보편적 기준들을 갖대로 사용할 수 있기에, 성서를 자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성서가 제시하는 것을 자기의 개인적 기준에 따라 자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상에 지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두 개의 태도들은 서로 긴장 속에 있습니다. 성서 해석을 위한 지침들으로써 AIS가 제

72) Charles Taylor, *Sources of the Self*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9), 519.

73) Elisabeth Schüssler Fiorenza, “Foreword, Come Eat of My Bread...and Walk in the Ways of Wisdom,” in Mary Ann Beavis and HyeRan Kim-Cragg, *Hebrews: Wisdom Commentary* Volume 54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2015), xiv.

공하는 정의의 기준들은 성서 그 자체의 본질적인 메시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내용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런 태도들은 실천하는 과정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양쪽으로 갈라질 수 있습니다. 성서의 권위에 대한 일방적 존중은 성서를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우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 해석을 위한 정의의 범주들에 대한 개념들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과 계시를 정의에 대한 자의적인 관점의 범위들로 축소시킬 수 없습니다.

AIS의 기준들과 신념들과 통찰들은 생산적인 긴장 속에서 서로 분리되는 것을 막도록 두 개의 태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AIS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성서와 씨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필수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성서를 통해서 거기에서 계시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생명이 넘치는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선, 성서에서 보여주는 신앙의 증언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 증언이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AIS는 또한 기독교인들이 성서를 읽을 때, 성서 그 자체가 기독교인들에게 자기 비판적이 되도록 말씀하신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성서가 증언하는 그 기록 안에 지속적인 기쁨이 있지만, 동시에 성서의 모호성에 대한 이런 새로운 자각은 『믿음의 노래』에서 더 훌륭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노래』 (A Song of Faith)

2000년에 캐나다 연합교회의 신학과 신앙위원회는 특별히 “교회교회론과 목회와 성례전들의 본질”에 관한 대화에 교회를 참여하게 하기 위해 ‘시대와 상황에 맞는 신앙선언’⁷⁴을 만들도록 37회 총회로부터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위원회는 2006년에 캐나다 연합교회의 신앙에 대한 현대적인 선언으로써 받아들여진 『믿음의 노래』로 응답했습니다. 이 서문은 이것은 “우리 시대를 위한”⁷⁵ 신앙선언이었다고 말합니다. 부록 C는 이 시대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공동체들이 파편화되어 가고, 그로 인해 “관계에 대한 굶주림”과 캐나다 사회에서 연합교회가 지녔던 제도권의 힘이 사라지고,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진리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 다름을 향한 개방성, 그리고 시장경제의 만연과 테러에 대한 공포와 환경 위기를 포함한 이 모든 상황을 개괄적으로 제공합니다.⁷⁶

부분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세가지 특징들 가운데 첫 번째에 대한 응답에서, 『믿음의 노래』는 앞선 신앙선언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형태를 가집니다. 이것은 『연합의 원리』나 1940년 『신앙선언』에 있는 교리 부분처럼 항목들articles로 선언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노래』는 너무 길어서 『우리 신조』처럼 예배에서 고백적 선

74) The United Church of Canada, *A Song of Faith*, 2.

75) Ibid.

76) Ibid., 14-15.

언으로써 사용될 수 없습니다. 대신 이것은 시편과 동종 서사시와 같은 시적 형태를 가집니다. 『믿음의 노래』 서문은 캐나다 연합교회가 이것이 쓰여졌던 당대에서 “연합교회가 되고자 했던 그 믿음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 구술적 그림”⁷⁷⁾ 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현재의 상황 또는 믿음의 내용들에 관한 선언들은 “우리는 노래한다,” 즉, 그것에 즉각적으로 선행하는 내용에 대한 고백적 응답으로써, 후렴구로 씁니다. “서문”은 1940년 『신앙선언』 제 9항이 담고 있는 성서 해석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에 대해 동의를 하면서 성령의 역할이 『믿음의 노래』 전체에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동시에 성령의 임재는 교회가 성서를 읽고 교회의 믿음에 대하여 성찰하는데 있어서 확신을 주며, 이 점 역시 『믿음의 노래』를 만든 기초가 됩니다. 다만 캐나다 연합교회가 성서를 읽는 데 있어서 그 해석이 지닌 임시적 변할 수 있다는 특성을 인정합니다.

『믿음의 노래』는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시작으로, 다음으로 인간이 처한 현실들을 기술하고, 그런 다음 이 세계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창조적이고 구속적인 역사를 기술합니다. 그런 다음 “순례의 노래”⁷⁸⁾ 로써 성서에 관해 두 단락에 걸쳐 기술합니다.

77) Ibid., 2.

78) Ibid., 5.

『믿음의 노래』로부터 From *A Song of Faith*:

성서는 순례의 노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대대로 내려온,

인도와 영감을 주시는,

인간의 경험과 다른 시대의 문화적 전제를 담은,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씨름해야 하는 거룩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고 그치지 말고 실천하라고 부르십니다.

성령께서 계시의 능력을 성서에 불어넣으시고,

공동체의 삶 가운데

유일한 규범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때는 성서를 오용하거나

편협한 해석을 하고

억압하거나 배척하거나 증오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입니다.

성서 전체가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성서 안의 다양성이 그 깊이를 증언합니다.

구약, 신약, 네 개의 복음서,

서로 어긋나 보이는 대조적인 관점들,

이 모두가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온전한 사람, 거룩한 신비이신 하나님을 증언합니다.⁷⁹⁾

“순례의 노래”로써 성서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노래』는 『연합의 원리』 제 2항에서 “성서는 믿음과 삶을 이끄는 데 무오한 신앙의 규칙을 담고 있다”는 선언들과 성서는 “기독교 믿음과 행동에 대한 분명한 안내”⁸⁰⁾라는 제 9항의 선언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성서를 “무오한” 또는 “확실하다”고 부르는 것 대신 『믿음의 노래』는 성서를 “순례의 노래” our song for journey라고 부릅니다. 성서가 절대불변의 노래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노래 즉, 특정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나온 생명의 원천으로써의 노래입니다. 이런 내용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포스트모던postmodern”이란 용어를 완벽하고도 최종적인 방법으로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 서에서는 다음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포스트모던은 실제의 다양한 본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즉 세계관이 다양한 상황에 놓여있으며 오직 한 가지의 사상을 통해서 적절하게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을 지칭합니다.⁸¹⁾ 이는 진리에 대한 인식을 할 때 다른 사상의 모습들도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79) The United Church of Canada, *A Song of Faith*, 5-6.

80) Basis of Union: Doctrine, Article II, *Statement of Faith* (1940), Article IX.

81) Michael Welker, “Modernity and post-modernity as challenges to Christian Theology,” *Swedish Missiological Themes* 90/4 (2002), 439.

런 인식은 물론 진리에 대한 인식들이 이 종종 상반되어 화해할 수 없다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어떤 특정 진리에 대한 인식들이 다른 인식보다 우월할 수 있고, 그 인식을 고양시키고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언제나 모든 진리에 대한 주장들은 관념론적으로 오염시킬 수 있다는 의미에서, 세 번째 특징은 모든 인간의 진리에 대한 주장들이 갖고 있는 오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무언가를 표현할 때, 그 표현은 자기의 관심에서 나옵니다. 네 번째, 그 어떤 사상의 모습도 그 자체로 순수하지 않습니다. 종교 사상은 언제나 그것이 속해 있는 문화와 그 안에 있는 사상의 지배적 형태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특징 지워집니다. 거꾸로, 과학 사상 역시 신앙이라는 측면, 즉 종교적인 영향에 의해 질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모던의 종교 사상은 하나님의 전적인 신비와 하나님의 타자성에 대한 인식을 요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⁸²

『믿음의 노래』는 “살아계신 말씀”으로써 성서를 높이는 반면, 성서의 모호성과 그것의 비판적 해석을 위한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성서는 “안내하고 영감을 주기 위한” 것이기에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장소를 위한 거룩한 계시”를 받을 수도 있는데, 거룩한 계시는 바로 우리의 창조적 해석과 성서 본문과의 씨름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성서 본문과의 씨름은 계시가 ‘답긴’ “또 하나의 시대에 대한 인간의 경험들과 문화적 전

82) David Tracy, *On Naming the Present* (Maryknoll, NY: Orbis Books, 1994), 41.

제들”⁸³⁾의 한 복판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계시인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믿음의 노래』는 성서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쓰여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연합의 원리』 제 2항과 『신앙선언』 제 9항과 일치합니다. 성서의 모호성을 인정하는 것은 캐나다 연합교회의 예전의 신앙 문서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후기 홀로코스트post-Holocaust의 상황과 여성주의 신학자들이 가한 성서의 가부장적 편견에 대한 비판과 또한 캐나다 연합교회의 목사 안수를 위한 성소수자들의 자격에 대한 토론의 결과물에게서 영향을 받고 그 내용들을 반영한 듯합니다.

성서에 관한 첫 번째 단락은 ‘탐험가들Explorers’ 즉 과거 캐나다 연합교회의 여성들 모임 좌우명인 야고보서를 인용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저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닌 말씀을 행하는 사람”야고보서 1:22이 되고자 합니다. 성서가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성서는 실천을 위한 대본이 됩니다. 예수님은 기독교인들이 창조적 방식으로 따라야 하는 모범이 됩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한 소명 의식을 묻는 질문에 응답하기 위한 열쇠는 기독교인들로서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윤리적 질문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소명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결정되며, 기독교인은 그들의 행위로 그들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따름

83) The United Church of Canada, *A Song of Faith*, 5.

으로써 그의 길을 선포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방식들을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방식들”로 이해했고, 자신들을 좀 더 완전하게 성장하게끔 인도하신 “믿음의 표시들”을 구체화하고 실천했습니다.⁸⁴

다음 단락은 성서가 어떻게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지를 기술합니다. “성서에 담긴 계시의 능력”을 불어넣는 것에 의해서 성령께서 “공동체의 삶에서 유일하고 규범적인 위치”를 성서에 부여합니다.⁸⁵ 이것은 우리가 서론에서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성서의 카리스마적이며 전통적 권위라고 불렀던 것을 설명합니다. 성령께서 “성서에 계시의 능력을 불어넣으심”으로 성서는 사람들의 실재와 구원의 가능성을 조명하고 강화시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성서에 따라 살도록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계시적인 능력의 결과로써, 성서는 교회에서 전통적인 권위, 즉 교회의 정체성과 지속하고 있는 관례의 일부인 “유일하고 규범적인 위치”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 단락들은 성령께서 성서를 억압하거나 헐뜯거나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잘못 사용될 때 교회를 심판한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그 단락을 통틀어 성서는 “하나님의 유일성과 신실성을 중

84) Jack Seymour, *The Way of Jesus: Educating Christians for Faithful Living* (Nashville: Abingdon, 2014), 166.

85) Tracy, *On Naming the Present*, 41.

언한다”는 것을 계속 긍정합니다.⁸⁶ 이것은 성서의 통일성에 관한 1940년 『신앙선언』 제 9항에 있는 주장을 수정한 것으로써 읽혀질 수 있습니다. “신실하심” *faithfulness* 이란 용어는 “구속적 목적” *redemptive purpose* 보다 훨씬 광범위합니다.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이면에는 하나님의 숨겨짐 *hiddenness*에 대한 개신교주의 내에 중요한 논쟁이 놓여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성 또는 단일성을 긍정함으로써 『믿음의 노래』는 숨겨진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어떠한 제안, 즉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것과 기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에 대한 여러 모습 또는 차원들이 있다는 제안을 배제합니다.

이 단락은 이것이 “성서의 깊이를 증언”하는 것이라는 점을 주장함으로써 “성서의 다양성”에 주목하게끔 만듭니다.⁸⁷ 성서의 증언 통일성과 성서의 전통들의 다양성, 이 둘의 대조적인 주장들을 동시에 긍정함으로써 『믿음의 노래』 전체에 걸쳐서 둘 다 선택하는 쌍방 *both/and* 전략을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성서의 통일성만 또는 다양성만 인정하지 않고 『믿음의 노래』는 두 가지 모두 주장합니다. 이것은 “즉 한 분이시며 삼위 일체이신 하나님, 이런 상반되지만 긴장관계를 지닌 하나님에 관해 신실하게 증언”⁸⁸을 한 기독교 신학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성서에 대한 『믿음의 노래』의 쌍방

86) The United Church of Canada, *A Song of Faith*, 6.

87) *Ibid.*

88) *Ibid.*

전략과 다원적 접근은 가장 최근의 유대교 경전주석과 최근 여성 신학 성서 주석을 포함해서 현대 성서신학의 업적을 반영하며 그 입장과 조화를 이룹니다.⁸⁹⁾ 기독교 여성신학주석의 예를 보면, 첫 번째 주석본 제목으로 정관사 “The”를 썼지만, 최근 주석에서 그 정관사를 삭제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성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유일하고 절대적인 해석은 없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AIS가, “성서는 근본이 되는 권위이다”라고 선언할 때, 그 제목에서 정관사 the 부정관사 a 모두를 넣지 않았다는 것과 비슷한 관점입니다.⁹⁰⁾

어떤 면에서 성서에 관한 『믿음의 노래』의 기술은 캐나다 연합교회가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하는 지 볼 수 있는 창window입니다. 캐나다 연합교회의 교인 자격은 여러 면에서 전보다 훨씬 다양하게 확대되어왔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믿음을 요약적으로 표현할 필요를 재촉하는 성서가 말하는 다양성입니다. 성서는 문화들이나 또는 관점들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믿음의 노래』의 기술은 또한 다름에 민감한 포스트모던 문화와 사상을 반영합니다. 성서가 교회에서 “유일하고 규범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한편, 동시에 많은 다른 목소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성서는 모든 시대 속에

89) Tamara Cohn Eskenazi and Andrea L. Weiss, *The Torah: A Women's Commentary* (New York: Women of Reform Judaism, Federation of Temple Sisterhood, 2008), Carol A. Newsom, Sharon H. Ringe, and Jacqueline E. Lapsley, eds., *Women's Bible commentary*, the 3rd edition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2012).

90) AIS, preface, iv-v.

서 사람들의 목소리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해석하는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이 다양성은 또한 신학의 필요성을 지적합니다. 성서가 교회에서 “유일하고 규범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각 시대 단순하게 성서에만 호소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던 아리안 논쟁이 보여주었듯이, 성서는 논쟁 가운데 찬반 입장을 지지하는 데 종종 인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교회는 그 당시 상황에 신실하면서도 창조적으로 시대를 초월해서 새로운 것을 말하고 성서를 해석하는 교회를 필요로 하는 지적/윤리적 도전들과 반복해서 부딪쳐왔습니다.⁹¹ 그렇게 하면서 교회는 때때로 예전에 가르쳤던 것과 반대의 입장들을 주장합니다. 캐나다 연합교회가 바로 이렇게 스스로를 교정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캐나다 연합교회가 주장하는 바와 충돌하는 성서의 구절들을 제지성서를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캐나다 연합교회는 특정 구절들이 다른 그룹들을 해하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입장들을 지지해왔습니다.⁹²

성서에 관한 두 단락에 이어서, 『믿음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

91) Rowan Williams, *Arius: Heresy and Tradition* (London: Darton, Longman and Todd, 1987), 235-7.

92) *Bearing Faithful Witness: United Church-Jewish Relations Today* (Etobicoke: ON; The Committee on Inter-Church and Inter-Faith Relations, The United Church of Canada, 1998), 29.

스도에 관한 6개의 단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노래』는 성서와 성령에 관한 주장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토론의 틀을 만드는 한편, “성령을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영”⁹³⁾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믿음의 노래』가 성서에서 계시의 정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데 반하여, 성서에 관한 토론 후 즉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서언들의 일부와 그를 향한 경의 그리고 계시의 정점이 이뤄지는 장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서 계시의 정점이라는 점을 함축적으로 암시적으로 주장합니다.

『믿음의 노래』 본문에 덧붙여 네 개의 부록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부록의 연합교회의 정체성을 다룬 부분에, 캐나다 연합교회가 성서를 신중하게 다루지만 문자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다는 점을 말한 성서의 권위에 대한 단락이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교과과정』*New Curriculum*과 다른 기존 보고서와 문서들이 채택한 비평적 성서 연구들의 사용법과 일치합니다. 네 번째 부록은 어떤 성서 문장들은 사건들과 인물들에 있어서 신화적이며 상징적 묘사들이며 유대교적 주석 미드라쉬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네 번째 부록은 또한 캐나다 연합교회의 현대 성서 연구는 종종 역사적, 맥락적, 문학적 기능, 성서에 등장하는 다양한 목소리들 그리고 어느 주어진 문장에서 “대표되지 않는 목소리들”⁹⁴⁾을 고려한다는 점을 인정

93) *A Song of Faith*, 7.

94) *Ibid.*, 17

합니다.

『민음의 노래』는 성서에 담긴 인간성 즉 성서는 “인간의 경험들과 문화적 전제들 편견”을 반영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이 주장은 Doulas John Hall이 “교회의 굴욕”⁹⁵ humiliation of the church이라고 부른 것을 반영합니다. 이 굴욕은 캐나다 연합교회와 다른 개신교단이 캐나다 영어권 사회에서 점차 기존의 지위와 영향력을 잃게 dis-establishment되었으며, 과거에 캐나다 연합교회의 가르침과 전통들, 즉 사랑의 이름으로 표면상 행해진 것들, 구제의 이름으로 행해진 선교가 어떤 사람들에게 득이 되지 않고 상처를 더 많이 주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포함해왔습니다. 캐나다 연합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잘한 일, 못한 일 둘 다를 포함한다는 인정하는 것은 성서를 이용악용해서 기독교가 행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행위 둘 다를 인정하는 것과 직결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경험과 문화적 전제 편견들을 반영함이요, 비판이 필요한 억압의 가르침들과 이해들을 포함한다는 점을 기술합니다. 그러나 『민음의 노래』는 성서는 지속적으로 지금도 계시의 근원이며 교회의 삶 가운데 특별한 지위를 가진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캐나다 연합교회는 이제 성서가 지닌 인간적 한계 교회의 굴욕 포함과 모호성에 대한 인정을 대단히 분명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민음의 노래』는 성서의 일차적 중요성, 즉 계시의 근원이며,

95) Douglas John Hall, *The Future of the Church* (np: The United Church of Canada Publishing House, 1989), 17, 24-7.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증언과 성서의 폭로적이며, 계시적인 능력에 대한 지속적인 경험의 결과로써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밝힙니다.

결론

역사 전반에 걸쳐서 캐나다 연합교회는 성서의 권위와 해석에 있어서 다른 이해들을 주장해왔습니다. 캐나다 연합교회의 신앙과 신학 위원회는 성서의 모습들에 대해 한가지로 통일된 공유된 이해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연합의 원리』로부터 시작되어 여기서 다른 교리 선언들이 보여주는 바는 언제나 꾸준히 캐나다 연합교회는 성서를 이해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성서는 교회의 삶을 규정하는 다른 교리 주요 문서들보다 선차성을 가지고 우선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선언들에서 캐나다 연합교회는 그 선언들이 지닌 연관성을 언제나 분명하게 말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삶 속에서 다른 어떤 지식의 근원들과 관련하여 성서가 최고임을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캐나다 연합교회는 그 자신에게 있어서 성서적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을 언제나 주장해왔습니다. 캐나다 연합교회는 실천적으로 또는 가르침에 있어서 언제나 비판적으로 성서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연합교회는 성령의 역할, 즉,

96) Bourgeois, "Awash in Theology," 269-70.

성서를 쓴 저자들에게 영감을 준 성령의 역할과, 그 기록을 읽는 자에게 불어넣어지는 성령의 역할을 경외할 것을 인정해왔습니다. 1940년 『신앙선언』과 『믿음의 노래』에 담긴 내용, 즉 성서를 읽을 때 가져야 하는 신앙의 자유함, 그리고 그 자유함으로써 얻게 된 성서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현 시대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할이 성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서를 해석하는데 주요한 특징이라는 점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제 2 장

성서 해석: 사례분석

1장에서는 캐나다 연합교회가 성서의 권위와 해석에 관해 어떻게 이해하고 말해 왔는지를 주요 신앙문서들인 『연합의 원리』, 1940년 『신앙선언』, 1992년 『성서의 권위와 해석 문서』 그리고 『믿음의 노래』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성서의 권위와 해석이 어떻게 교단의 역사 속에서 중요하게 작용했는지에 대해 특정한 성서 본문을 해석한 세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례 #1: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요한복음 17:21 표준새번역 개정판

첫 번째 사례는 Samuel Chown 목사가 캐나다 연합교회 출범 당시 교회 연합운동을 지지하고 대변하는 맥락에서 요한복음 17장 21절 본문을 해석한 사례입니다. 이것은 캐나다 연합교회 출범을 전후해서 나온 해석이었습니다. 교회연합을 향한 추진력이 더욱 굳건해지는 만큼 그에 대한 반대도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본문이 연합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본문은 조직적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연합에 충분한 근거를 주는 가장 대표적인 성서본문이었습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고” 라는 문구의 라틴어 번역 “*UT OMNES UNUM SINT*” 이 연합교회의 공식 모토가 되었습니다. Samuel Chown은 1922년에 자신을 포함한 교회연합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가 기도했던 것을 실천하고 완성하려는 열망으로 노력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⁹⁷ 그러나 교회연합 반대자들은 Chown과 교회연합 지지자들의 이러한 본문 해석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Chown은 이후에 자신이 쓴 연합교회 출범의 역사라는 책에서 이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펼쳤습니다.⁹⁸ 이 본문에 대한 그의 해석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이번 장에서 살펴볼 첫 번째 사례입니다.

97) S. D. Chown, “Church Union,” in *The Christian Guardian* (June 28, 1922), 13.

98) S. D. Chown, *The Story of Church Union in Canada* (Toronto: The Ryerson Press, 1930).

S. D. Chown 목사의 책 “캐나다에서의 교회연합운동 이야기” 페이지 2-7에서 발췌

연합을 반대하는 이들은 연합운동가들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이르기를,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들도 하나가 되기를” 기도한 예수님의 증보 기도를 조직적인 교회연합을 기원한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비난해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기도는 단지 영적인 일치를 이야기한 것인데, 이것을 교회연합운동에 적용하려는 해석은 비과학적이고 감성적이며, 해석자의 편향적인 선입관을 드러낼 뿐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영적인 일치를 이야기한다는 그들의 본문해석은 기꺼이 받아들일 만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성서해석을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교회연합운동의 신앙적 근거를 흔들 수 없으며, 교회연합운동이 영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섭리임을 증명하는 여러 긍정적인 상황이 보여주는 강력한 논거를 약화시키지도 못합니다.

또한 분명한 것은, 만약 예수님의 이 기도가 교회의 조직인 연합에 대한 생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할 지라도, 이 본문이 교회연합운동을 반박하거나 비난하는데 인용될 수는 더더욱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하나됨’ unity은 적어도 연합의 실체에 대해 반박 할 수 없는 누구나 쉽게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담고 있습니다. 교파의 분열을 지지하는 어떤 내용도 성서에서 찾아볼 수 없을 뿐더러, 반대로 초기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하며 보였던 분열의 모습들이 신약성서에서 경쟁

과 증오를 조장하는 것으로 강하게 비난 받았고 거부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invisible Church의 일치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실제로 존재하는 교회들’의 일치를 통해서 전자를 대신해서 후자의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교회의 일치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 할 것입니다.

덧붙여 말하면, 많은 조사 연구를 한다 할지라도 신실하고 분별력 있는 교계의 지도자들이 행한 조직적인 교회연합organic union에 영향을 주고, 이 연합에 버금가는 어떠한 교회 일치 의 모습도 사실상 찾지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합된 교회 내 직제order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일치를 이루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옥스퍼드Oxford 대학에서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장로교 목회자 그룹이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직제에서의 일치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전체the whole Church or Body of Christ 가 머리가 되신 주님 안에서 지니고 있는 영적인 일치를 보존하고 나타내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치는 모든 부분들이 조화롭게 통합 조정되고co-ordinating, 성만찬Holy Communion에 동참하도록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한 모든 부분들의 통합조정은 하나로 통일되어 감독하는 조직적 통합의 모습 a unified directing body 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신뢰할 만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서의 영적인 일치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조직적인 일치 또한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널리 확산된diffused 영적인 일치는 특정한 지역에서 구체적인 교단의 조직된 모습으로 발현될manifesta-

tion 때만이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연합운동에 대한 신념이 위에 언급된 본문에 대한 논쟁적인 해석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교회연합을 추구하는 이들은 자유로이 그들의 뜻을 뒷받침 하는 더 많은 합리적인 근거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조직적인 교회연합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지명한 것이 아니고, 단지 그리스도가 기도했던 일치를 위해 눈에 보이는 효과적인 임시방편이라 할지라도 그것 자체로 이미 정당성이 충분합니다. 교회연합운동이 비록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한 것(specific divine appointment)은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가 선교역량과 재원, 그리고 계획들을 개발하고 실천해 오는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이 공통으로 가진 분별력으로부터 인정받아 온 수 백 가지 실천들과 똑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입니다.

연합에 반대하는 이들이 특정한 이유를 들어 교회의 분열이 계속되기를 주장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치는 순간조차도 일치의 영(the spirit of unity)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를 꿰뚫는 사랑은 함께 통합하고 일치를 이룰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이 충분히 성장할 때에는, 그것은 점차 자연스럽게 연합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연합운동에 대한 조직적인 반대가 캐나다에서 일어나기 이전에는, 교회연합을 가능한 빨리 완성하기 바랄 만큼 일치를 향한 정신이 강력했습니다. 또한 연합의 반대세력이 조직화되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이후에도, 교회연합을 추구하는 교계 지도자들과 지지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있다는 신념에 대해 한 순간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연합을 향한 그들의 신앙여정에서 직면하는 도전과 어려움을 깊이 연구할수록 그들은 교파의 분열이 결코 기독교 사랑에서 나온 결과일 수 없다는 신념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교파로 갈라진

상황에서는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보여준 형제자매로서의 사랑을 자신이 속한 당파적인 그룹 안에서 좁고 편협한 채널을 통해서만 실천하는 것으로는 진정한 사랑의 정신을 구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종교로써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fellowship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의 중요한 목적은 이러한 교제를 통한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유지되는 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교회연합을 지지하는 이들은 연합운동이 참 기독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대자로부터 오는 상처보다도 연합을 하지 못해서 같은 신앙을 나누는 형제자매들로부터의 고립으로 인해 일어나는 단절, 슬픔, 아픔이 훨씬 크다고 확신했습니다. 신학적 입장에서 비본질적인 차이들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능력에 대해 분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막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만약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신학적인 통념 때문에 예수님께서 단언하신 제자 됨 discipleship의 척도를 도외시한다면, 종교가 가진 변증적인 가치는 완전히 소멸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를 통해 너희가 나의 제자라는 것을 모든 이들이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누가 그분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자신이 속한 교회만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를 독점하고 있다는 생각은 지적인 유아기intellectual childhood의 잔재일 뿐입니다. 오늘날 그 어떤 교파도 기독교 본래의 진리를 혼자서 독차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각각의 모든 교회들이 진리의 능력에 힘입는다면, 비록 모든 복음적 기독교인들 내에서 전적 동의를 얻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

어도 가느다란 실과 같은 정도의 진리의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주장되었던 바, 각 교단들이 자신의 독특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 또한 각자의 뛰어난 점들을 하나로 모아, 실책을 줄이고, 약점을 보완해서 기독교 전체가 만들어 낼 수 있는 가장 뛰어난 능력과 성숙함을 가진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 연합된 교회 하나가 똑같이 또는 보다 더 잘 영적인 돌봄을 베풀 수 있는데도 그 곳에 두 개의 다른 교회가 지속하는 한, 일치를 기원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경쟁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곳에서도 예수님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표면상 한 가족으로 보이는 구성원들이 같은 성만찬 식탁에 앉기를 거부하고, 서로 먼 관계에 있는 것처럼 거리에서 서로를 외면하고 지나간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가진 재원(resources)이, 그것이 물질이든 인력이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아닌 지엽적인 일에 쓰이고 있다면, 이 또한 예수님의 기도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⁹⁹

요한복음 17장 21절이 조직적이고 눈에 보이는 교회의 일치를 가리키고 있다는 해석은 교회연합을 지지하는 매우 중요한 명분이었습니다. 이 본문은 교회연합운동의 “독특한 영성” distinctive spirituality¹⁰⁰을 보여주는 핵심문구가 되었습니다. 연합을 지지하는

99) S. D. Chown, *The Story of Church Union in Canada* (Toronto: The Ryerson Press, 1930), 2-7.

100) C.T. McIntire, “Unity Among Many: The Formation of The United Church of Canada, 1899-1930,” *The United Church of Canada: A History*, edited by Don Schweitzer (Waterloo: Wilfrid Laurier University Press, 2012), 20.

이들은 이 본문을 다방면에, 즉, 기도문과 설교, 연설, 논설 등에 인용하곤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성령의 역사를 보다 잘 드러낼 수 있는 교회”¹⁰¹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각자 자기 교단의 역사적인 정체성과 그에 대한 자부심을 내려놓고 희생할 수도 있음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이 성서본문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Chown은 문자적인 의미에서 이 본문이 반드시 “조직적인 교회연합을 지지하는 것”¹⁰²은 아니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연합을 반대하는 것으로도 이 본문이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Chown 목사와 교회연합 지지자들은 이 본문을 장로교, 감리교, 회중교회, 그리고 지역연합 교회들의 조직적인 연합에 대한 정당한 근거로 보았습니까?

연합의 반대자들도 요한복음 17장 21절이 기독교 교회들 간의 일치를 권하고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Chown에 따르면, 그들은 그 일치가 영적인 일치 a spiritual unity를 가리킨다고 주장하며, 이 본문을 조직적인 연합의 근거로 해석하는 것은 “해석자의 편향성”¹⁰³과대해석만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hown은 이에 대해 교단의 분열을 찬성하는 어떤 근거도 성서에는 없다고 반박하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0-17절에서 교회 안에 분열을 반대하고 일치를 추구했던 것을 인용하였습니다.¹⁰⁴ 여

101) “Congregational Union Meetings,” *The New Outlook* (July 1, 1925), 30.

102) Chown, *The Story of Church Union in Canada*, 2-3.

103) *Ibid.*, 2.

104) *Ibid.*, 3.

기서 그는 주어진 성서본문의 의미가 뚜렷하지 않을 때에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를 사용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토라나 성서의 어떤 본문에서 뜻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그 경전의 다른 본문에 비추어서 해석에 도움을 받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관련된 주제에 대한 성서본문을 해석하는 캐나다 연합교회의 여러 문서에도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어떤 특정한 이슈에 대해 성서가 제시하는 근본적인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 본문에 대해 균형을 맞추거나 그 비중을 경감시키는 데도 사용됩니다.

Chown 목사는 다음으로 눈에 보이는 형태의 일치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치보다 뛰어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그를 비롯한 연합운동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조직적인 연합이 세상 속에서 교회의 전도와 사역에 기여할 효과 때문이었습니다.¹⁰⁵ Chown은 여기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위해 환원적 근거retroductive warrant 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¹⁰⁶ 환원적 근거는 경험에 비추어서 어떤 실천을 이끌어내는 해석 능력에 기반합니다.¹⁰⁷ 이것은 본문에 대한 어떤 해석이 가져올 유익한 점들을 고려함으로써 그 해석을 정당화합니다. 어떤 해석이 가져올 실천과 결과, 유익,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 등을 고려함

105) Ibid., 3-4.

106) Francis Schüssler Fiorenza, *Foundational Theology: Jesus and the Church* (New York: Crossroad, 1986), 306-10.

107) Ibid., 308.

니다. Chown과 그의 반대자들 모두가 관심하고 있던 것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할 것인가였습니다. Chown이 요한복음 17장 21절을 교회연합운동의 근거로 해석한 논점도 이것을 고려했습니다. 즉, 조직적인 교회연합이 보다 효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교회연합을 명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단순히 영적인 일치로만 해석하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원적 근거가 귀납적 또는 연역적인 논거와 같이 논리적인 필연성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두 개의 과학이론이 모두 각자의 증거를 기반으로 서로 경합하는 경우, 또는 두 개의 성서해석이 모두 성서본문을 근거로 서로 경쟁하는 경우에, 환원적 근거가 그들 사이에서 결정을 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근거는 그 자체로서 결정적이지는 않지만, 주어진 본문을 해석할 때 유리한 논점을 제공해줍니다.

Chown목사는 또한 “오늘날 그 어떤 교파도 진리를 독점 할 수 없다”¹⁰⁸고 주장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그것을 온전히 파악하려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다는 것을 시대를 망론하고 모든 기독교인들은 인정해왔습니다. 그러나 계몽주의 시대the Enlightenment 이전의 서구 기독교는 자신들이 이해한 기독교 진리에 대하여 특정한 교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죽이는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교리의 차이가 기독교인들을 수 세기 동안 갈라놓았습니다. 여기에

108) Chown, *The Story of Church Union in Canada*, 6.

진리를 이해하는 특정한 방식이 작용했습니다. 진리가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그로부터 벗어난 것은 유해한 것이고, 공공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잘못으로서 뿌리 뽑혀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계몽주의의 영향과 1800년대 에큐메니칼 운동, 그리고 감리교, 회중교회, 장로교회 등이 경험한 캐나다의 상황에서 Chown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종교의 진리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에 대해 글을 쓰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원자인 것과 모두가 추구해야 할 진리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Chown과 그밖에 연합운동가들은 각 교단들이 가진 진리에 대한 이해는 장점과 약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연합의 목적은 연합에 참여하는 교단들의 장점을 보존하는 동시에 약점들을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종교적 진리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언급하는 Chown의 주장은 어떤 점에서 “배경이론”¹⁰⁹⁾background theory¹⁰⁹⁾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배경이론이란, 다양한 성서해석을 뒷받침 해주는 이론들, 즉 사물의 본질과 인간의 본성, 또는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는데 있어서 배경과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이론들은 인간의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근본적인 원리로서 작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배경이론들 또한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예를 들면, 20세기에는 철저한 인과관계로 a closed causal nexus of cause and effect 사실 또는 진실을 이해하는 자연과학이 서구사회에서 각광을 받았습니다. 이

109) Schüssler Fiorenza, *Foundational Theology*, 310–11.

러한 배경이론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은 현대 교육을 받은 기독교인들에게는 폐기되어야 할 달갑지 않은 구시대 유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이들은 자연과학이 실재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보다 열린 시각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자연과학은 이전에 누렸던 최상의 지위를 상실하고 단지 지식의 한 형태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환경위기 등으로 새로운 문제들이 전면에 나서도록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이라는 개념도 위기에 처한 창조세계에게 밝은 미래를 약속해 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Elizabeth Johnson과 같은 신학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 가득한 확증이 됩니다.¹¹⁰ 이 사례에서 보듯이, 배경이론의 변화가 성서본문에 대한 해석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Chown 목사는 종교적 진리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었고 연합을 반대하는 주장의 이면에 있는 교단에 대한 충성심과 같은 장애를 극복하는데 기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주장했던 요한복음 17장 21절의 해석은 캐나다 연합교회의 정신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신학적인 포용력이라는 전통” tradition of theological inclusion¹¹¹이 캐나

110) Elizabeth Johnson, “Passion for God, Passion for the Earth,” in *Spiritual Question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edited by Mary Hembrow Snyder (Ottawa: Novalis, 2001), 121.

111) Phyllis Airhart, *A Church with the Soul of a Nation* (Montreal/Kingston: McGill-

다 연합교회를 규정하는 특징으로써 자리잡았습니다. Chown을 비롯한 연합운동가들에게는, 다른 개신교인들과 함께 조직적인 교회연합을 이루는 것이 서로 다른 교리전통과 성서해석을 고수하면서 각자의 교단에 집착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Chown 목사는 마지막으로 “어느 한 지역에서 연합된 교회 하나가 똑같이 또는 보다 더 잘 영적인 돌봄을 베풀 수 있는데도 그곳에 두 개의 다른 교회가 지속하는 한, 일치를 기원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¹¹²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는 연합을 지지하는 수 많은 동기와 목적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는 개신교가 캐나다의 영어권 사회의 문화를 형성해나가는 보다 강한 힘을 갖는 것도 그 중 하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이 어떤 동기로 연합을 지지하든,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하나가 됨이 다른 어떤 수단과 방법보다도 하나로 연합된 교회를 통해서 더욱 더 설득력 있게 구현될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다”¹¹³고 증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의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Chown을 비롯한 교회연합 지지자들은 교회연합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인도 신학자 George Soares-Prabhu는 성서해석은 두 가지 중요한 단계를 거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어떤 본문이 쓰여졌

Queen's University Press, 2014), 272.

112) Chown, *The Story of Church Union in Canada*, 6-7.

113) *Ibid.*, 7.

던 역사적인 맥락에서 본문의 의미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은 성서의 역사비평연구를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각각의 성서본문은 그 본문 안에 문장과 작업의 구조와 같은 어떤 일관성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의미의 영역 fields of meaning을 펼쳐준다”¹¹⁴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본문이 담고 있는 의미의 영역을 밝혀내는 것이 다양한 성서비평의 몫입니다. 성서본문에 근거한 어떤 해석이든지 그것이 본문의 독립성과 성서의 권위를 존중한 해석이 되기 위해서는 그 본문이 보여주는 의미의 영역 안에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Soares-Prabhu는 이렇게 의미의 영역을 밝혀내는 것은 단지 성서해석의 첫 번째 단계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다음은 본문이 보여주는 의미의 영역the field of meaning과 그 본문이 해석되는 상황context 사이의 대화dialogue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대화성서해석은 성서본문의 독립성과 성서의 권위, 그리고 성령의 영감에 힘입어 진리를 파악하려는 교회의 상황을 모두 존중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¹¹⁵ 성서본문과 그것을 해석하는 상황의 독립성을 모두 고려하는 대화를 통해서 교회는 세상을 인정하고 세상과 소통하되,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성서해석을 추구합니다. Mary C. Boys는 “성서해석은 본문text과 상황context 사이에, 그리고 고대의 증언과 현대

114) George Soares-Prabhu, *Theology of Liberation: An Indian Biblical Perspective* (Pune: Jnana-Deepa Vidyapeeth, 2001), 29.

115) George Soares-Prabhu, *Biblical Spirituality of Liberative Action* (Pune: Jnana-Deepa Vidyapeeth, 2003), 89.

의 증언들 사이에 대화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협력적인 모험 collaborative venture이 되어야 한다”¹¹⁶ 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의 해석을 둘러싼 연합운동가들과 그것을 반대하는 이들의 논쟁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성서해석의 두 번째 단계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Chown은 이 본문이 담고 있는 의미의 영역 fields of meaning이 반드시 교회연합만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은 보다 넓은 의미의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그 본문 자체가 어떤 특정한 형태의 일치unity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Chown은 이 본문을 읽는 자신의 상황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해석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위에서 우리는 그가 처했던 상황에서 나온 환원적 근거retroductive warrants와 배경이론background theories들이 어떻게 그의 주장에 사용되었는가를 보았습니다. 어떤 본문이 가진 의미의 영역과 그 본문을 해석하는 상황 사이의 대화는 바로 이러한 점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교회연합운동을 지지하는 Chown의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대한 해석은 얼마나 광범위한 요소들이 성서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를 보여줍니다. 온 세계를 보는 관점들이 대화에 참여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복음과 현재상황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 Chown의 이런 성서해석과 주장이 연합을 반대하는 이들을 모두 설득하지는 못했다는 점입니다. 캐나

116) Mary C. Boys, *Biblical Interpretation in Religious Education: A Study of the Kerygmatic Era* (Birmingham: Religious Education Press, 1980), 11.

다 연합교회가 출범한 것은 다른 의미에서는 캐나다 감리교와 회중교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장로교는 연합교회 출범 과정에서 둘로 갈라졌습니다. 이처럼 각 교단들이 뚜렷하게 또는 암묵적으로 지켜왔던 자신들의 전통을 뒤엎는 중요한 결정을 하는 상황, 그리고 자신들이 이전에는 거부했던 것을 받아들이거나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졌던 확신 전통을 버려야 하는 상황에서, 각 개인과 교회들 그리고 교단 전체가 새로운 회심의 경험conversion experience을 하게 마련입니다.¹¹⁷ 성서 주석과 이성적인 주장들이 교단의 형성을 가름하는 그러한 성서해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서로 어긋나는 것으로 여겼던 가르침을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무아지경ecstatic과 같은 종교적 체험그것이 갑작스럽게 오든지 아니면 수년을 걸쳐서 오든지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불신unbelief에서 신념belief으로의 변화와 같은 진리체험의 경험은 결코 단순히 논리적인 추론이나 논쟁, 비판적인 연구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성적인 작업뿐만 아니라, 계시revelation 또는 은혜grace의 차원에서 이러한 진리체험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덕분입니다. Iris Cully도 변화를 추구하는 성서해석에서 이와 같은 진리체험의 순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기독교교육학자인 그녀는

117) Gregory Baum, "The Magisterium in a Changing Church," in E. Schillebeeckx and B. Willems, eds., *Man as Man and Believer, Concilium 21* (New York: Paulist Press, 1966), 79.

계시(revelation)와 함께 성령의 영감(inspiration)을 성서해석에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로 언급합니다.¹¹⁸ 우리가 춤을 출 때 스텝을 밟듯이 성서 해석의 작업은 계시와 영감 사이를 오가는 역동적인 작용이 수반됩니다. 여기서 인간의 내적인 경험과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는 계시의 영역¹¹⁹과 때때로 인간의 내적인 경험에 변화를 가져오는 성령의 인도하심(divine guidance)을 가리키는 영감(inspiration) 사이에서 춤을 추듯이 스텝을 밟으면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관건입니다.

사례#2: 여성 목사 안수 (the Ordination of Women)에 관한
1928년 보고서

두 번째 사례연구로 1928년 위니펙(Winnipeg)에서 있었던 캐나다 연합교회 3차 총회 보고서(the Record of Proceedings) 내용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20세기 초 20년동안 캐나다 감리교와 장로교에서는 여성이 “교단의 모든 의사결정구조에 온전하게 참여할 권리”¹²⁰를 보장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성들도 목사 안수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 시기에 Lydia Gruchy는 사스카툰(Saskatoon)에 있는 장로교 신학교(Presbyterian Theological College)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

118) Iris V. Cully, *The Bible in Christian Education* (Minneapolis: Fortress, 1995), 31-39.

119) Avery Dulles, *Models of Revelation* (New York: Doubleday & Co., 1983). 이 책에서 Dulles는 다섯 가지 계시의 모델을 제시한다: 교리, 성서적 사건의 역사, 내적인 경험, 변증법적 실제,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

120) Mary Hallett, “Ladies – we give you the pulpit!,” *Touchstone* 4/1 (January 1986), 6.

었습니다.¹²¹ 1923년 졸업 후 그녀는 사스카추완Saskatchewan주에 있는 Veregin이라는 곳에서 어린이를 위한 교육목회를 하도록 파송됐습니다. 곧 그녀는 그곳에서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고, 1926년에 Kamsack 노회가 그녀의 목사 안수를 요청했습니다.¹²² 1926년 교단 총회에 이에 대한 안건이 올라갔을 때 “회의장이 발각 뒤집혔습니다. exploded”¹²³

그렇게 강한 반발과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1차 세계대전 후 캐나다의 상황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당시의 사회상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쟁 후 가족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밀착된 가족의 단위가 전쟁으로 파괴되거나 흩어졌습니다. 사실 Lydia Gruchy의 오빠인 Arthur가 같은 신학교 학생이었는데 전쟁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의 죽음은 그들의 가족에게 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여러 신학교에게도 큰 상실이었습니다. “Arthur Gordon Gruchy는 매우 뛰어난 학문적 재능을 가진 젊은이었다… 앞날이 창창한 그의 인생이 국가의 부름으로 짧게 끝나고 말았다… 신학교는 10월 20일 수요일 Frank West의 죽음으로 또 다른 학생을 잃었다.”¹²⁴고 사스

121) 1924년과 1925년 사이에 사스카툰 장로교 신학교에서 세인트 앤드류스 칼리지 (St. Andrew's College) 로 신학교의 이름이 변경되었다. 교회사 교수 Dr. Sandra Beardsall에 따르면 교회연합의 기대 속에서 이렇게 신학교의 이름이 바뀌었다고 한다.

122) Mary Hallett, “Lydia Gruchy, Lydia Gruchy – the first woman ordained in The United Church of Canada,” *Touchstone* 4/1 (January 1986), 20.

123) McIntire, “Unity Among Many,” 29.

124) Report on Synod's Committee on Presbyterian Theological College (Saskatoon: 1915),

카추완 지역회synod에 보고했습니다.

전쟁 후의 상황은 또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면서 전통적인 사회와 가족체제의 붕괴를 가져왔습니다. 사회의 도시화urbanization가 가속화 되고 주요 도시들이 점점 커지면서 농촌과 도시의 격차가 벌어지는 현실도 가정에서 담당해왔던 교육의 역할이 축소하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더 많은 어머니들이 가정을 벗어나 일을 하게 되면서 종교교육을 담당했던 어머니와 가족의 중요한 역할도 줄어들었습니다.¹²⁵ 이처럼 가족의 역할 붕괴는 큰 상실로 여겨졌고, 이 때문에 여성이 집 밖에서 일을 하는 것을 때로는 신앙에 반한 anti-Christian 행위로 여길 만큼 여성의 공적 역할에 대해 교회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교회가 “국가의 양심”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었던 J.R. Mutchmor도 공개적으로 여성이 집 밖에서 일을 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그는 여성의 역할은 어머니로서 가정에만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기독교인의 삶을 가르치는 것이 여성의 역할이었습니다.¹²⁶ 여러 면에서 그는 진보적인 통찰력을 가졌으며, 뛰어난 영향력 있는 연합교회 내 지도자 중의 한 명이었지만, 당시 일어나고 있는 아니 앞으로 일어날 사회의 변화를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1961년에

cited in Patricia Wotton, *with love, Lydia: The Story of Canada's First Woman Ordained Minister* (Friesens, Altona: D & P Wotton, 2012), 24.

125) Airhart, *A Church with the Soul of a Nation*, 182.

126) *Ibid.*, 161-162.

는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캐나다 여성들이 사회적 노동인구에 해당했습니다. 이렇게 가정 밖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존재가 증가되면서 일하는 이들을 정죄시키는 고정관념이 도전을 받기 시작했음을 교회는 인식했습니다.¹²⁷

요약하면, 1920년대에서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사회적 상황에서 교회는 여성이 가정을 벗어나 공공의 영역에서 일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가정을 벗어나 일하는 여성의 역할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사실상 공적인 분야에서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여성을 상상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여성의 목사안수 문제로 1926년 총회가 왜 “폭발했고 회의장이 발각 뒤집혔는지,” Gruchy가 목사로 안수 받기까지 10년이 걸렸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목사안수를 받은 후에도 수 십 년 동안 많은 여성들 특히 결혼한 여성이 목회자가 되는데 어렵고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6년 총회는 여성 목사 안수 위원회(the Committee on the Ordination of Women)를 구성하고 1928년 총회에 보고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¹²⁸ 이 위원회의 보고서는 이 문제에 대해 지역 교회와 노회에서 올라온 제안 등을 간략히 나열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는 여성과 교회 안에서의 공적인 지도력에 관해서 몇몇 신약

127) “Report of the Commission on the Gainful Employment of Married Women,” 259–260.

128) 이 보고서에 담긴 부록과 다른 소보고서를 보려면, *Proceedings*, GC 3, 1928, 362–400.

성서 본문들에 대한 토론을 제공합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를 영적인 측면에서도 동등하게(*spiritually equal*) 여겼다는 것입니다.¹²⁹ 그리고 이와 같은 취지로 갈라디아서 3장 26-28절을 인용했습니다. 여성의 목사안수 문제에 대한 고찰을 이렇게 성서본문에 대한 토론으로 시작함으로써, 본 위원회의 보고서는 성서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성서에는, 심지어 바울이 쓴 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가르침이 있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는 초대교회에서 여성과 남성이 지도력을 행사한 증거를 고린도전서 2장 5절에서 찾았습니다. 한편 고린도전서 14장 34-36절과 같이 바울이 교회 안에서 여성의 목회활동을 제한하는 본문들도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본문들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이 보고서는 뒤에 언급된 본문들 여성의 목회활동을 제한하는 본문들이 혹시 이것만 인용되었을 때에 생길 수 있는 구속력을 삭감시켰습니다. 문제가 되는 어떤 본문의 상대적 중요성 또는 의미를 결정하는 데 성서의 다양한 본문들이 사용되는 또 다른 예가 이것입니다. 때로는 서로 상반되는 관점들이 성서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성서가 가진 모호함(*ambiguity*)을 이 위원회가 인정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수십 년 후에 나온 『성서의 권위와 해석』과 『믿음의 노래』에서 이점이 명백하게 제시 되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성서를 해석하는 능력에서 이 위원회는 당 시대를 앞서갔을 지도 모릅니다. 또는 이

129) UCC, *Proceedings*, GC 3, 1928, 364.

위원회가 특정한 문제에 대해 성서가 계시하는 근본적인 방향과는 다른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듯한 본문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할 지를 보여 줬던 Chown과 Dow를 비롯한 캐나다 연합교회를 세운 앞선 세대들의 성서해석 방식을 충실히 따르며 그들의 표명한 입장과 일치한다고도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이 보고서는 공적인 예배에서 여성이 발언하는 것을 금하는 바울 서신의 본문에 대한 해석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여성 목사 안수 위원회(the Committee on the Ordination of Women) 보고서 (1928)에서 발췌

바울이 여성들의 일정한 목회활동을 제한했던 것은, 교회가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사회적 조건 하에서 정립되어 가는 과정에서 내부의 규율과 질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물론 이러한 가르침이 질서와 규율을 보존한다는 면에서 원칙적으로 맞기는 하지만, 그것은 당시의 시대적인 조건에 관련해서 표현된 것이라고 봐야지, 그것을 현대사회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자유롭게 누리고 있는 완전히 변화된 상황에서도 여성들이 지켜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으로 이해되서는 안될 것이다.¹³⁰

위의 해석은 고린도전서 14장 34-36절과 같은 바울의 가르

130) Ibid. See also Ibid., 377.

침에 대해서 “예”와 “아니오”로 둘 다를 인정하는 쪽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바울의 이 가르침을 교회 안에서 질서와 규율을 보존하는 “불변의 원칙” *enduring principle*으로서 20세기 교회에게도 여전히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보고서는 여성의 지도력과 관련하여 바울이 초대교회를 위해 제시했던 이 명시적인 규칙들이 1928년 캐나다 사회의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까지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는 20세기 서구사회와 문화에서 통용되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다르다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모든 교회 안에서 공유되지는 않았습니니다. 위원회도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배경이론 *background theory*이 변함으로써 성서에서 여성의 지도력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가르침을 유보 또는 파기할 만한 정당성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상황과 배경이론들이 변함에 따라, 특정한 성서 본문들이 갖는 비중과 의미도 변하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여성의 목사 안수에 대한 몇몇 성서 본문의 장벽을 제거했지만, 이 보고서는 여성의 목사안수 문제가 교단 안에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과 여성을 부제/집사 *diaconate*로 임명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여성안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여성의 목사안수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¹³¹ 1936년에 와서야 처음으로 Lydia Gruchy가 여성으로서 이전까지는 남성들이 차지했던 목사의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목사안수에 대한 논쟁은 그 동안에도 계속되었지만 성서 본문을 둘러싼 논쟁은 적었습니다. 1928년 보고서가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배경이론이 변화했다는 점을 들어서 기독교 예배에서 여성에게 공적인 지도력을 부여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특정한 성서 부분들의 권위를 부정했습니다. 반면, 사회에서 성 역할에 대한 이분법적인 이해가 여성의 목사 안수를 받아들이는 데 오랫동안 장애로 작용해왔던 지속적인 요인이었습니다. 물론 성서의 권위는 항상 인정되었지만 그것이 이 논쟁의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캐나다 연합교회가 성서의 권위를 얼마나 존중하는 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로써, 성서 안에 다양한 목소리모호함이 있다는 것을 전형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전체적인 방향과 갈라디아서 3장에 나타난 바울의 가르침을 들어 다른 성서본문에 있는 차별적인 가르침을 상대화시키고 그러한 본문들이 모든 부분에서 속속들이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성서의 중심 메시지로부터 나온 명시적인 가르침에 대한 어떤 자유라고 할 수 있는데, John Dow는 이것이 1940년 『신앙선언』 제 9항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131) Ibid., 366.

볼 수 있습니다.¹³²

이번 사례가 보여주듯, 캐나다 연합교회는 때때로 상당한 복음의 자유^{evangelical freedom} 를 가지고 성서를 해석해 왔습니다. 여기서 ‘복음의 자유’란, 기독교들이 복음에 응답할 때에 기존의 실천이나 믿음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야 할 순간 필요한 자유를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주제였습니다. Chown도 연합교회가 출범하면서 기존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과는 다른 신앙문서를 채택한 것을 옹호할 때에 바로 이 ‘복음의 자유’를 언급했습니다.¹³³

또 중요한 것은 여성의 목사 안수에 관한 이 보고서가 성서 해석을 다루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교회 내 여성의 지도력에 대한 광범위한 역사적 전통연구에 할애했다는 점입니다.¹³⁴ 이 책의 1장에서 언급했듯이, 캐나다 연합교회가 출범하던 당시에 과연 연합교회가 교회의 전통^{church tradition}을 성서해석의 중요한 기준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 또는 인정한다면 어느 정도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교회사에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에서 캐나다 연합교회가 성서를 해석하는데 교회의 전통이 확실히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대해 Shannon Nicole Smythe은 “표준이 되는 유산”^{canon-}

132) John Dow, *This Is Our Faith* (Canada: The Board of Evangelism and Social Service, The United Church of Canada, 1943), 180.

133) Chown, *The Story of Church Union in Canada*, 65.

134) UCC, *Proceedings*, GC 3, 1928, (Appendix I), 374-91.

ical heritage이라는 유용한 개념을 제시하는데, 이것은 판단의 기준을 제공해주는 교회전통의 요소들을 가리킵니다. Smythe에 따르면 “신앙의 규칙”, 성서, 신학, 교회사 뿐 아니라 “모범이 될만한 기독교인들의 일대기 biographies, 그리고 신앙인들의 실제 삶의 경험 real-life experiences”도 영적인 지혜를 주는 권위 있는 규칙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주장합니다.¹³⁵ 이같은 신앙의 유산들은 경험의 해석학a hermeneutics of experience 을 포함하는 여성주의적feminist 성서해석에도 기여했습니다. Elisabeth Schüssler Fiorenza 는 개인적인 경험이면서도 전체 신앙 공동체의 경험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 그리고 특정한 신앙인의 모범적인 삶의 경험들도 성서해석에 필요한 경험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의 경험과 공동체의 경험들도 성서를 해석하고 신학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됩니다.¹³⁶

사례 #3: 1968년 『우리신조』(A New Creed)

세 번째 사례연구는 캐나다 연합교회의 『우리 신조』가 만 들어지는 과정과 연결됩니다. 본 서 1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1960년대는 문화와 종교의 격동기로서 연합교회와 다른 개신교단들

135) Shannon Nicole Smythe, *Women in Ministry: Questions and Answers in the Exploration of a Calling* (Eugene: Cascade, 2015), 1-2.

136) Elisabeth Schüssler Fiorenza, *Sharing Her Word: Feminist Biblical Interpretation in Context* (Boston, MA: Beacon Press, 1998), 77. 여성주의 성서해석학은 상황/맥락에 주의를 기울인다: “지배의 해석학, 의심의 해석학, 진단과 평가의 해석학, 재상상의 해석학, 재구성의 해석학, 그리고 변형과 변화의 해석학.”

이 캐나다 영어권 사회에서 점차 기존의 지위와 영향력을 잃어가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종교 문화적 격동기는 많은 연합교회 교인들이 이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았던 기독교 신앙의 이해와 표현들로부터 일정 정도 결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사도신경the Apostles' Creed과 같은 전통적인 신앙의 표현들을 계속 지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연합교회는 여전히 성서가 갖는 유일한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1965년에 교회의 예배와 예식위원회the Committee on Church Worship and Ritual는 세례예식을 위한 예배 안을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전체 회중이 사도신경을 복창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위원회the Committee on Christian Faith는 이 예배 안에 대해 연구하고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신앙위원회는 사도신경을 대신해서 예배에 사용될 만한 현대적인 신앙 고백을 개발 하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1966년 총회 General Council가 이것을 허락하고 신앙위원회에 위임했습니다.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었지만, 결국 초안이 마련되고 다듬어져서 1968년 총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초안을 제출한 이 보고서는 교회의 신조creed가 갖는 특징을 광범위하게 토론하고, 고대와 근래의 예들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신조가 갖는 네 가지 목적도 언급했습니다. 첫째, “예배에서 사용되기에 적합해야 한다.”¹³⁷ 둘째, “교회가

137) UCC, *Proceedings*, GC23, 1968, 322.

이해하는 중요한 성서의 메시지를 잘 요약해서 담아야 한다.”¹³⁸ 셋째, “범위에 있어서 에큐메니칼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다른 기독교 교회들도 긍정할 수 있는 신앙고백”을 담아야 한다.¹³⁹ 넷째, “세상을 향한 기독교인들의 증언을 굳건하게 하고 영감을 주는 힘을 가져야 한다.”¹⁴⁰ 이 보고서는 아래의 초안을 『우리 신조』로 제안했습니다.

신앙위원회가 제출한 『우리 신조』

인간Man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창조하시며,

화해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참된 인간인 예수님 안에 오셨으며,

우리 안에서, 사람들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분him을 신뢰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의 교회가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임재를 찬양하고,

138) Ibid. 다시 말하면, 신조는 현 신앙의 규칙을 표현해야 한다.

139) Ibid. 이 최종본이 결국 받아들여졌고, 세계교회협의회(WCC)와 다른 에큐메니칼 교단에게도 소개되어 사용되고 있다.

140) Ibid.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정의를 추구하며 악에 저항하라고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삶에서, 죽음에서, 죽음너머의 삶에서 그 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¹⁴¹

위의 초안이 두 번의 개정을 거쳐서 결국은 아래의 내용으로 『우리 신조』가 채택되었습니다.

『우리 신조』 A New Creed

인간Man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창조하시며,
화해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참된 인간인 예수님 안에 오셨으며,
우리 안에서, 사람들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분him을 신뢰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의 교회가 되도록 부르십니다:
그분의 임재를 찬양하고,

141) Ibid., 322-23.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정의를 추구하며 악에 저항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심판자와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라고 부르십니다.

삶에서, 죽음에서, 죽음너머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¹⁴²

위의 초안은 구조와 어법에서 많은 부분이 1968년 캐나다 연합교회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채택된 『우리 신조』와 매우 가깝습니다. 하지만 초안에는 예수님을 “참된 인간^{the true Man}”¹⁴³으로만 언

142)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산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창조하시며,
화해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안에 오셨으며,
우리 안에서, 사람들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라고 부름 받았다,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우주 만물을
존중하며 살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정의를 추구하며 악에 저항하고, 십자가에 달리
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심판자와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라고 부르
신다.
삶에서, 죽음에서, 죽음너머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143) UCC, *Proceedings*, GC23, 1968, 322.

급했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연합교회 일부 교인들에게는 확실히 긍정하기 어려운 기독교 신앙의 부분들 중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비종교적인 언어로 세상을 인식하고, 세계를 인간의 힘으로 탐험하고 상호작용하며,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비인격적인 질서 an impersonal order와 같은 것으로 바라보는 근대 서구사회의 세계관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¹⁴⁴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처음 고백했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세계관입니다. 후자의 세계관에서 통용되는 전제 a working assumption는 지금 현재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듯이, 죽은 사람은 역사 속에서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대에는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사역으로 펼쳐진 창조물로 여겼습니다. 오늘날 서구사회의 세계관은 이렇게 세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열려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전보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조』는 다른 한편으로 높은 도덕적 기준들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합당하게 살도록 하는 강력한 윤리적 원동력이 없이는 온전히 지키고 고백하기 어려운 기준들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부활신앙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실패, 그리고 죄와 죽음의 권세 앞에

144) Charles Taylor, *A Secular Age* (Cambridge, MA: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294.

서도 희망을 주는 강한 정신적 원동력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우리 신조』의 초안은 예수님의 영이 사람들 가운데서 강한 정신적 원동력으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모호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원주민 기숙학교의 역사가 그 실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초대교회와 이후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독선적인 열광주의self-righteous fanaticism나 절망에 빠지지 않으면서 역사의 모호함ambiguity과 계속 씨름하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연합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인의 과거 역사적 정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그들의 도덕적 힘을 갖게하는 원동력 moral empowerment과 영성에 없어서는 안될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위의 초안이 교단 총회에 제출되었을 때에, 이 초안은 해당 위원회가 밝혔던 『우리 신조』가 가져야 할 덕목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요건에 대해 불충분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토론 이후에 “『우리 신조』의 초안을 기독교 신앙위원회로 회부해서 그 위원회가 다시 초안을 작성하되, 우리 시대를 위한 기독교 복음에 더욱 합당한 내용을 추가해서” 총회 실행위원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¹⁴⁵ 다양한 비판과 제안들이 그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의 9월 모임 회의록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언급이 빠

145) UCC, *Proceedings*, GC23, 1968, 56.

저있음을 인식했다”¹⁴⁶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1968년 10월 21일에 다시 모였을 때 위원 중 한 명인 Donald Evans는 『우리 신조』 초안의 모든 항목에 대한 주석과 함께, 그 초안 전체에 대한 저명한 가톨릭 사회윤리학자인 Gregory Baum의 논평을 가지고 왔습니다.¹⁴⁷ Baum은 자신의 논평을 저널의 논설에도 실었는데, 거기서 그는 이 초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언급하지 않고 생략했다고 두 번이나 지적했습니다.¹⁴⁸ Baum은 또한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고, 기독교인들을 회개하도록 부르시며, 이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하나님의 말씀the Word of God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¹⁴⁹ 이 초안에는 복음이 서구사회의 현대적 감각에 너무 많이 순응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위원회는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쳤는데, 그 가운데 이 문장이 추가되었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심판자와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라고 부름 받았습니다.”¹⁵⁰ 이렇게 개정된 안이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후로도 두 번의 개정을 거친 후 캐나다 연합교회

146) Quoted from William Houghton, “The Genesis and Evolution of A New Creed in the United Church of Canada,” *Historical Papers 2011: Canadian Society of Church History*, 11.

147) Ibid.

148) Gregory Baum, “A New Creed,” *The Ecumenist* 6/5 (July–August 1968), 166–7.

149) Ibid., 167.

150) Houghton, “The Genesis and Evolution of A New Creed in the United Church of Canada,” 11–12.

의 신조로 확실히 자리잡았습니다. 그 두 번의 개정은 여성주의적 feminist 관점의 영향으로 하나님God과 3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양성평등의 언어로 바꾸고, 신분계층의 위계를 내포하는 hierarchical 용어 예. 왕국, 주님 에 대한 개정이었습니다.¹⁵¹ 1920년대 이후 제기되어왔던 여성의 목사안수 문제와 그 밖의 양성평등 이슈들이 『우리 신조』1968년 최종본을 탄생시킨 1960년대의 교단의 신학적 입장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서의 권위와 해석에 대한 연합교회의 입장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이 경우에는 어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근대 서구사회 세계관의 영향력을 성서가 밀어내는 모습입니다. 『우리 신조』는 1960년대의 변화된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캐나다 연합교회를 위한 복음을 요약하려고 했습니다. 사도신경과 비교할 때, 『우리 신조』는 동정녀 탄생의 부분은 덜어내고, 정의와 평화를 위한 기독교인들의 사회참여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채택한 『우리 신조』는 단순히 복음을 서구사회의 근대성에 순응시키지 않았습니다. 신약성서의 구원론에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이 신조의 탄생 과정에서 현대 서구사회 세계관의 권위를 압도했습니다. 몇 년 후 Dorothee Sölle는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 신앙

151) 북미에서 성과 언어의 문제를 언급한 초기 책들은 Alleen Pace Nilsen, Haig Bosmajian, H. Lee Gershuny, and Julia P. Stanley, eds, *Sexism and Language* (Urbana: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 1977). 셸리 맥페그는 신학자로서 처음으로 종교적 언어와 하나님의 성 문제에 대해 고찰했다. *Metaphorical Theology: Model of God in Religious Language* (Philadelphia: Fortress, 1982). 예배학에서는 1990년대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한 예로 Ruth Duck, *Gender and the Name of God: The Trinitarian Baptismal Formula* (New York: Pilgrim Press, 1991).

과 정의평화를 위한 기독교인의 참여에 중요하다고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부활사건을 이야기하는 데서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표현된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다. 이것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메시지를 되어왔다. 그것은 기독교 증언의 핵심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고립되고 소외된 삶의 궁극적인 화해, 그리고 죽음과 불의에 대한 승리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것은 최종적인 해방이다.¹⁵²

『우리 신조』는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되 그것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위한 여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기독교의 희망과 깨달음의 중심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점은 확증했습니다.

뒤돌아 보면 1960년대의 급격한 시대변화로 일부 연합교회 교인들이 윤리와 지성의 온전 moral and intellectual integrity을 명목으로 자기 세속 self-secularization 과정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¹⁵³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떼어버린 도덕적 완결the moral integrity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신조』가 말하는 높은 도덕적 기준들

152) Dorothee Sölle, "Resurrection and Liberation," in *Border Regions of Faith: An Anthology of Religion and Social Change*, edited by Kenneth Aman (Maryknoll, NY: Orbis Books, 1987), 506.

153) 이에 대한 사례를 보려면, *A New Creed* offered by John Burbidge in "A Creed," *The United Church Observer* (1 February, 1969), 18, 30.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주는 초월적인 정신적 원동력 없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세속적인 이성도 그것이 냉소주의나 편협한 자기 이익에 빠지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종교적 신념이 주는 도덕적 원동력^{the moral impetus}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도외시하는 지성의 온전함^{intellectual integrity} 또한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초대 기독교 신앙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 무언가가 벌어졌다는 것을 가정해야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신약성서의 증언이 이것에 대한 가장 만족할 만한 설명을 제시합니다. 역사가들이 보통의 경험과는 전혀 유사점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을 긍정하지 않고 풀 수 없는 수수께끼로 남겨놓는 이 지점에서 기독교인들은 부활의 신비를 고백합니다.

이번 사례연구는 교회의 “신앙의 규칙”이 되는 문서로서 신조의 본질을 설명해줍니다. 모든 시대의 교회는 시대를 뛰어넘는 성도의 교제^{the communion of saints}에 참여합니다. 물론 “신앙의 규칙”은 교회가 처한 상황이 변함에 따라 시대마다 변하기 마련이지만, 동시에 모든 시대와 지역을 망라해서 기독교 정체성에 없어서는 안될 일관된 것들이 있습니다. 캐나다 연합교회는 이 점을 『연합의 원리』 교리 서문에서 밝혔습니다. 즉, 본 교단의 교리적 선언은 고대교회의 신조들과 종교개혁의 복음주의 전통 등과 연속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1940년 『신앙선언』과 2006년 『믿음의 노래』의 서문에서도 이 같은 점을 밝혔습니다. “신앙의 규칙”이 성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교회가 어떻게 이해하는 지를 밝히고, 각 시대의 변화 속에서 성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지를 안내하는 한편, 또한 본질적인 신앙의 고백들, 간략히 열거하긴 어렵지만 기독교 신앙 고유의 본질이며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는 한 포기할 수 없는 신앙고백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이 신앙고백들 중 하나입니다.

위의 두 번째 사례연구인 여성의 목사 안수에 대한 1928년 총회 보고서의 성서해석은 성서의 특정한 가르침에 대해 교회가 갖는 복음의 자유-evangelical freedom를 보여주었습니다. 사회적 시대의 변화로 인해 기존의 특정한 가르침들이 더 이상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우리 신조』의 탄생 과정은 어떻게 성서의 권위가 때로는 교회의 성서해석에 영향을 주는 특정 시대적 세계관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것을 교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복음은 교회가 물려받은 전통과 신앙의 이해, 그리고 교회가 놓인 사회의 세계관에 관련해서 복음의 자유를 갖도록 해줍니다. 이 세 번째 사례와 두 번째 여성의 목사안수 사례와 같이, 캐나다 연합교회는 때로 현대의 세계관이 갖는 영향력을 넘어서는 성서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물론 캐나다 연합교회는 다른 형태의 지식과 경험들이 갖는 권위를 인정하지만, 신앙고백적 정체성에 관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성서의 최고 권위를 인정합니다.

결론

이번 장에서 살펴본 세 가지 사례연구는 캐나다 연합교회 교단 전체의 삶에서 성서의 권위가 어떠한 역할을 해왔고 성서가 어떻게 해석되어 왔는가 하는 실례들을 보여줍니다. 본 사례연구를 통해서 캐나다 연합교회 안에서 성서가 중요한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캐나다 연합교회 출범 당시의 첫 번째 사례는 궁극적으로 4개 교단의 연합이라는 굉장한 변화far-reaching change를 가져오는데 성서가 어떻게 정당한 근거를 제공했는지를 증명해줍니다. 여성의 목사 안수에 대한 두 번째 사례연구는 과연 굉장한 사회적 변화가 캐나다 연합교회의 교회적 실천에서 어떻게 소화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맥락 안에서 성서의 권위가 고려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사례는 『우리 신조』를 통한 교회의 신앙 고백에 어떻게 성서가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캐나다 연합교회에서 성서는 전통적 권위를 가지는 동시에 새로운 영감을 주는 카리스마적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각 사례에서 캐나다 연합교회는 성서가 갖는 전통적 권위를 인정하고 성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또 한편 성서는 이전의 해석과 실천들을 초월해서overriding 새 시대에 걸 맞는 교회가 되어 새로운 일을 해나가도록 힘을 실어주고 새로운 것을 보여주는 권위가 있습니다. 성서의 권위는 서로 다른 교단들이 모여 하나의 새로운 교단으로 연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고, 여성의 목사 안수가 반드시 성서의 가르침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

라는 점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렇게 지속해서 새로운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성서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교회가 과거에만 묶여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서는 교회가 새로운 일들을 하도록 권한을 줍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때로는 교회가 과거의 전통, 즉 성서에 대한 신실함을 유지하기 때문에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장의 사례연구들은 캐나다 연합교회에서 성서의 권위는 좀처럼 일방적으로 한쪽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캐나다 연합교회에서 성서는 교회의 상황과 사회적 맥락 둘 다를 고려하면서 해석됩니다. 특정한 성서 본문의 뜻과 중요성은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가진 배경이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연구는 캐나다 연합교회에서 성서본문은 다양한 성서비평학을 통해 밝혀지는 그 본문이 가진 의미의 영역에서 해석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의미의 영역은 다시 이 책의 3장에서 다룰 “성서의 일반적이고 일관된 방향(*general tenor of Scripture*,” 그리고 성서가 읽혀지는 현 상황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성서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적용할 점을 찾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단계를 거쳐서 결정됩니다: 먼저 성서의 다른 본문들과의 관계에 비추어서 그 본문이 가지는 의미의 영역을 정하고 비중을 따지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찾은 의미의 영역이 지금 현재의 상황과 대화를 하는 단계입니다. 이 세 번째 사례연구가 보여주는 것은, 어떤 본문이 가지는 의미의 영역 또는 성

서의 일반적이고 일관된 방향이 갖는 의미의 영역이 매우 넓다 하더라도 그 한계는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교회의 신앙고백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연합교회에서는 성서의 권위가 어떤 본문의 문자적인 의미를 강조하는데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본 사례연구가 보여줍니다. 오히려 권위는 성서의 일반적이고 일관된 방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이 교회의 연합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공동의 구호가 되었지만, 이 본문에 권위가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일치unity 라고 하는 신약성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표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캐나다 연합교회에서 성서의 권위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성서가 어떻게 해석되어 왔는가 하는 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성소수자들sexual minorities에게도 목사 안수를 받을 자격을 인정하는 본 교단의 정책을 둘러싸고 캐나다 연합교회와 에큐메니칼 파트너 교단들 사이에 일어난 긴장갈등 상태를 다루기 위해 작성된 최근 문서에서 캐나다 연합교회가 이 점을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제 3 장

『완전한 포용을 향한 움직임』 안에서의 성서의 권위와 해석

2010년 『완전한 포용을 향한 움직임』 *Moving Toward Full Inclusion*: 캐나다 연합교회의 성정체성¹⁵⁴ 라는 문서가 출판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연합교회 안에 있는 성소수자의 위치와 관련하여 캐나다 연합교회와 몇몇 지구적, 지역적 및 에큐메니칼 파트너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긴장 갈등들을 다루기 위해 출판되었습니다. 캐나다 연합교회 역사상 가장 격렬한 논쟁이 있었던 대략 8년간의 긴 토론이 지난 후, 1988년 제32차 총회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들의 성정체성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과 그에 대한 순종을 고백하는 사람은 캐나다 연합교회의 일원 혹은 정회원이 될 수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그들은 목사 안수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¹⁵⁵ 이 결정은 일부 캐나다 연

154) *Moving Toward Full Inclusion: Sexual Orientation in The United Church of Canada* (Toronto: The United Church of Canada, 2010).

155) *Ibid.*, 2.

합교회 에큐메니칼 파트너들에게 긴장 갈등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후 공개적으로 성소수자임을 밝힌 캐나다 연합교회 교인들이 파트너 교회들과의 업무에서 캐나다 연합교회의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때때로 일부 파트너들 교회에서 지구적 및 지역적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캐나다 안에 있는 다른 교단들과 해외에서도 성소수자의 위치에 관한 논쟁이 계속되거나 새롭게 제기되었습니다.

『완전한 포용을 향한 움직임』은 이 문서가 어떻게 교리와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었는지, 이 문서가 교회 안 성소수자의 위치와 관련되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문서가 gender, 성적체성(sexual orientation)과 결혼에 관해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한 캐나다 연합교회의 입장을 전달함으로써 이러한 긴장 갈등들을 다루고 이 논쟁들에 대해 말하려고 쓰여졌습니다. 이 문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파트너 교회들과 대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¹⁵⁶

이 문서의 첫 장 제목은 “우리는 누구이며 어떻게 일하는가”입니다. 이 문서의 결론 장은 캐나다 연합교회가 성서의 권위와 해석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목이 드러내듯이, 교단 정체성에 관한 토론의 분량과 위치는 성소수자들(sexual minorities)이 한 부분을 차지하는 캐나다 연합교회의 성서 이해가 교단 정체성을 구성하는 결정적인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156) Ibid., 4.

성서 권위에 대한 캐나다 연합교회 이해

『완전한 포용을 향한 움직임』 p. 8-10

우리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감리교 창시자들에 의해 전해진 방법 중의 하나로 John Wesley가 주장한 4가지 신앙의 권위 Quadrilateral에는 성서, 전통, 경험, 이성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포함한 성서는 하나님 진리의 근원입니다. 그러나 전통, 경험, 이성은 우리가 성서를 해석하고 진리를 드러내는 것을 도와줍니다.

“전통”은 성서가 쓰여진 시대로부터 현재까지의 기독교 사상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성서 안에 들어있는 진리를 더 많이 알게 되면서 우리가 그러한 지식을 우리의 이해에 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로 “전통”은 개인적으로 살아있는, 기독교인으로 변화되는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부딪치게 되는 경험들은 과거의 가르침에 대한 의문들을 제기합니다. “이성”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경험을 전통과 성서 해석에 연결합니다. 이성是我们에게 가능한 모든 자원들, 역사, 과학, 철학, 문화, 정치, 다문화 현상 등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들 세가지 전통, 경험, 이성 권위는 성서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데 있어 주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간 연구들을 보면 각기 다른 시대에 세가지 중 하나가 우선하거나 다른 것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1992년에 나온

캐나다 연합교회 문서, 『성서의 권위와 해석』을 보면, Wesleyan 4
가지 권위가 언급되었지만 “전통”과 “이성”은 각각 “유산”과 “이
해”로 언급되었습니다.¹⁵⁷

1925년 당시 캐나다 연합교회를 만든 3개의 교단들은 성서
의 영향력, 권위, 중요성을 모두 인정하였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
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넓은 의미
에서 볼 때 회중Congregational 교인들에게 성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
한 권위적인 증언”이었고, 감리교인들에게 성서는 “기독교 교리의
우선적인 자료”였으며, 장로교인들에게 성서는 “그리스도에 대해
유례없는, 그러나 시대의 믿음을 반영하는 인간의 언어 안에 있는
증언”이었습니다.¹⁵⁸

캐나다 연합교회 안에서의 반대의 목소리 중, 첫 번째 “갱
신 운동-renewal movement” 협회그룹 신학 정통에 대한 헌신을 재확인한다는
의미에서의 갱신은 1966년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부분적으로 성서의
권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Laurie-Ann Zachar는 온타리오 신학교Ontario Theological Seminary 논문
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57) Theology and Faith Committee for the General Council of The United Church of Can-
ada, *The Authority and Interpretation of Scripture* (Toronto: United Church Publishing
House, 1992).

158) Scott Douglas and Nanette McKay, eds., *The (Un)Official United Church Handbook*
(Toronto: United Church Publishing House, 2007), 78-81.

“교회와 주변 문화에서 자유주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성서와 교회의 권위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1964년 어린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신학적으로 더욱 깊이 있는 캐나다 연합교회 교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교육교재로 채택된, 오래된 자유주의 신학 훈련으로 인해 비롯되었다.”¹⁵⁹

캐나다 연합교회 갱신협회 The United Church Renewal Fellowship는 교회가 성서의 권위와 『연합의 원리』에 대해 어떻게 봐야 할지 설명하도록 돕는 것이 자신들의 우선 목표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갱신협회는 또한 『새로운 교과과정』이 목회자들이 성서를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거나 성서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기 보다는 성서를 비판적으로 보도록 수년간 교육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¹⁶⁰

두 번째 갱신 운동 그룹 역시 성서의 권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1974년 Graham Scott박사를 비롯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교회” Church Alive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회원들이 캐나다 연합교회 갱신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Scott 박사는 “갱신협회가

159) Laurie-Ann Zachar, “The Renewal/Reform Groups of the United Church of Canada: The Spirit of Methodism,” *Ontario Theological Seminary*, December 11, 1997. Retrieved March 2, 2009, from www.igs.net/~tonyc/ucrenewal.html.

160) Lloyd G. Cumming, *The Uncomfortable Pew: Committed to Renewal* (Barrie: UCRF, 1990), 25.

성서를 무오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는 데 자신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¹⁶¹ 이렇게 두 개의 갱신 그룹은 캐나다 연합교회의 결정과 태도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 있어 성서는 절대적이고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성서의 권위와 해석』은 1985년 교단 신학과 신앙 위원회에 의해 시작된 작업의 마지막 결과물입니다. 위원회는 1988년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를 받고 전 교인들이 함께 연구하게 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이후 같은 총회에서, 성정체성, 생활과 목회의 기독교 이해를 위한 보고서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맨 처음 동의안은 우리의 성서 읽기에 영향을 주는 신학적 문화적 전제편견에 대해 전국적인 연구를 하자는 동의안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우리의 문화, 우리의 국가, 그리고 우리의 지구를 위한 좋은 소식으로써 우리 시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라는 질문들이 전국 교회에 전달되었습니다. 15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교인들이 속한 그룹과 캐나다 연합교회 교인들로부터 1200개 이상의 답변들이 제출되었는데, 이 답변들은 “그렇다면 성서는 어떤 권위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고, 그 권위는 우리를 위해 어떻게

161) Michael Riordan, *The First Stone: Homosexuality and the United Church* (Toronto: McClelland and Stewart, 1990), 35.

나타나는가?”¹⁶²에 대해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가 “성서가 말한다”라고 읽거나 듣거나 말할 때, 우리는 해석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한 사람의 독자나 공동체는 성서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 하는가에 따라서 성서 권위에 대한 질문은 특정한 해석자의 권위에 대한 질문과 서로 얽히게 된다. 권위가 서로 얽히게 된 것은 피할 수 없다. 오히려 이 문제는 우리가 권력과 권위에 대해 토론할 때 항상 기억해 두어야 한다.¹⁶³

1992년 우리가 보고서를 수용했을 때, 제34회 총회는 아래의 통찰insights을 교회에 제공하였습니다.

- 성서와 씨름하는 것은 기독교 공동체에게 있어서 선택 사항이 아니다.
- 우리가 성서를 받아들일 때 이해할 때, 개인적이며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고유한 민족/공동체/가족 등 이런 정황에 깊이 영향을 받고 그 정황을 반영하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 우리가 어떻게 성서를 해석하는 지는 어떻게 우리가 사는가 삶의 모습으로 거의 분명하게 드러난다.

162) *The Authority and Interpretation of Scripture*, 2-3.

163) *Ibid.*, 11-12.

- 해석은 우리가 성서를 읽는 중에 불가피하다.
- 각각의 해석은 새로운 해석들로 초대하고 온 세상과 계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새로운 통찰들에게로 초대한다.¹⁶⁴

모든 사람이 이 새로운 문서를 환영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991년 조직된 전국언약교회동맹(The National Alliance of Covenanting Congregations, NACC)은 웹사이트에 아래와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캐나다 연합교회가 만든 『성서의 권위와 해석』 문서가 그것이 기초하고 있는 신앙을 손상시키고 있음을 발견한다. 이 문서는 성서를 다른 책들 중의 한 책으로 서술하고, 일반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어하는 권위만을 부여함으로써 신앙을 손상시키고 있다. 이 문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로부터 우리가 따라야 하는 뛰어난 모범을 보여 주는 돌봄과 사랑의 사람으로 축소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서가 우리 신앙의 중심 과제들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파괴적이라고 생각한다.¹⁶⁵

웨슬리가 주장한 4가지 신앙의 권위를 담은 원리 이하 4권위에 대한 토론과 성서가 캐나다 연합교회에서 어떻게 이해되는지에

164) *Record of Proceedings of the 34th General Council*, 1992, 109.

165) National Alliance of Covenanting Congregations, "Authority and Interpretation of Scripture." Retrieved March 2, 2009, from www.unitedrenewal.org/issues_and_topics/authority_and_interpretation_of_scripture.html. Used with permission . ,

대해 몇몇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그룹들로부터 나온 반대 의견들은 캐나다 연합교회 안에서 성서의 위치를 점검하는데 있어 주목할만한 점입니다.

웨슬리 4 권위 (The Wesleyan Quadrilateral)

이 권위는 감리교 전통의 한 부분으로써 캐나다 연합교회에서 의사 결정을 돕는 하나의 도구로 이해됩니다.¹⁶⁶ 4권위로 해석되는 “Quadrilateral”라는 용어는 John Wesley에 의해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¹⁶⁷ 이 용어는 Albert Outler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그는 Wesley가 주장하는 신학적 방법론을 서술하기 위해 이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Outler에 의하면, Wesley 안에서 독특한 신학적 방법을 볼 수 있는데, 이 방법은 우위적 권위의 규칙으로 성서가 전통, 이성, 기독교 경험과 서로 만나면서 성서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데 있어 서로 역동적인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¹⁶⁸

Wesley 4권위라는 개념은 캐나다 연합교회 전통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신학 활동의 한가지 방법으로 1980년대에 캐나다 연합교회 안에서 재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¹⁶⁹ 그러나 이것은 Wesley

166) *Moving Toward Full Inclusion*, 8.

167) Albert Outler, “The Wesleyan Quadrilateral – in John Wesley,”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20/1 (Spring 1985), 16.

168) *Ibid.*, 9.

169) Robert Fennell, “How Does The United Church Interpret the Bible? Part II 1950s–1990s: Tradition and Liberation,” *Touchstone* 26/3 (September 2008), 34–5.

가 신학을 연구할 때 성서가 가지고 있는 우선권을 축소한 것처럼 때때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¹⁷⁰ 『완전한 포용을 향한 움직임』은 진리와 전통, 이성과 경험이 성서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고 성서가 이들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Wesley의 방법에 충실합니다.¹⁷¹

Wesley에 있어 성서는 진리의 유리한 근거와 규범이 아니라 “우선적인 진리”입니다. Wesley에게 있어 전통은 종속적인 규범 norm입니다. 그는 성서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 기독교인들의 통찰력에 의해 “조명”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¹⁷² 그러나 새로운 성서 읽기는 전통을 뒤엎을 수도 있습니다. Wesley는 성서의 “일반적이고 일관된 방향”이 현대적인 의미를 요구한다고 생각할 경우, 전통과 충돌하거나 전통을 뒤로 물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Outler에 의하면, Wesley는 이성의 사용에 있어서 “원칙적이면서 동시에 실용적”입니다.¹⁷³ 그는 이성의 한계들을 인정했습니다. Wesley에게 있어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지식은 이성의 성취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로 옵니다. 이성은 성서를 해석하고 계시적인 통찰력을 실천하는데 있어 주된 역할을 합니다. Wesley는 과학과 문화의 통찰력을 존중했습니다. 그러나 이성은 스스로 조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Wesley는 바로 여기에 경험의 역할이 있다고 보았

170) Harold Wells, “The Making of the United Church Mind No. II,” *Touchstone* 8/1 (January 1990), 21–2, 27.

171) *Moving Toward Full Inclusion*, 8.

172) Outler, “The Wesleyan Quadrilateral – in John Wesley,” 11.

173) *Ibid.*, 15.

습니다. 경험은 초월적인 진리와의 만남을 중재하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 하나의 권위였습니다. Wesley가 우선적으로 주장했던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현실을 만나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 세계 안에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Wesley에게 있어 경험은 누군가가 어떤 것에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감정들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직감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다른 것들과 비교해도 뒤지 않을 만큼의 많은 해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Wesley 4권위는 성서가 배경 이론과 귀납적 근거의 빛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그리고 이전 장에서 토론되었던 교회의 교리적 유산에 어떻게 관심을 기울이는지 설명하는 방법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적절하게 이해될 경우, 이 방법은 캐나다 연합교회가 지난 역사 동안 어떻게 성서를 전형적으로 해석했는지를 기술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Samuel Chown이 요한복음 17:21을 연합주의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해석할 때, 1928년 여성 안수에 대한 보고서의 성서 해석에서, 그리고 『우리 신조』를 만드는데 기여했던 토론들에서 이 4권위가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례들에서 성서와 기독교론에 주어진 우선적인 지위는 Wesley의 신학 접근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강조점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학이 캐나다 연합교회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Wesley 4권위는 캐나다 연합교회 성서 해석에 있어서 전통이 종속적이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기준이

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인정했습니다. Wesley 4권위는 연합 현장의 교리 부분 서문과 여성 안수에 대한 보고서에 기록된 교리 역사와 교회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암시되어왔던 것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전통은 캐나다 연합교회 성서 해석에 있어 상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전통은 구절의 의미에 빛을 비추고 그것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여러 제안들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역할 인정은 전통과 단절하는 새로운 성서 읽기에 장벽을 만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21에 대한 Chown의 연합주의 해석과 1928년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한 보고서』 *Report on the Ordination of Women*에 들어 있는 교회에서 여성들이 잠잠할 것을 요구하는 구절들에 대한 해석이 보여주는 것처럼, 전통과 단절하는 새로운 성서 읽기가 캐나다 연합교회에서 인정받았습니다. Wesley 는, 예를 들어, 노예 제도에 반대하기 위해 때때로 교회 전통과 심지어는 성서의 특정 구절을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하기도 했습니다. Wesley 시대의 다른 기독교인들은 노예 제도가 성서에 의해 합법화 되었다는 근거로 노예 제도를 옹호했습니다. 그러나 Wesley 에 의하면, 비참한 노예 제도와 그것이 일으키는 비인간화가 과거에 인정되었다면, 노예 제도에 대한 반대는 “복음의 일반적이고 일괄된 방향”¹⁷⁴에 의해 현 시대에 새롭게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포용을 향한 움직임』은 전통, 경험, 이성이 “성서

174) Wells, “The Making of the United Church Mind - No. II,” 26-7.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구할 때”¹⁷⁵ 각각의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시기에 이 세 권위들 중 하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또한 주목합니다.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한 보고서』¹⁷⁶가 그 예가 될 수 있는데, 이 보고서는 Lydia Gruchy가 인도한 예배에 참석한 노회원들의 경험이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하지 않는 캐나다 연합교회의 정책을 바꾸도록 요청하는데 효과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한 보고서의 발견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성을 남성과 영적으로 동등하게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에서의 여성의 위치와 관련된 새로운 배경 이론 안에 있는 경험과 이성(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특정한 성서 구절의 특정한 가르침이 더 이상 교회에서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완전한 포용을 향한 움직임』은 Wesley 4권위에서 볼 때, 성서가 전통, 이성, 경험의 도움을 받아 성서를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도달하는 신적인 진리¹⁷⁷의 근원이라는 것을 주목합니다. 전통은 성서적 기독교 이후의 역사적 경험을 담은 사상으로 규정됩니다. 경험은 본질에 있어서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입니다. 이성은 지식의 다양성을 포함합니다. 전통은 우리의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전통은 정적인 현

175) *Moving Toward Full Inclusion*, 8.

176) UCC, *Proceedings*, GC 3, 1928, 364.

177) *Moving Toward Full Inclusion*, 8.

실고착된 내용이 될 수 없습니다. 때때로 답답하고 구시대적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전통은 현재 상황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탄력성이 있게 하고 새롭게 합니다. 경험은 전통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성(은 전통과 성서의 가르침에 대해 경험을 연관시키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그러나 경험이 전통이나 전통들에 의해 어느 정도는 항상 영향을 받고, 이성이 여러 종류¹⁷⁸의 믿음이나 신앙에 의해 항상 만들어진다는 중요한 점이 여기에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전통적이지 않은 경험은 없고, 전통은 우리가 다른 곳에서 가질 수 없는 어떤 경험들을 갖게 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종류의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이성은 없고, 믿음은 다른 방식으로는 이해하기 불가능한 것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게 해 줍니다.

『완전한 포용을 향한 움직임』은 연합에 참여한 3개의 큰 교단들이 성서의 권위를 모두 인정했다는 점을 주목합니다. 그 이후 지난 50년 동안 캐나다 연합교회 안에 두 개의 반대 그룹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캐나다 연합교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성서 권위에 대한 존경을 캐나다 연합교회가 버렸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1992년 캐나다 연합교회 문서 『성서의 권위와 해석』에 대한 우려로 옮겨졌습니다. 그들은 이 문서가 만들어진 과정과 이 문서가 교회에 제공한 다섯 가지 주요 관점을 관

178) Gregory Baum, *Fernand Dumont: A Sociologist Turns To Theology* (Montreal/Kingston: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2015), 12-13.

찰했습니다. 1) 성서와 씨름하는 것은 기독교 공동체에게 있어서 선택 사항이 아니다, 2) 성서를 받아들일 때 이해할 때, 개인적이며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고유한 민족/공동체/가족 등 이런 정황에 깊이 영향을 받고 그 정황을 반영하는 해석을 할 수 밖에 없다, 3) 우리가 어떻게 성서를 해석하는 지는 어떻게 우리가 사는 가 삶의 모습로 거의 분명하게 드러난다, 4) 해석은 우리가 성서를 읽는 중에 불가피하다, 5) 각각의 해석은 새로운 해석들로 초대하고 온 세상과 계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새로운 통찰들에게로 초대한다.¹⁷⁹⁾

『완전한 포용을 향한 움직임』은 1991년 연합교회 안에서 만들어진 세 번째 반대 그룹, 전국 언약 교회 연맹의 웹사이트에 있는 글을 결론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이 반대 그룹들은 『성서의 권위와 해석』이 성서의 권위를 상대화 하였다고 비난했습니다. 『완전한 포용을 향한 움직임』 문서는 결론 없이 끝을 맺습니다. 다른 장들과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이 장의 내용과 관련된 몇 개의 성서 구절, 일화, 몇 개의 결론적 질문들이 있습니다.

분량과 위치에 있어서 이 첫 번째 장은 성서의 권위가 캐나다 연합교회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장은 이 문서에 대한 교회 만족도와 관련하여 매우 조직된 반대가 지난 50년 동안 있었다는 것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장은 일반적인 수준에서 성서에 대해 말할 뿐입

179) *Moving Toward Full Inclusion*, 9.

니다. 즉, 구체적인 논거가 부족합니다. 캐나다 연합교회에 의해 만들어진 이전 선언들은 대체로 성서적 증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최고점에 이른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믿음의 노래』는 이 점을 암묵적으로 제안합니다. 『완전한 포용을 향한 움직임』은 어떻게 성서가 이해되는가를 논할 때, 과거의 뿌리부터 현재까지, 캐나다 연합교회 안에서의 다양성을 강조합니다. 성서가 말하려는 본질은 『성서의 권위와 해석』 안에서 발견됩니다. 『완전한 포용을 향한 움직임』 문서는 “성서와 씨름하는 것은 기독교 공동체에 있어서 선택 사항이 아니다”¹⁸⁰라는 『성서의 권위와 해석』에서 제공한 통찰력을 반복합니다. 성서는 캐나다 연합교회에서 계속 권위를 갖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반하는 통찰력은 성서 해석의 불완전성과 어떻게 이러한 해석이 항상 수정될 필요가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이것은 성서의 권위와 관련하여 『믿음의 노래』에서 더 시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들과 매우 상응합니다. 성서의 권위와 해석은 모든 해석들이 이전 선언들이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수정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연합의 원리』와 1940년 『신앙선언』에 기록되어 있는 성서의 권위에 대한 진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완전한 포용을 향한 움직임』은 성서가 이 세상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 보여주는 원천임을 확인합니다.

180) Ibid.

성정체성(sexual orientation)과 목사 직무 자격에 대한 보고서
(1984)

『완전한 포용을 향한 움직임』이 다루고자 하는 갈등들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들이 1988년 32차 총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총회는 1984년에 나온 『성정체성과 목사 직무에 대한 보고서』 *Report on Sexual Orientation and Eligibility for the Order of Ministry*의 의견을 수용했는데 이 보고서는 “성정체성 그 자체가 캐나다 연합교회 목사 직무의 자격을 결정하는데 조건이 되어서는 안된다”¹⁸¹고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자신들의 성정체성을 공개한 목사 후보생 게이 레즈비언들의 위임 및 안수와 관련된 지침서가 필요한 연회의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 선교, 개인과 교육 분과에 의해 1982년 설립된 전문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전문위원회는 1984년 제 30차 총회에 보고했습니다. 1985년 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이 위원회는 이 주제와 이 보고서에 대한 교회 전반의 토론을 주재하고 이 토론으로부터 나오는 선언문을 발전시켜 1988년 제 32차 총회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¹⁸²

1984년에 나온 보고서는 캐나다 연합교회와 다른 교단들의 성서, 전통, 신학에 대한 전문위원회의 연구와, 캐나다 연합교

181) UCC, *Proceedings*, GC32, 1988, 186.

182) 이 사안에 관한 1988년 총회 토론과 결정에 대한 자료를 보려면 see Tracy Trothen, “1980s: Does It Mean to Be The United Church of Canada? Emergent Voices, Self-Critique, and Dissent,” *The United Church of Canada: A History*, edited by Don Schweitzer (Waterloo, ON: Wilfrid Laurier University Press, 2012), 151-3.

회 안에 있는 개인들, 그룹들, 교회들과 전문위원회와의 대화,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전문위원회의 연구에 근거했습니다. 위원회에 전달된 다양한 의견들과 위원회 자체의 회의 과정을 통해 전문위원회는 캐나다 연합교회와 캐나다 사회에 상당한 정도의 동성애 혐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¹⁸³ 전문위원회는 캐나다 연합교회 안에 있는 게이와 레즈비언들로부터 그들의 성정체성과 목회 소명과 관련하여 증언들을 들었습니다. 전문위원회는 미국심리협회가 동성애를 질병으로 더 이상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했습니다.¹⁸⁴

현대 민주주의의 시민 담론의 기저에는 누가 사회의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고 누가 포함될 수 없는지를 개념화하는 선악의 상징적 코드가 있어왔습니다.¹⁸⁵ 즉,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지만 이것이 이성애 정상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인데, 이런 상징적 코드로 인해 하나의 그룹은 정상으로 표준이 되고, 다른 그룹은 비정상이 됩

183) UCC, *Proceedings*, GC30, 1984, 190, 198. 동성애 혐오를 말하자면, Emily Askew and Wesley Allen Jr.가 말한 성소수자 집단에 반대하는 불의한 세가지 형태: 동성애 혐오, 동성애 차별(이성애주의) 그리고 이성애규범주의 (heteronormativity)가 있다. 이 형태들은 관련이 있지만 서로 동일하지는 않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양식(형태)을 참조하여 성소수자의 목사 안수 자격에 대해 논의할 때 설명(clarification)을 더 잘 할 수 있다. 동성애 혐오는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종교적 편협성 중 가장 노골적 행동이다.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성애주의)은 동성애 혐오라는 특정한 표현으로 보다 넓은 카테고리이다. 이성애 규범주의는 가정과 지속적인 체제 안에서 이성애가 사회의 표준으로서의 기득권을 갖는다고 주장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도록 한다. Emily Askew and O. Wesley Allen Jr. *Beyond Heterosexism in the Pulpit* (Eugene: Cascade, 2015), 4-5.

184) UCC, *Proceedings*, GC30, 1984, 201.

185) Jeffrey Alexander, *The Civil Spher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55-6.

니다. 그러한 정상 코드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자유 담론¹⁸⁶과, 배제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억압 담론¹⁸⁷을 통해 사회의 일원이 누군지 또는 아닌지 드러냅니다. 교회는 성서 해석을 통해서 이러한 상징 체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그 적용을 하도록 이끕니다. 동시에, 사회의 시민 담론을 체계화하는 상징 코드가 적용되는 방식이 교회의 성서 해석에서 추측되거나 경쟁하게 되는 배경 이론 혹은 이해의 한 부분을 형성합니다.

수 백 년 동안 서양 사회에서 동성애자와 그 외의 성소수자들은 사회에서 배제되어야만 하는 사람들로 간주되어왔습니다. 서양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악 코드가 그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해서 적용했기에 그들은 징벌 받고 모욕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1980년대에 이르러 게이와 레즈비언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평가는 도전 받게 되었고 그들을 차별하는 입장이 점차 시대를 거스르는 것으로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¹⁸⁸ 성정체성과 목사 자격을 연구하는 전문위원회의 결성은 교회가 종종 가르쳐왔고 서양 사회에서 하나의 상식이 되어왔던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이해가 캐나다 연합교회 내에 얼마나 팽배한지를 연합교회가 깨닫고 자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캐나다 연합교회가

186) Ibid., 60-1.

187) Ibid., 64.

188) 캐나다 내에서 이런 입장의 변화를 보여주는 연대표가 있다. *Moving Toward Full Inclusion*, 50-1.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목회에 대한 소명과 그 소명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은사와 자질을 가지고 있고, 공개적으로 게이나 레즈비언임을 밝힌 목사 후보생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연구하는 전문위원회Task Group는 게이나 레즈비언의 성정체성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보통 선천적으로 주어진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문위원회는 성정체성이 “아주 드물게” 바뀔 수 있고 게이와 레즈비언이 캐나다 인구의 대략 7-10%를 차지한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¹⁸⁹ 전문위원회는 게이와 레즈비언의 성정체성이 자연적으로 일어나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따라서 이것이 죄나 성도착증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동성애 정체성과 관련된 배경 이론에서 하나의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전문위원회는 ‘Affirm’¹⁹⁰ 이라는 단체의 대표자들이 한 증언에 특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종종 출애굽기 전통들¹⁹¹에 있는 용어들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갈등과 신앙 여정에 대해 말했습니다. 전문위원회는 게이와 레즈비언들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억압받는 사람들로서” 차별과 모욕의 고통을 받고 있

189) UCC, *Proceedings*, GC30, 1984, 198.

190) *Affirm United/S affirmer Ensemble* is described on its website as “a voice and a support for people of all sexual orientations and gender identities;” <http://affirmunited.ause.ca/>.

191) UCC, *Proceedings*, GC30, 1984, 190.

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¹⁹² 이 결론과 함께, 전문위원회는 서양 사회에서 시민 담론의 근거를 이루는 상징 코드가 게이와 레즈비언들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다는 입장에 동의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통적으로 그들은 억압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이해 되어왔습니다. 현재 자유 담론이 그들에게 적용되고 있고 그들의 정체성을 정당하게 인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서 자체는 여러 개의 선/악, 옳고 그름이라는 양가적 도덕 코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방에 반하는 억압 중 하나는 출애굽기 전통에서 옵니다. 주로 성경공부와 설교를 통해, 교회들이 가르치는 성경공부 방식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성서 이야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시하도록 초대합니다. 다시 한번 상징적 선악 코드가 여기서 작동합니다. 이러한 동일화는 그들을 많은 성서이야기들에서 승리자 쪽에 서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무의식적인-심지어 의식적인-“선택된 승자”라는 동일화 과정이 정복을 하나의 정당한 권리로 보는 성향으로 쉽게 이끌게 된다”¹⁹³고 Wenh-In Ng는 경고합니다. 바울 서신에 또 하나의 상징 코드, 은혜를 통한 의와 반대로 행위를 통한 의가 있습니다. 구약 성서 전반에 나타나고, 신약 성서, 특히 바울 서신에 존재하는 또

192) Ibid., 186.

193) Wenh-In Ng, “Reading the Bible ‘As If We Were on the Other Side’: An Invitation to Postcolonial Biblical Interpretation,” in edited by Wenh-In Ng, *That All May Be One: A Resource for Educating toward Racial Justice* (Toronto: United Church of Canada, 2004), 58.

하나의 선악 코드가 있는데 그것은 도덕과 부도덕입니다. 교회 교인들은 도덕적이게 되고 부도덕한 자들은 그들 가운데 속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전통적으로 동성애는 기독교 사상과 실천에서 부도덕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면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억압 담론은 정당한 도덕적인 우려라기보다는 차별로 규정되기 시작했습니다.¹⁹⁴ 성소수자들은 억압받는 자들로, 그들을 배제하고자 하는 이들은 그들의 억압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문위원회는 자신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활동하는 동안 성서를 세가지 방식으로 연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구체적으로 동성애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¹⁹⁵ 구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전문위원회는 그 중에서 8개를 골랐습니다.¹⁹⁶ 레위기 18:22와 20:13-14이 그들이 구약성서에서 찾은 동성애를 정죄하는 구절들이었습니다. 전문위원회는 이 구절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삶을 적합하게 구속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¹⁹⁷ 전문위원회는 또한 만약 동성애가 선택이 아니라 지향으로 이해된다면 로마서 1:26는 단순히 그것을 정죄하는 것으로

194) 일반적인 인간사 그리고 특정 교회사안에서 너무 많이 성다수자들의 행위와 경험이 규범화 되어왔고, 도덕적으로 바른 것으로 규정되어 왔다. 반면에 성소수자의 행위와 경험은 열등하고 도덕적으로 악하고 틀린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195) UCC, *Proceedings*, GC30, 1984, 195.

196) Genesis 1 and 2; Genesis 19, especially verses 4ff.; Leviticus 18:22, 20:13-14; Deuteronomy 23:17-18; 1 Kings 14:22-24, 15:22, 22:46; Romans 1:26ff.; 1 Corinthians 6:9; 1 Timothy 1:10.

197) UCC, *Proceedings*, GC30, 1984, 206.

보여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위원회의 두 번째 접근은 구절들의 의미를 분별하기 위해서, 그러한 구절들의 문맥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접근을 통해 위에서 언급한 8개의 구절들이 “교회에서의 게이와 레즈비언 기독교인들의 위치”¹⁹⁸ 와 관련하여 교회에 구체적인 방향이나 대답을 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셋째로 전문위원회는 John Wesley가 아마도 불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성서의 “일반적이고 일괄된 방향”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교회와 성소수자들의 관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전문위원회는 게이와 레즈비언들의 성적체성이 본능적인 죄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게이와 레즈비언들이 억압과 모욕을 부당하게 받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전문위원회가 출애굽기 전통에서 출발하는, 억압의 본문과 자유의 본문에 들어있는 선악 도덕 코드의 빛에서 게이와 레즈비언들을 이해하려고 선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문 위원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서가 심판과 은총의 언어로 우리의 고민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동성애자를 억압하는데 공헌하고, 참여한 우리들 모두에게 임한다는 것과 우리가 회개하도록 부름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 우리는 또한 동성애자들이 이러한 억압으

198) Ibid., 196.

로부터 해방되고, 그들이 온전한 인간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음을 믿는다.¹⁹⁹

이것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교회가 이전에 가르쳤고 실천해 왔던 가르침을 뒤집는 극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이것은 동성애가 더 이상 질병이나 도덕적 탈선이 될 수 없다는 배경 변화의 수용에 의해서, 그리고 Wesley가 노예들의 인간성에 끼쳤을 노예 제도의 영향에 대해 고려했던 것과 같이 억압 담론이 게이들과 레즈비언들의 인간성에 끼쳤을 영향들에 대한 고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전문위원회는 성서가 이 억압 담론을 지지하는데 사용되어왔다는 것과 교회에서 게이와 레즈비언들이 공개적으로 배제되어왔다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전문위원회는 이것이 성서가 “흑인, 여성, 노예”²⁰⁰와 같이 사회에 의해 희생된 다른 사회적 그룹들의 목사 안수를 거부하는데 사용되어 온 것과 비슷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서는 억압받는 자들의 편에 선다... 하나님의 계획은 게이와 레즈비언들을 목회 직무에서 조직적으로 배제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배제를 지지하는 확실한 성서적 그리고 신학적 주장은 없다.²⁰¹

199) Ibid.

200) Ibid., 198.

201) Ibid.

출애굽기 전통에 더해서, 전문위원회가 심사숙고 할 때 “사도에 필요한 상당한 영양분”²⁰² 을 제공했던 결정적인 구절은 사도행전 10:11-18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초대 교회가 성령의 지시 하에 도덕 코드를 재정립한 것을 기록에 남겼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전에 배제되었으나, 지금 유대교로 개종 할례의식을 하지 않고도 교회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구절이 가리키는 것처럼, 도덕 코드에 대한 신앙인들의 극적인 입장의 변화가 성서에 기록되었고 표현되었습니다. 갈라디아인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는 사도행전 10:11-18이 묘사한 변화가 초대 교회에서 얼마나 극적이고 논쟁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전문위원회가 제공한 성정체성에 대한 배경 이해의 변화를 수용할 경우, 사도행전 10:11-18 외에도, 1988년 결정에 동의한다고 말하는 다른 성서 구절들은 출애굽기 3:7~8, 미가 6:8, 누가복음 15:1~7입니다.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전문위원회는 서양 사회 문화의 변화로 게이와 레즈비언 성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알게 되었지만 이 변화만이 결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목회에 대한 소명을 경험하고 목회를 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공개적으로 교회에서 게이와 레즈비언임을 밝힌 교인들의 증언이 똑같이 중요했습니다. 그들의 증언과 사회 주변의 게이와 레즈비언 성sexual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들으면서, 전문위원회는 게이와 레즈비언에게 억압 담론을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는 캐나다 연합교회와 캐나다 사

202) Ibid., 201.

회에 깊이 내린 반대입장의 이해와 갈등들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1988년 총회에서 전문위원회의 제안에 찬성 투표를 던졌던 대다수는 성서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성서듣기를 선택했습니다. 성소수자들의 상황과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그들을 정죄하고 배제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는 성서 구절들을 단순히 적용하는 대신, 대다수 총대들은 전문위원회의 인도를 따르고, 성서 전반에서 울려 퍼지는 억압자를 자유케 하라는 신적 소명을 듣고, 이러한 주제의 빛에서 교회에 있는 성소수자들의 위치를 이해할 것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하였습니까?

1988년 캐나다연합교회 교인 대다수는 성소수자들이 목사 안수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선언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대다수 총대들은 1988년 총회 장소에 도착했을 때 이러한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총회에서, 많은 총대들은 스스로 게이와 레즈비언임을 밝힌 교회 사람들을 처음으로 깊이 만났습니다. 총대들은 그들의 증언을 들었고, 그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으며,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때 “비등Effervescence”이라고 불리는 사회학적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비등은 사회학자 Emile Durkheim에 의해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이는:

연대적 결속에 의해 연합되어있지만 전체 영역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공동체 회원들이 정식으로 모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고조된 의식, 증가된 활력소,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창조성.²⁰³

총회 총대들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오고, 일주일 동안 회의와 예배를 위해 함께 앉아있고, 서로 방문할 때, 비등 현상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러한 현상은 1986년 서드버리 Sudbury 총회에서 캐나다 연합교회가 원주민들에게 사과하자는 의견에 총대들이 열린 마음을 갖도록 도왔습니다. 1988년에는 이러한 현상이 많은 총대들로 하여금 교회의 성소수자들의 증언과 그들과 관련된 성서 구절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하는데 열린 마음을 갖도록 돕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비등 현상은 교회가 성서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듣도록 성령께서 교회의 문 교인의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가지 방법입니다.

전문위원회의 제안성소수자들을 포용하자은 엄청난게 갈등을 불러오는 입장이었기에, 최종결정을 하기 전에 최대한 폭넓게 토론하려고 지혜를 구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하나 중차대한 문제는 이 결정이 캐나다 연합교회의 “신앙의 규칙”을 흔들 만큼 중대한 변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총회가 이 문제에 대해 투표했을 때, 총대들은 캐나다 연합교회에서 성소수자들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고 결정한 것이 교인들을 잃게 만들고, 에큐메니칼 파

203) Gregory Baum, “Vatican II: The church and ‘The Others’: Turning Point of Catholic Teaching,” *The Ecumenist* 36:3 (August–September 1999), 17.

트너들과 긴장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할 바 없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을 감수하고 1988년 많은 총대들은 그들 교단을 위해 양적으로 예. 교인수 좋은 것을 택하지 않고 질적으로 진리라고 생각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지금 현 기득권자들 정상으로 규범이 된 다수의 입장이 아니라, 캐나다 사회에서 모욕과 배제에 의해 희생당했던 소수의 사람들 쪽에 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결론: 캐나다 연합교회의 성서의 권위와 해석에 대한 계속적인 이해

성소수자의 목사 안수 자격과 관련된 1988년 총회의 결정은 캐나다 연합교회 “신앙의 규칙”에서 하나의 중대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상당한 논쟁이 있었고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토론되었습니다. 『완전한 포용을 향한 움직임』 문서에서 다른 반대 그룹의 다양한 목소리가 말하는 바는 최근 몇 십 년 동안 캐나다 연합교회가 지켜왔던 “신앙의 규칙”에 많은 변화들이 있어왔음을 지적하는 것이고, 또한 성서가 지니는 권위를 똑같이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연합의 원리』 교리 항목에 있는 제 2항은 캐나다 연합교회의 성서 이해가 근본주의의 성서 이해와 여실히 드러나지 않지만 조용하게 분리가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즉, 캐나다 연합교회는 초기 시작부터 성서해석에 대한 반근본주의 입장을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전망』*The New Outlook*의 편집자들은 캐나다 연합교회와 연합교회의 성서 이해가 연합이 결성된 직후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근본주의-현대주의 논쟁 양쪽 모두로부터 거리를 두도록 노력했습니다. 성서 해석에 대한 이러한 강력한 입장차이는 이미 1960년대 『새로운 교과과정』의 출판과 Billy Graham의 성서 이해에 대한 비판과 함께 연합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²⁰⁴ 1960년대 성sexual혁명의 결과로써 일어났던 많은 연합교회의 가르침은 이러한 입장 차이에 일조했습니다. 성소수자의 목사 안수 자격과 관련된 1988년 총회의 결정은 교회 역사상 아마도 이러한 차이 중 가장 크게 대별되고 큰 논쟁을 일으킨 성서해석의 예일 것입니다. 『완전한 포용을 향한 움직임』에서 언급된 3개의 반대 그룹은 캐나다 연합교회가 성서의 권위에 충분한 무게를 두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²⁰⁵ 캐나다 연합교회의 공식적인 성서해석의 가르침과 이들 반대파 그룹들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성서에 무게를 얼마나 두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성서는 비판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이 문제가 『성서의 권위와 해석』의 주요 주제인데, 이 문서는 1984년 전문위원회의 제안과 이에 대한 1988년 총회의 추인 때 문에 제기되는 토론에 부분적으로 응답하기 위해 출판되었습니다.

204) Phyllis Airhart, *A Church With the Soul of a Nation* (Kingston/Montreal: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2014), 236-7.

205) *Moving Toward Full Inclusion*, 9-10.

다. 『완전한 포용을 향한 움직임』에서 인용된 『성서의 권위와 해석』 문서는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성서가 기계적 문자주의적으로 적용되고, 고정된 대상으로 사용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 문서는 하나님의 존재와 이 세상에서의 교회의 소명과 관련하여 편안함과 도전 둘 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성서가 교회에게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힘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캐나다 연합교회가 형성된 이래로 캐나다 연합교회가 성서를 이해하고 성서의 권위를 존중하는 방식과 일치합니다. 『성서의 권위와 해석』과 『완전한 포용을 향한 움직임』은 성서를 단지 진리의 한가지 자료로 상대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책이나 진리의 자료도 성서만큼 교회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처음부터 캐나다 연합교회는 성서를 고정된 고착물, 또는 안정된 바위로 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정된 바위는 새로운 정황들로부터 나오고 질문하는 도전적인 신앙 이해를 기피하는 보호기제를 말합니다. 캐나다 연합교회는 기독교인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하고 고정적인,” 즉, “인간 행동에 대한 고정적이고 영구적인 제약”을 성서가 제공한다고 보는 시각을 거부했습니다.²⁰⁶ 이러한 시각은 1940년 『신앙선언』 제 9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 연합교회는 결코 성서를 이런 고정된

206) Richard Bernstein, *Beyond Objectivism and Relativism* (Philadelphia: University of Philadelphia Press, 1985), 19.

권위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캐나다 연합교회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그리고 임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그런 기본 제약들이 없다는 상대주의자의 메시지”를 또한 거부합니다.²⁰⁷ 캐나다 연합교회가 일관되게 확인하는 것은 성서가 과거에 어떻게 해석되었는지 그리고 특정 구절들이 어떻게 성서의 “일반적이고 일괄된 방향” 하나님의 일관된 뜻에 관련되어 있는지를 분별하면서, 현대 성서 연구의 비평 방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비판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연합교회의 최근 공식 선언문들은 성서가 해^{harm}를 야기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성서 해석에 책임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서를 자의로 인간의 마음대로 길들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 연합교회는 또한 성서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우리가 성서를 받아들이도록 마음을 열게 만드는 성령을 통해서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된다는 것, 즉, 성령의 역할과 중요성을 계속해서 확인합니다.²⁰⁸

캐나다 연합교회는 성서가 성서 자체 기록을 초월해서 궁극적인 구원 진리의 원천이라는 것을 항상 믿어왔습니다. 캐나다 연합교회는 성서를 권위적이라고 계속 이해하는데 이것은 “선함의 승리, 의미 있는 것들에 대한 확신, 구원의 성서적 증언” of deliv-

207) Ibid.

208) Harold Wells, *The Christic Center* (Maryknoll, NY: Orbis Books, 2004), 219, 221.

erance, of assurance of the meaningfulness of things, of the triumph of goodness이라는 경험들을 통해서 연합교회가 계속 성서를 물려받기 때문입니다.²⁰⁹ 이러한 경험들은 때로는 저주로, 때로는 축복으로 옵니다. 캐나다 연합교회의 성서 해석에서 캐나다 사회의 많은 문화적 요소들이 고려되고 영향을 주지만, 캐나다 연합교회의 해석들이 그 영향으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서의 권위를 존중하고 성서를 창조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하면서, 교회는 캐나다 사회의 문화적 영향들에 대하여 제한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실제적인 탁월성을 보장받습니다.

『완전한 포용을 향한 움직임』은 성서의 권위와 해석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캐나다 연합교회가 성소수자의 목사 안수 자격을 인정하려고 할 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다른 교단들과 해외 파트너 교단들의 입장을 대표할 수 있게 하도록 돕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이러한 성소수자의 안수자격에 대한 긍정affirmation은 캐나다 연합교회가 성서의 권위를 포기하는 결과로써 온 것이 아니라 캐나다 연합교회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고,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특징으로써 결코 버리지 않았던 성서의 권위를 따랐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209) Charles Taylor, "What is Pragmatism?" *Pragmatism, Critique, Judgement*, edited by Seyla Benhabib and Nancy Fraser (Cambridge, MA: The MIT Press, 2004), 90.

결론

Samuel Chown, George Pidgeon, Effie Jamieson 그리고 Mrs. H.A. Lavell는 캐나다 연합교회를 구성한 몇몇 교단들과 여성단체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지도자들과 캐나다 연합교회 초기의 교인들은 훗날 성소수자들도 캐나다 연합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고, 그들 가운데 누군가가 총회장으로 선출되어 교단을 섬기게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이러한 사실은 캐나다 연합교회 역사상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캐나다 연합교회의 형성 자체가 이미 과거의 전통을 깨뜨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연합교회를 형성했던 각 교단의 대표들은 바로 이러한 연합을 위한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캐나다 연합교회의 형성은 지지자들과 비판자들에게 과거에서 벗어난 새로운 도전으로 비춰졌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 1988년 성정체성이 목사안수를 받는 일에 장애가 될 수 없다는 캐나다 연합교회 총회의 결정은 역시 큰 놀라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결정들에 대해 비판가들은 캐나다 연합교회가 성서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거나 혹은 성서의 권위를 무시한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연합교회의 형성과 1988년 총회의 결정은 성서를 잘못 해석한 것도 그 권위를 무시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성서를 새로운 관점에서 읽고 해석하였으며 새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여 적용하였을 뿐입니다.

캐나다 연합교회의 형성에 있어서 열쇠가 되었던 성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등장하는 “그들도 하나가 되어” that they all may be one라는 말씀입니다.²¹⁰ 캐나다 연합교회의 교인들은 이 말씀을 3 개 혹은 이후 4 개의 교단들이 유기체적 연합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의 의지를 표현한 구절이라 이해해 왔습니다.²¹¹ 또한 1984년 총회 때 발표한 “성정체성과 관련한 목사안수 자격” Sexual Orientation and Eligibility for Ordination 보고서는 히브리 노예들을 자유케 한 해방자 하나님의 출애굽 전통의 연장선에서 성서를 해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상 두 가지 상황 모두 성서의 권위를 내세웠으나 극적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성서를 이해하고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210) C. T. McIntire, “Unity Among Many: The formation of The United Church of Canada, 1899–1930,” *The United Church of Canada: A History*, edited by Don Schweitzer, (Waterloo, ON: Wilfred Laurier University Press, 2012), 20.

211) 감리교회, 장로교회, 회중교회 이3교단 이외 4번째로 가입한 교단은 지역 연합교단(Local Union)이다. 이 연합교단 소속 교회들은 『연합의 원리』의 교리를 단초로 개교회 전문을 작성했다. 캐나다 연합교회의 형성 과정에 이 교단은 독특한 자신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캐나다연합교회에 결합했다. McIntire, “Unity Among Many,” 7–8, 6.

성서의 본문은 종종 다양한 해석을 통해 이해됩니다. Augustine은, 이러한 해석이 “신앙의 규칙”에 충실하다면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²¹² 문제는 그 성서 해석이 “신앙의 규칙”을 따르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앙의 규칙”이란 복음의 의미에 대한 교회 안에서 형성된 합의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서 해석들이 이러한 합의를 파괴하거나 공동체 가운데 분쟁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혹은 성서 해석들이 충분한 이해와 안내를 교회에 제공하지 못할 때, 사회가 문화적 위기에 빠지는 것처럼 “신앙의 규칙” 역시 위기에 빠지기도 합니다.²¹³ “신앙의 규칙”이 더 이상 충분한 실재의 이해를 제공하지 못하게 될 때, “신앙의 규칙” 그 자체도 재해석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성서해석의 갑작스런 변화는 교단의 정체성의 중요한 열쇠인 “신앙의 규칙”을 바꾸는 것과 같은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역사학자 Phyllis Airhart가 인용한 William Birks의 이야기는 어떻게 신실한 기독교인에게 신앙의 규칙을 바꾸게 되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1920년의 어느 토요일 밤, 온타리오주 북부에 위치한 Schrieber라는 작은 마을에서, 부유한 장로교 기독교인이었던 Birks는 다음 날 주일 그 마을에 있는 장로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거기엔 “두 명의 남성과 소수의 여성,

212) Augustine of Hippo, *Expositions of the Psalms 73-98: The Works of Saint Augustine*, edited by John Rotelle, III/18 (Hyde Park, NY: New City Press, 2002), 50.

213) David Tracy, *Plurality and Ambiguity*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7), 7.

그리고 다수의 어린이들”만 예배를 드렸습니다.²¹⁴ 오랜 시간 장로 교단의 가정 선교를 후원해 왔던 Birks은 이런 작은 장로 교회가 마을의 성공회 교회, 감리교회, 그리고 침례 교회와 비교할 때 별로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굳이 따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 각 교회들은 자신의 목회자가 있었고, 그들은 Birks의 운전기사만큼 도 사례비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Birks에게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경험 후 그는 자신이 속한 장로교회들이 연합하는 일에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한 때 그가 섬겼던 장로교단의 주요 “신앙의 규칙”에 따라 개 교회의 가정 선교를 후원하던 일은, 적어도 이 고립된 마을에서는 더 이상 그에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연합을 하는 일이 더 신앙의 규칙의 의미에 맞다고 생각함

이런 급격한 변화가 1980년대 즈음에 또 일어났습니다. 캐나다 연합교회 교인이었던 성소수자들 가운데 목회적 은사와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서의 기본 덕목을 언급하며, 목회자로 세움 받기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성소수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허락하지 않던 캐나다 연합교회의 기존 관례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승되어온 캐나다 연합교회의 “신앙의 규칙”이 더 이상 설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성소수자들의 목회적 소명에 대한 은사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동성애적 행위를 금하는

214) Phyllis Airhart, *A Church with the Soul of a Nation* (Montreal/Kingston: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2014), 30.

성경 구절에 대한 맹신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들의 영적 은사를 부인한다면 그것은 신약성서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19고 하신 말씀을 사실상 부정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상황들의 경우를 보면 그 문제에 직접 관련된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속한 교단의 전통적인 관례와 전해 내려오는 “신앙의 규칙”에서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두 상황 모두, 각 시대마다 교회가 처한 사회적 상황, 교회의 전통들, 발전된 신조들의 방향, 그리고 성서와 이 모든 권위를 함께 염두에 두고 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대화들은 종종 논쟁의 여지가 매우 크고 다양한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진리는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규칙”이 더 이상 충분한 이해와 성서에 대한 안내를 하지 못함에 따라, 교회는 그 진리의 근원을 재해석하도록 요청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각각의 대화는 성서를 새롭게 읽어내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성서를 새롭게 해석하는 일은 전통적인 “신앙의 규칙” 내 담겨있는 내용의 극적인 변화를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은, Birks의 경우에 있어서 유기체적 연합을 위한 핵심 구절이 되었습니다. 출애굽 전승 역시 1980년대 성소수자의 목사 안수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는 성서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 1988년 캐나다 연합교회 총회에서의 결정은 그 근원과 전통의 관점에서 볼 때 급진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러한 결정은 캐나다 연합교회를 형

성한 초기 교인들이 그 당시 시대를 읽고, 성서를 그 시대와 대화하면서 조명하는 그런 방식이 다음 세대인 1980년대 교인들에게서도 지속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즉, 급진적 변화이지만, 그럴만한 성서적 역사적 기반이 충분히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사례가 지적하는 바는 교회는 캐나다 연합교회 초기의 노선과는 거리가 있는 새로운 경험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맹목적으로 과거의 노선을 고수하지 않았다는 걸 반증합니다. 동시에 단지 변화하는 시대에 편승해서 마구 쫓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변화를 아우르면서도 그들은 성서를 새롭게 해석하기 위해 성서 본질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성서에 대해 재조명하는 가운데, 그들은 자신의 노선을 변화시켜 갔습니다.

신학자 Karl Barth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시는 또 다른 말씀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교회가 모든 시대를 통하여 계속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서가 아니라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²¹⁵ Barth는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수 십 년 혹은 심지어 수 백 년의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그 시간이 끝나더라도 우리 인간이 기독교 전체를 통해 듣고 인식할 수 있는 다른 말씀들은 단지 대략적인 것일 뿐”이라고 하였습니다.²¹⁶ 게이 나 레즈비언 등의 성정체성이 자연적으로 생성된다는 인식성적지향 역시 이런 또 다른 말씀들 중 하나로서 인정 되어야만 합니다. 따

215) Karl Barth, *Church Dogmatics* IV/3, 1 (Edinburgh: T. & T. Clark, 1961), 124.

216) *Ibid.*, 132.

라서 동성애를 이성애 보다 더 성도착적인 것이라고 규정하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교회가 더 이상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서의 증언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새로운 시대의 특정한 말씀 새로운 인식이 제한된 교회의 과거에 속한 인식의 범주를 넘으라고 가르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서가 가장 근본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순례자들임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13:14 우리가 소망하는 미래는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에 대한 현 시점에서의 이해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신앙의 실천 사이에서 결코 혼란스러워 해서는 안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신앙적 유산, 과거로부터 그들에게 전해 내려온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사도들이 지녔던 지혜와 통찰력을 이어가는 일에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우리 시대의 예수님의 의미라는 큰 주제를 향해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에 대해 열려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이러한 두 가지 큰 주제는 서구 교단들의 모습 가운데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성령께서 오늘날의 교회들에게 교회 안과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슈들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해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

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서의 증언과 그 증언들을 해석하면서 벌어지는 저항의 전통들도 깊이 심취해 있기를 요청합니다. Augustine과 동시대를 살았던 Jerome은 “성서에 대한 무지는 곧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라고 권면한 바 있습니다. 그는 성서를 라틴어로 번역했으며 많은 복음서 주석을 저술하였습니다.²¹⁷ 그에 있어 성서를 안다는 것은 만일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할 때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주장이 성서에서 왔건, 교단 신앙 전통에서 왔건 진리에 대한 주장은 분명하지 않고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애매모호함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분별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이런 성찰의 기준은 우리가 두 가지 소명세상에 귀 기울임과 성서에 심취함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소명을 위하여 우리 각각을 부르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분별하도록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서는 한가지 음성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서의 많은 본문들을 딱히 하나로 정확하게 해석하기 어렵고 애매모호합니다.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 성서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새로운 상황들이 발생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시대의 교회는 의도적으로, 또는 비의도적으로, 암묵적인 성서의 핵심 구절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신앙의 규칙”을 공식화 했습니다.

217) Jerome, *Commentary on Isaiah*, quoted in “Dogmatics Constitution on Divine Revelation,” #25 in W.M. Abbott, ed., *The Document of Vatican II* (New York: America Press, 1966), 125.

다. “신앙의 규칙”이 성서 해석에 대한 필수적인 안내의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성서 그 자체는 아닙니다. 때때로, 새로운 통찰과 경험의 결과로서 성서에 대해 충실하다는 것은 교단의 “신앙의 규칙”의 변화를 요청합니다. 성서 그 자체 즉, 종말론적 희망의 메시지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들은 그러한 “신앙의 규칙,” 기존에 지켜왔던 가르침이 변화하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것은 캐나다 연합교회가 1988년 총회의 결정을 가능하게 한 변화의 한 모습입니다. 1988년 총회 결정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성서의 권위에 대한 무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신앙의 규칙”을 바꾸어내는 성서의 권위에 충실한 것입니다.